

외교

수교 및 조약

수교 및 주요 조약



우리는 흔히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한다. 이는 우리의 삶이 지구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고 있는 관계, 즉 외교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우리나라는 현재 190개 국가 또는 지역과 수교를 맺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투자 보장 협정, 범죄인 인도 조약 등 조약을 통해 실질적 협력을 하고 있다.

국제 협력과 재외 국민 및 재외 동포 지원을 위해 세계적으로 160여 개에 달하는 대사관, 총영사관 혹은 대표부를 두고 있다. 2013년 현재 영주권자, 일반 체류자, 유학생, 외국 국민 등 재외 동포는 그 수가 약 700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1980년대 초 한 해에 3만여 명에 달했던 해외 이주자 수는 경제 성장, 민주화와 더불어 감소하였다.

국경을 넘나드는 인적 교류를 살펴보면 2012년 현재

한국인 출국자 수는 1,200만 명 이상이며, 외국인 입국자는 1,000만 명을 넘는다. 이러한 활발한 민간 차원의 교류는 다른 국가와의 비자 면제 협정을 통해 촉진되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및 양극화 문제 등으로 인한 성장률의 둔화를 타개하고, 다자적 무역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양자 또는 지역적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에 힘쓰고 있다. 또한 8개에 달하는 주요 지역 협력체에 가입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제 평화, 인권, 개발, 환경 등 범지구적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 혹은 정부 간 기구에 가입해 왔으며, 나아가 이들 기구를 유치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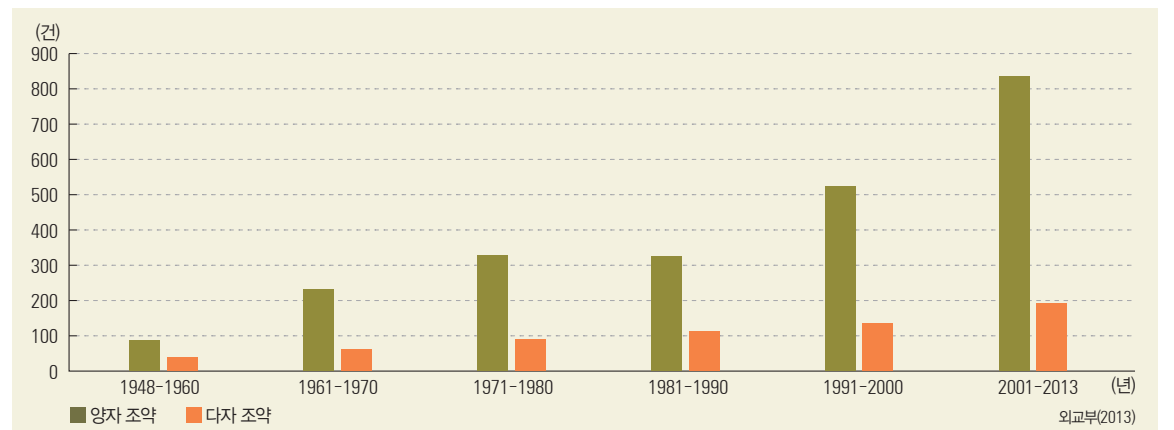
유엔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책무를 맡고 있다. 우선 유엔 정규 예산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분담금의 규모 또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크게 증가하여 적지 않은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이에 따른 인권 침해를 평화적으로 수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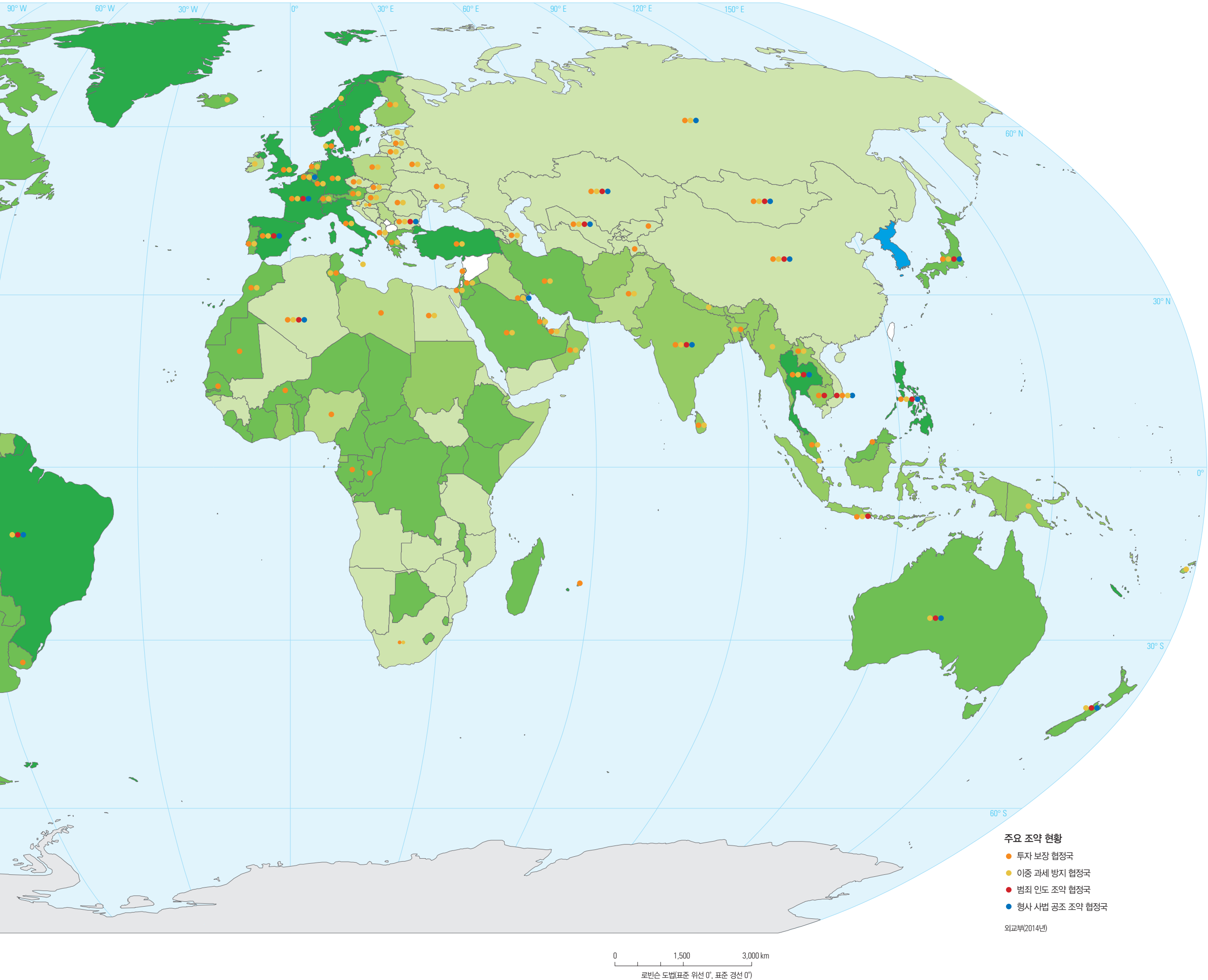
하고자 유엔 국제 평화 유지 활동(PKO)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다양한 국제 교류 활동을 통해 전 세계에 한국과 한국인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우호·친선을 증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학 기반 확대, 한국 전문가 육성, 인사 교류, 문화 교류, 국제 협력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 활발한 교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조약 건수 추이





수교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교류를 맺는 것을 뜻하며, 이를 통해 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2014년 12월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188개국과 수교를 맺고 있으며, 마케도니아, 시리아, 쿠바와는 수교 관계가 없다. 유엔 비회원국 중에서는 교황청, 국 제도와 수교를 맺고 있다.

지도는 현존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수교를 맺은 시기별로 표현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1960년까지만 해도 수교국은 16개의 자유 우방 국가에 한정되었다. 1960년대에 65개 국가와 수교를 맺으면서 수교국 수가 급증하게 되었는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비동맹 국가였다. 이들 비동맹 국가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새로 독립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내 소위 ‘제3세계’의 개발 도상국으로 1960~1970년대를 통해 유엔 등 국제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정부는 1961년

비동맹 국가 5개국과 수교를 시작으로 1969년까지 37개국과 국교를 수립하였고, 점차 이들 국가와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30개 국가와 그리고 1980년대에 22개 국가와 수교를 하였다. 동서 냉전 시기에 정부는 긴장된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을 합법적인 국제 관계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명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ctrine)’을 고수하였다. 즉 북한을 승인한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고, 국제회의 등에서 북한의 참가를 거부하는 정책을 견지하였다. 하지만 이 정책은 정부가 남북 대화를 시작하면서 1973년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과 함께 공식 철회되었다.

1980년대 중반 들어 소련이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하면서 냉전은 점차 완화되고 화해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중국에는 1989년 몰타 미·소 정상 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양국 정상은 냉전을 종식하고 상호 적대 관계를 지양하기로 하였다. 같은 해에 동유럽 공산권

국가에서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났고 이듬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었다. 1991년 12월에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되면서 냉전 질서는 사실상 종식되었다.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에 맞추어 정부는 ‘북방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1989년 헝가리를 시작으로 동구권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1990년에는 소련과의 역사적인 국교 수립이 이루어졌다.

조약이란 ‘단일의 문서 또는 둘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조 제1항 a호 참조). 하지만 위 정의는 편의상 국가 간의 조약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간의 국제적 합의도 조약이라 한다. 조약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조약(treaty), 헌장(charter, constitution)·규정(statute)·규약(covenant), 협정(agreement),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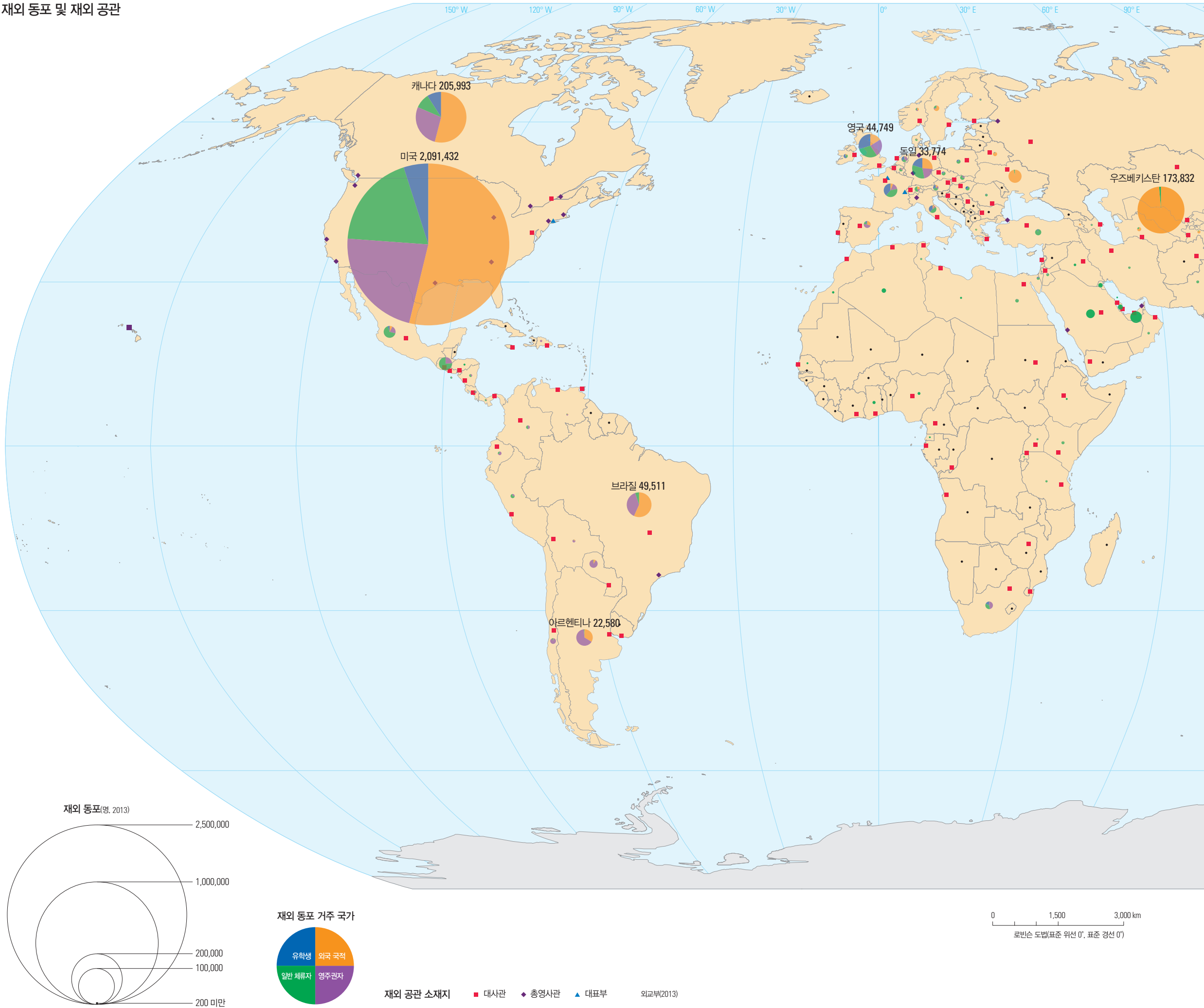
(convention), 의정서(protocol), 각서 교환(exchange of notes), 양해 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기관 간 약정(agency-to-agency arrangement) 등이 있다.

지도는 2012년 현재 투자 보장 협정, 이중 과세 방지 협약, 범죄인 인도 조약, 형사 사법 공조 조약 등 주요 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표시한 것이다. 각 조약을 체결한 국가 수를 보면 투자 보장 협정 87개국, 이중 과세 방지 협약 78개국, 범죄인 인도 조약 26개국, 형사 사법 공조 조약 22개국이다. 그리고 이들 조약을 모두 체결한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등 15개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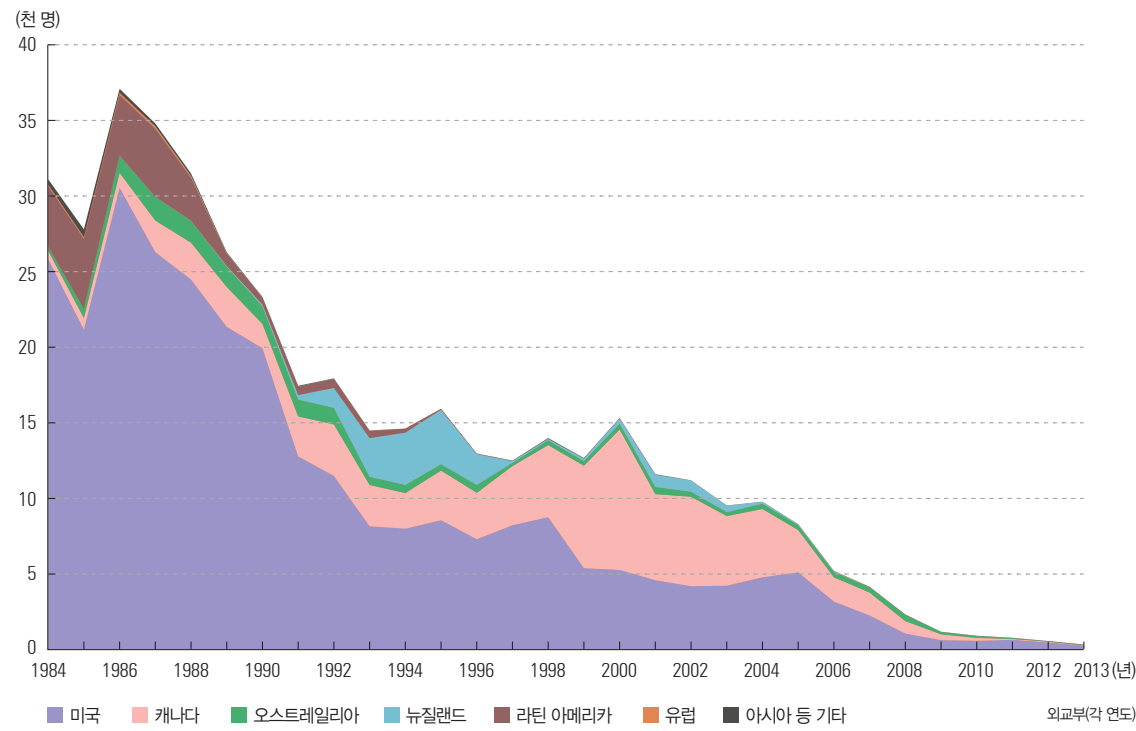
그래프는 연도별 조약 체결 건수를 보여 준다. 우리나라가 수교를 맺은 국가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양자 조약 체결 건수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양자 조약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다자 조약을 체결한 건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동포 및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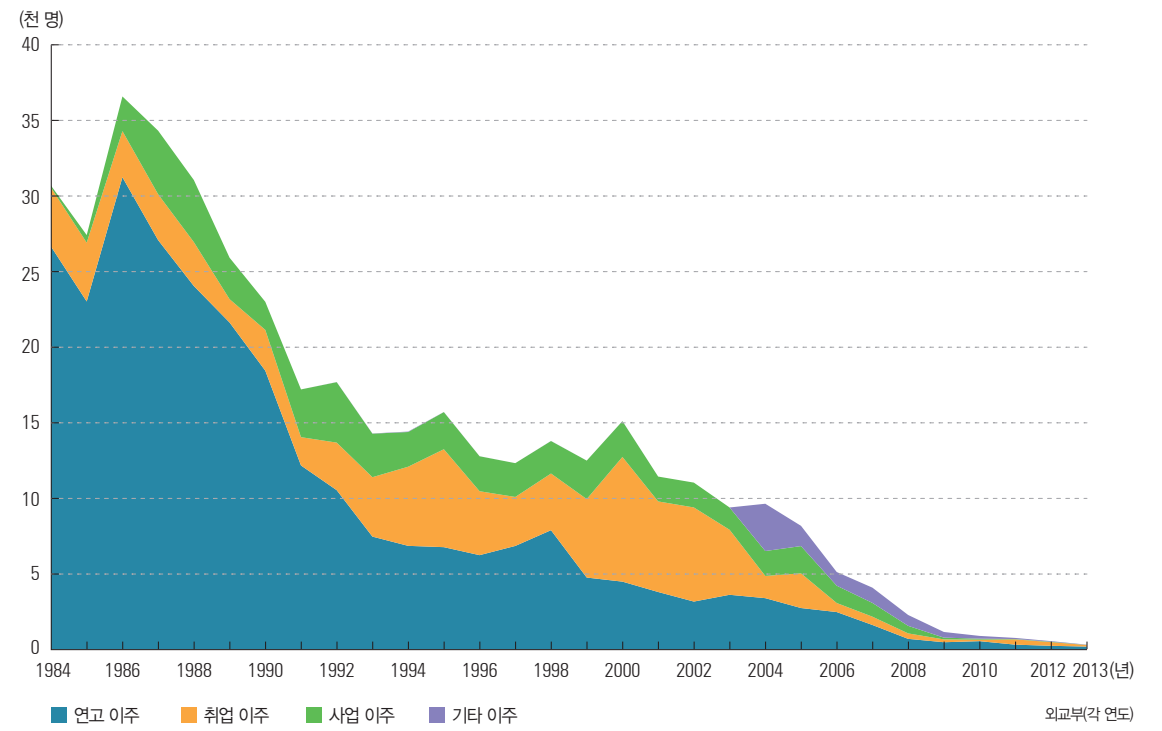
재외 동포 및 재외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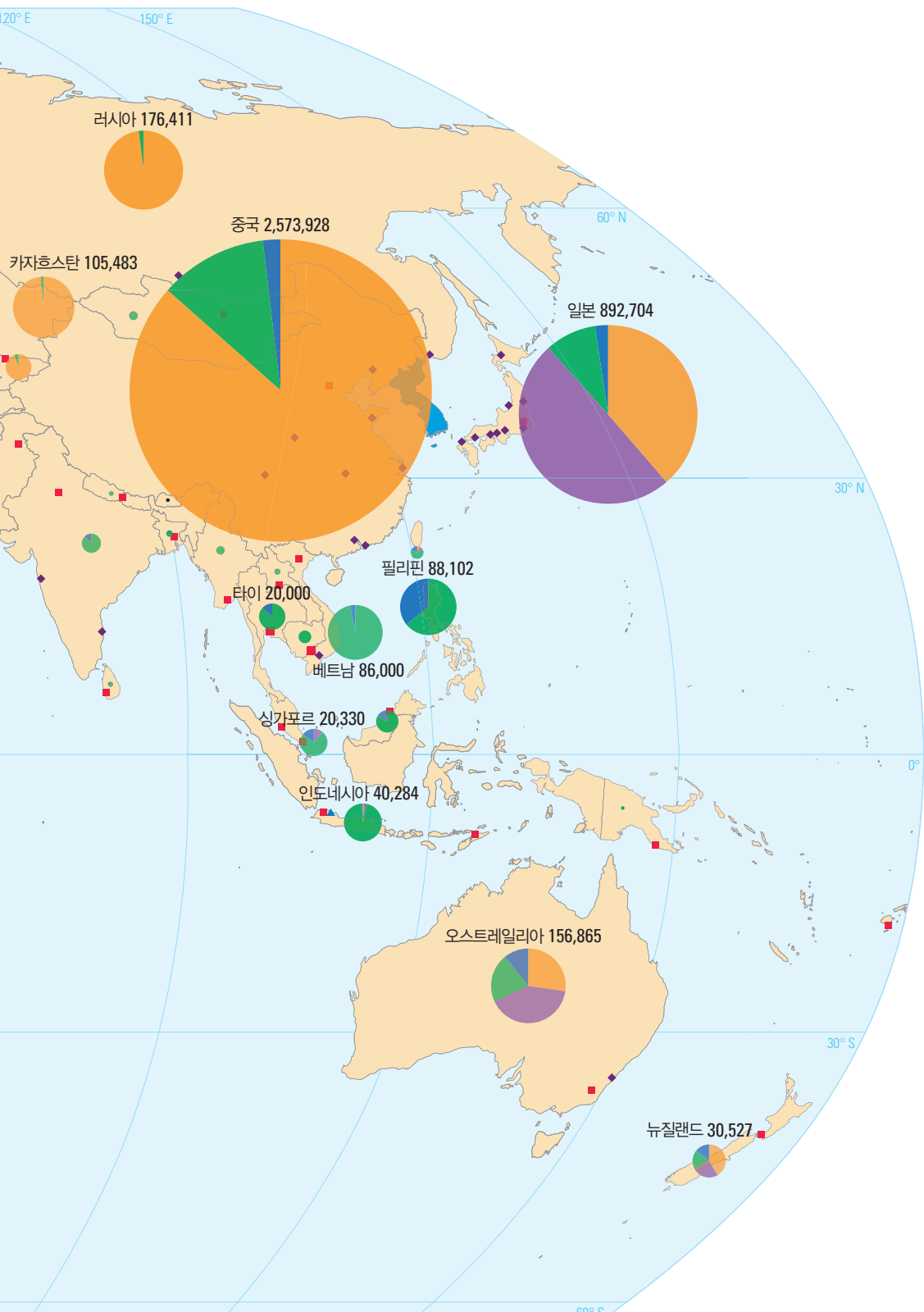


주요 지역 및 국가별 해외 이주 신고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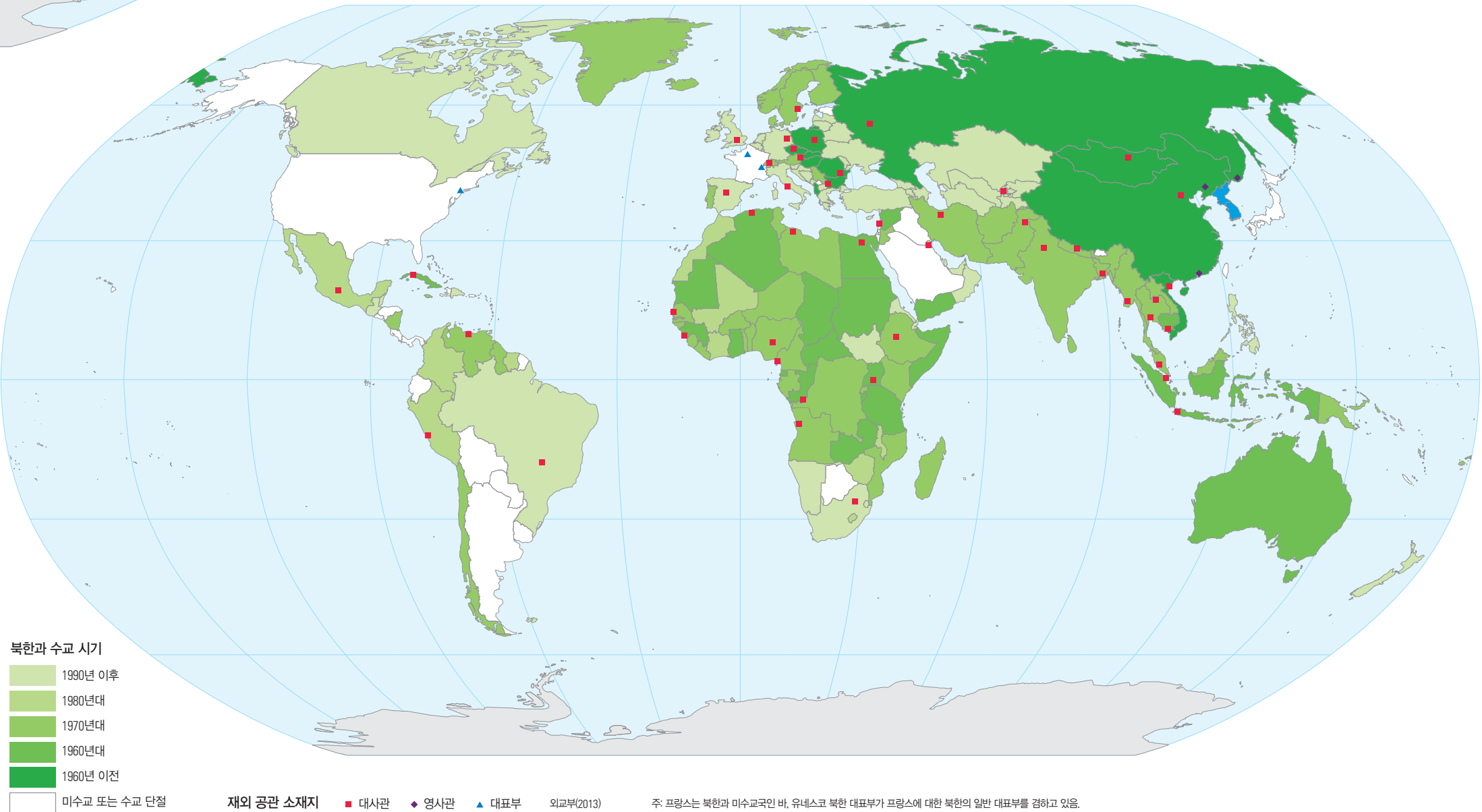


형태별 해외 이주 신고자 추이





북한 수교국과 재외 공관



지도는 재외 공관의 지리적 분포를 보여 준다. 재외 공관은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한 국가의 수도에 설치하는 대사관, 국제기구에 설치하는 대표부, 재외 국민 및 재외 동포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영사 보호 활동을 위해 설치하는 총영사관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남북한을 제외한 유엔 회원국 191개 중 188개국 및 유엔 비회원국 교황청, 쿽 제도와 수교하고 있다. 이들 수교국 190개 중 113개국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43개의 총영사관과 5개의 대표부를 두고 있다. 재외 공관은 상대적으로 아메리카와 아시아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이들 지역 국가와 특히 미국과 일본 및 중국과 밀접한 경제, 사회, 정치적 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가 많기 때문이다.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외환 위기 전까지 재외 공관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외환 위기 직후 정부의 구조 조정 여파로 22개 재외 공관이 폐쇄되어 그 수가 크게 줄었으나, 외교 업무 수요의 증가에 따라 외환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하였다. 이렇듯 재외 공관의 숫자는 외교 수요 및 국가 경제력의 영향을 받는다. 이 점은 북한의 재외 공관 분포와의 비교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북한은 46개의 상주 대사관, 3개 총영사관, 4개의 대표부를 유지하고 있어 그 수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큰 격차를 보인다.

또한 지도는 재외 동포의 유형별·국가별 분포를 보여 준다. 재외 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 국민과 거주국의 시민권을 가진 외국 국민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재외 국민은 다시 영주권자, 유학생, 일반 체류자로 분류된다. 이들에 대한 자료는 해외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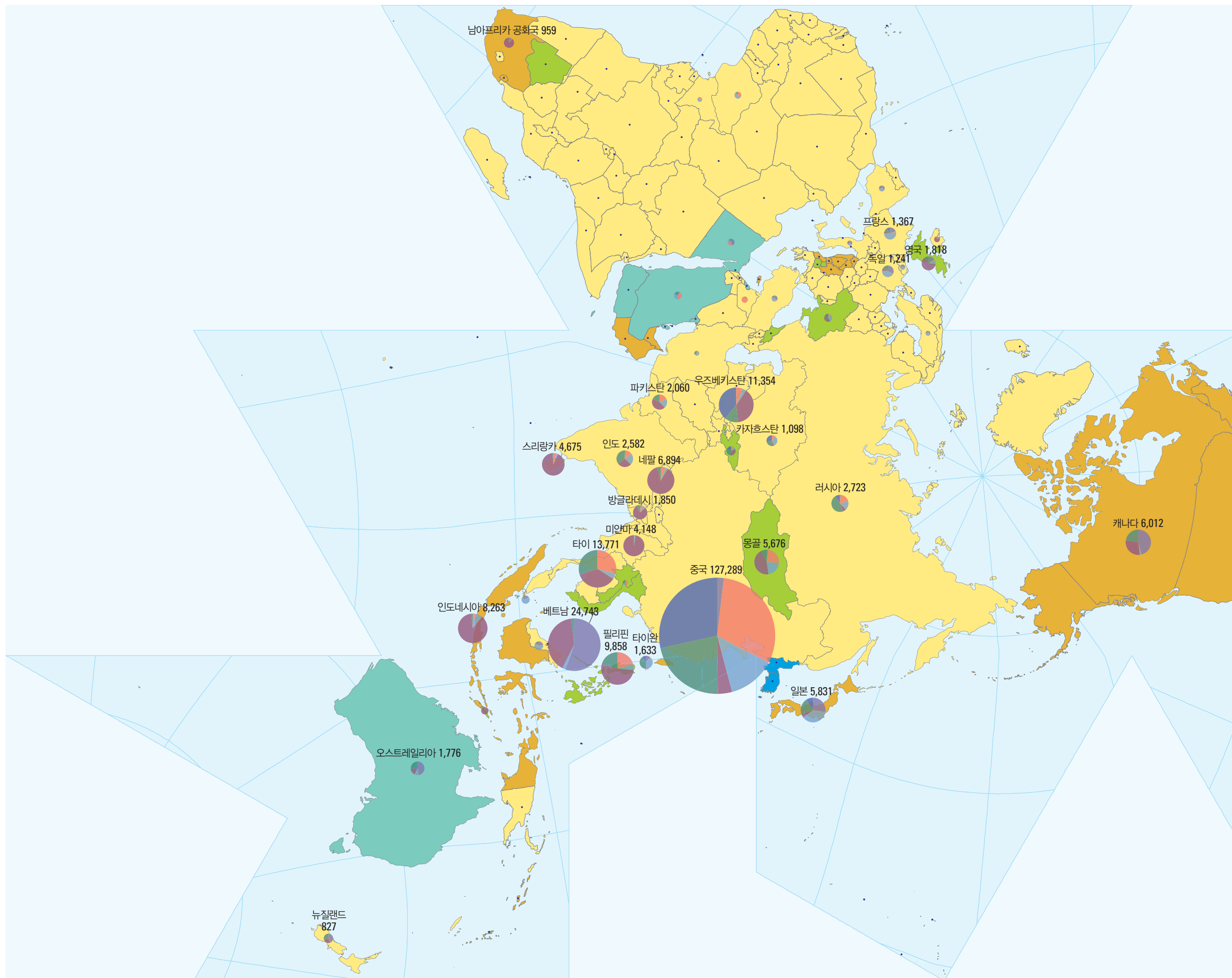
재외 공관에서 작성한 공관별 재외 동포 현황을 취합하고 정리한 것으로, 주재국의 인구 관련 통계 자료, 한인회 등 동포 단체 조사 자료, 재외 국민 등록부 등 공관 민원 처리 기록 직접 조사 등을 근거로 산출한 추산치이다. 이 자료는 재외 동포 지원, 보호에 관한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해외 여행 시 또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재외 동포 수는 1991년에서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중국과의 수교로 조선족이 통계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대체로 완만히 상승하여 2013년 현재 재외 동포 수는 약 7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재외 국민은 112만여 명의 영주권자, 119만여 명의 일반 체류자, 30만여 명의 유학생으로 구성되며, 외국 국민은 약 440만여 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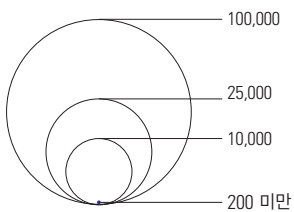
그래프는 수민국별 그리고 형태별 해외 이주 신고자의 시계열적 변화를 보여 준다. 가장 큰 특징은 해외 이주 신고자가 1984년 31,111명에서 2013년 302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1980년대만 하더라도 해외 이주 신고자의 대다수가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며, 라틴 아메리카로 이주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의 발전상이 대내외로 인식되면서 해외 이주가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라틴 아메리카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미국 이외에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다른 영어권 국가의 비중이 늘어났다. 해외 이주 신고자를 형태별로 보면 전통적으로 연고 이주(초청)가 가장 많고, 취업 이주, 사업 이주 순이었다.

출국과 입국

장기 체류 외국인의 출신 국가 및 무사증 출입 가능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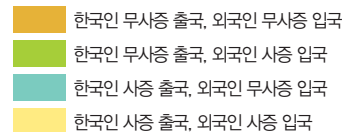
장기 체류 외국인 입국자 수(명)



장기 체류 외국인 입국자 비자 유형



무사증 출입국 현황 (2012년)



외교부(2012)

플러 도법

2012년도 한국인의 출국과 외국인의 입국 현황을 통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인적 교류를 민간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정부는 인적 교류가 용이하도록 세계 여러 국가 혹은 지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해 왔다. 몇몇 국가 혹은 지역은 외교·관용 여권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고 있고 체류 가능 기간 또한 상이하지만, 한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곳은 53개 국가 및 지역에 달한다(아시아 11개, 아메리카 8개, 유럽 16개, 오세아니아 11개, 아프리카·서남아시아 7개).

한편 한국은 외교·관용 여권을 요구하거나 체류 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지만 국외 차원에서 50개 국가 혹은 지역 출신 국민에게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것을 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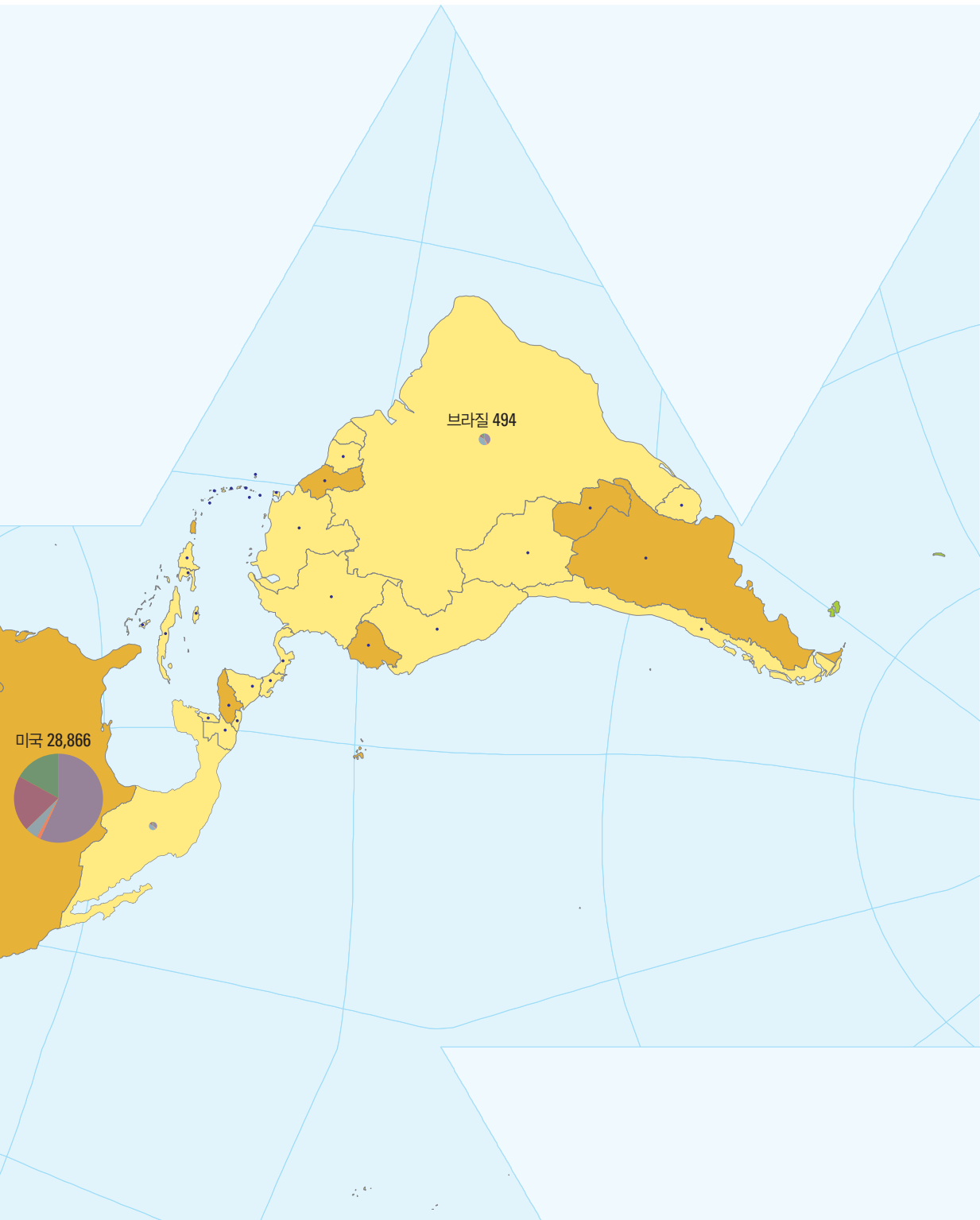
용하고 있다(아시아 6개, 아메리카 7개, 유럽 11개, 오세아니아 13개, 아프리카·서남아시아 13개). 또한 환승 관광 외국인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한국을 경유하여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등 5개국으로 가고자 하는 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사증과 연결 항공편이 확인되면 30일 간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 위 5개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본국으로 귀국 시에도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 특히 제주도 지역은 ‘제주도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 국민은 30일의 범위 내에서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제주 지역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는 가나, 나이지리아, 마케도니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코소보, 쿠바, 팔레스타인 11개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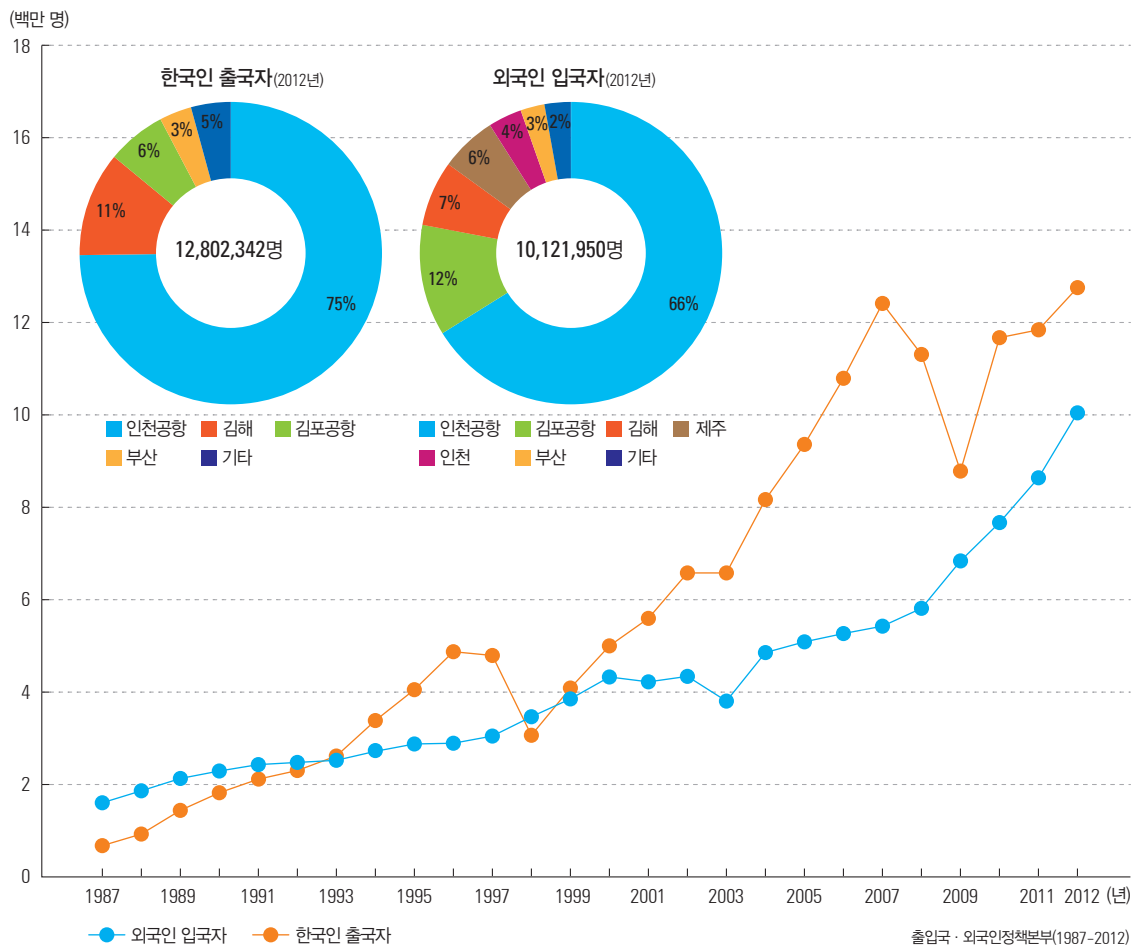
위 지도는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 입국자가 어느 나라에서 어떤 목적으로 들어 왔는지를 보여 준다. 체류 목적은 소지하고 있는 비자로 파악할 수 있는데, 8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A형(외교, 공무, 협정), B형(사증 면제, 관광), C형(일시 취재, 단기 방문, 단기 취업), D형(문화 예술, 유학, 기술 연수, 일반 연수, 취재, 종교, 주재, 기업 투자, 무역 경영, 구직), E형(교수, 회화 지도, 연구, 기술 지도, 전문 직업, 예술 흥행, 특정 활동, 비전문 취업, 선원 취업), F형(방문 동거, 거주, 동반, 재외 동포, 영주, 결혼 이민), G형(기타), H형(관광 취업, 방문 취업)이 그것이다.

오른쪽 지도에서 선들은 2012년도에 한국에 입국한 외

국인의 수를 그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국적별로 표시한 것이다. 입국자 수는 일본, 중국, 미국, 타이완, 타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영국, 러시아 순으로 많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국적 외국인 입국자는 각각 300만 명이 넘는다. 다음으로 많은 미국 국적 입국자는 약 73만 명에 불과하여 큰 격차를 보인다. 이는 지리적 인접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타이완 약 57만 명, 타이 약 33만 명이며, 나머지 국가는 10만 명대 수준이다.



한국인 출국자 및 외국인 입국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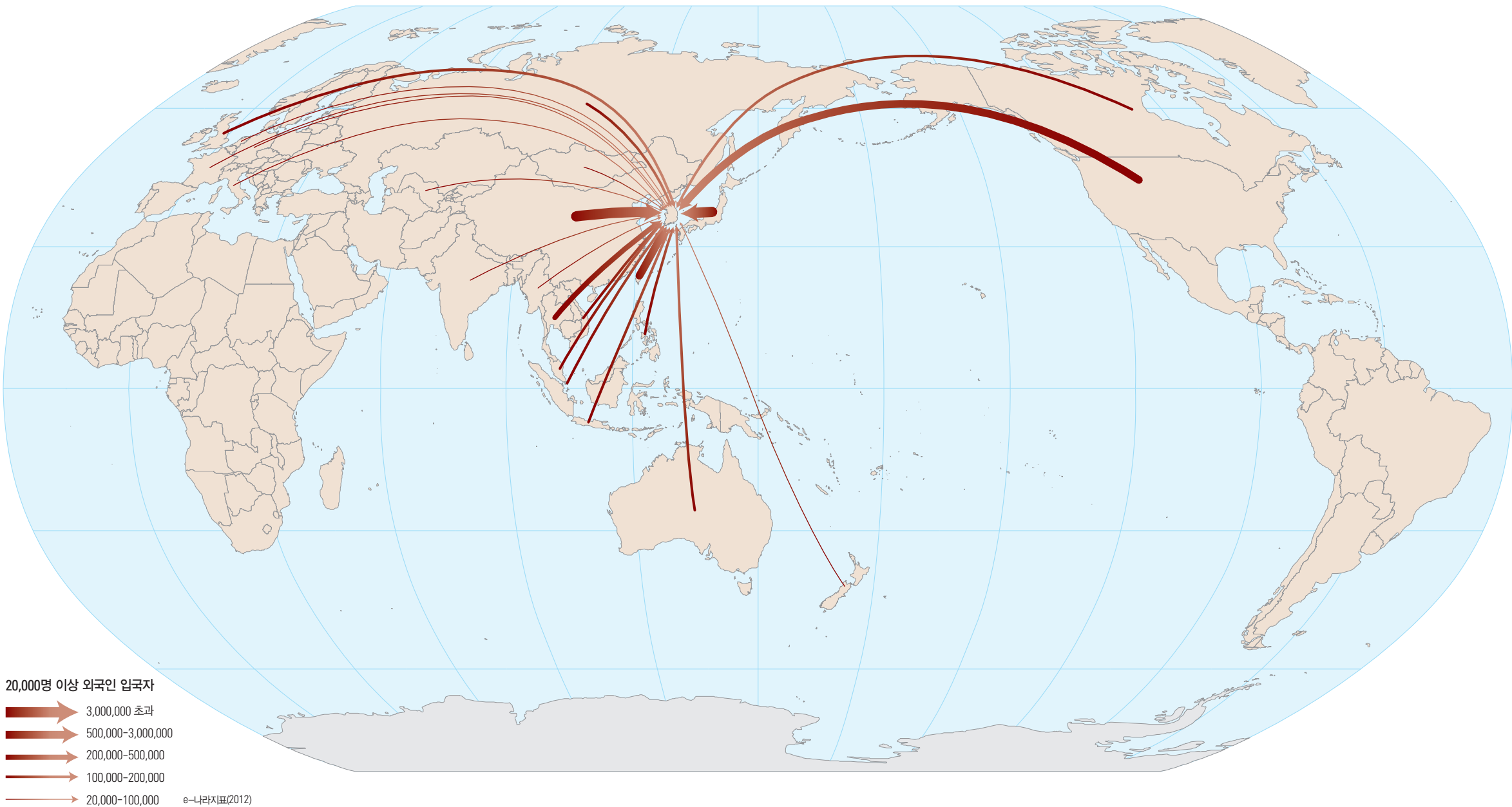


위 그래프는 외국인 입국자와 한국인 출국자 수의 추이를 보여 준다. 외국인 입국자와 한국인 출국자 수는 1960년까지만 해도 각각 만 명을 넘지 못했다. 외국인 입국자는 1970년에 10만 명을 그리고 1983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2005년에는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2년 현재 1,000만 명 이상이다. 반면 한국인 출국자는 1973년에 10만 명을, 1988년에 100만 명을, 2000년에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2년 현재 약 1,280만 명이다. 전통적으로 외국인 입국자 수가 한국인 출국자보다 많았었다. 1988년 이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입국자는 한국인 출국자보다 2배 가량 많았다. 하지만 1989년에 국

민 해외 여행이 전면 자유화되면서 한국인 출국자 수는 외국인 입국자를 앞질렀으며 경기 불황으로 주춤하기도 했지만 꾸준히 증가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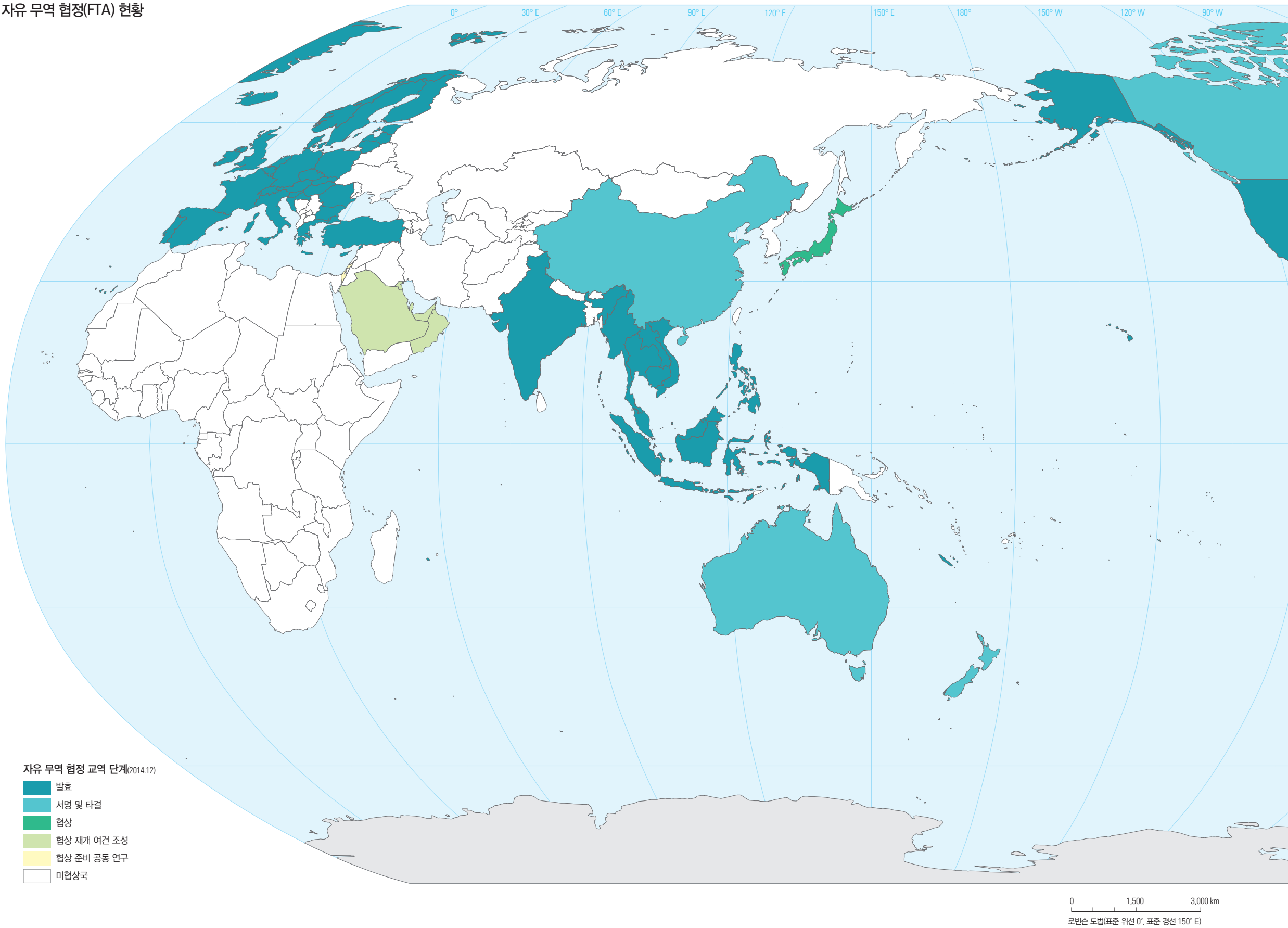
한국인 출국과 외국인 입국을 출입국지별로 살펴보면 2012년 현재 한국인 출국자 상당수가 인천공항(75%)을 통해 해외로 나가며 다음으로 김해(11%), 김포공항(6%), 부산(3%)을 이용한다. 외국인 입국자 또한 다수가 인천공항(66%), 김포공항(12%), 인천(4%) 등 수도권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며 김해(7%), 제주(6%), 부산(3%)을 이용하기도 한다.

외국인 입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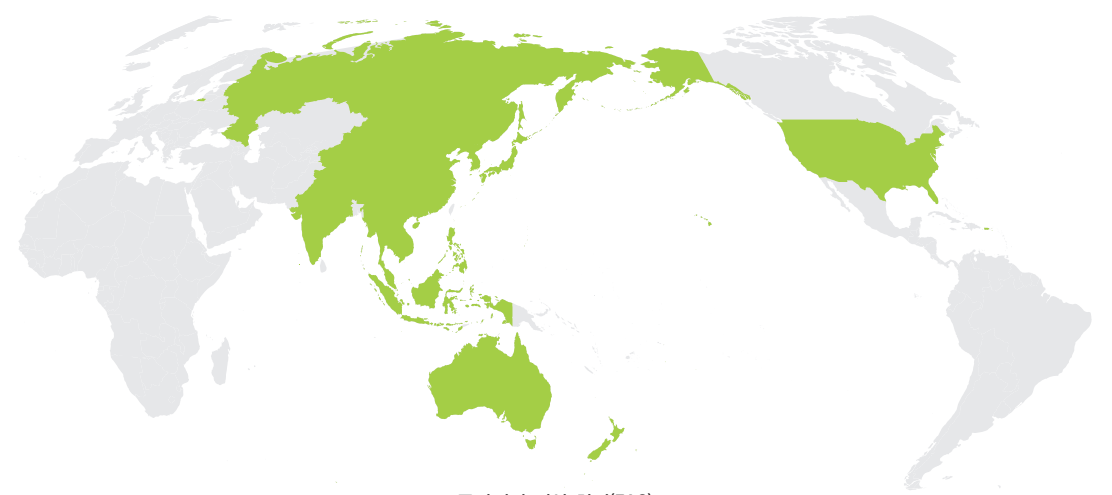


자유 무역 협정(FTA) 및 지역 협력체

자유 무역 협정(FTA) 현황



지역 협력체 가입 현황





경제 통합 단계별 자유 무역 협정 현황



주: 한 국가와 복수의 양자 혹은 지역적 자유 무역 협정이 진행된 경우 해당 국가를 중복하여 계산하였다.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과 세계 무역 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 무역 체제를 바탕으로 전개되던 한국의 대외 통상 정책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 다자주의와 더불어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정 체결 이후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양자 또는 지역적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1998년 11월 첫 자유 무역 협정 대상 국가로 칠레를 선정하였고, 5년 간의 힘겨운 협상 끝에 2003년 2월에 칠레와 한국 최초의 자유 무역 협정을 맺었다. 이후 동남아시아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싱가포르와 유럽의 거점인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과 각각 2005년 8월과 11월에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고, 현재 발효된 상태이다. 이외에도 2014년 5월 현재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발효된 국가는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0개국, 인도, 유럽 연합(EU) 28개국, 페루, 미국,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등이다.

아직 발효되지 않았지만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콜롬비아,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이다. 또한 자유 무역 협정을 협상 중인 국가는 인도네시아, 한국·중국·일본,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소속 16개국 등이다. 자유 무역 협정 협상을 재개할 여건을 조성 중인 국가는 일본, 멕시코, 걸프 협력 이사회(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소속 6

개국이다. 끝으로 협상을 준비하며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는 남미 공동 시장(Mercosur) 소속 4개국, 이스라엘, 중미 6개국, 말레이시아이다.

이렇듯 대한민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세계적인 지역 블록화의 확산에 대응하고 대내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문제 등으로 성장률의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 기존의 다자적 무역 체제를 보완할 양자 또는 지역적 자유 무역 협정 체결을 추진하였다. 주요 경제 권역 내 거점 국가를 선정하여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중심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걸프 협력 이사회 등 차세대 거대 경제권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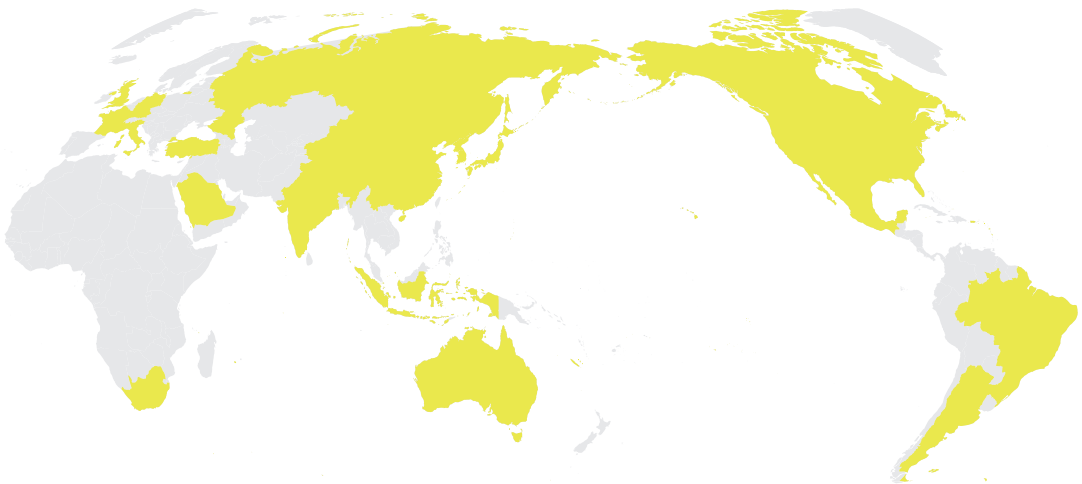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동아시아·라틴 아메리카 협력 포럼(FEALAC), 아시아 협력 대화(ACD),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ARF), 아시아·유럽 정상 회의(ASEM), 동아시아 정상 회의(EAS), G20 정상 회의·재무장관 회의,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UN ESCAP) 등 다양한 지역 협력체의 일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1989년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에서 우리나라는 창설 멤버로 참여하여 협력체의 제도적 틀 마련과 새로운 회원국 충원에 큰 기여를 했다. 또한 탈냉전 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에 맞추어 아·태 지역 내 안정적 질서를 구축하고, 환경·테러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에 따라 1994년 설립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ARF)에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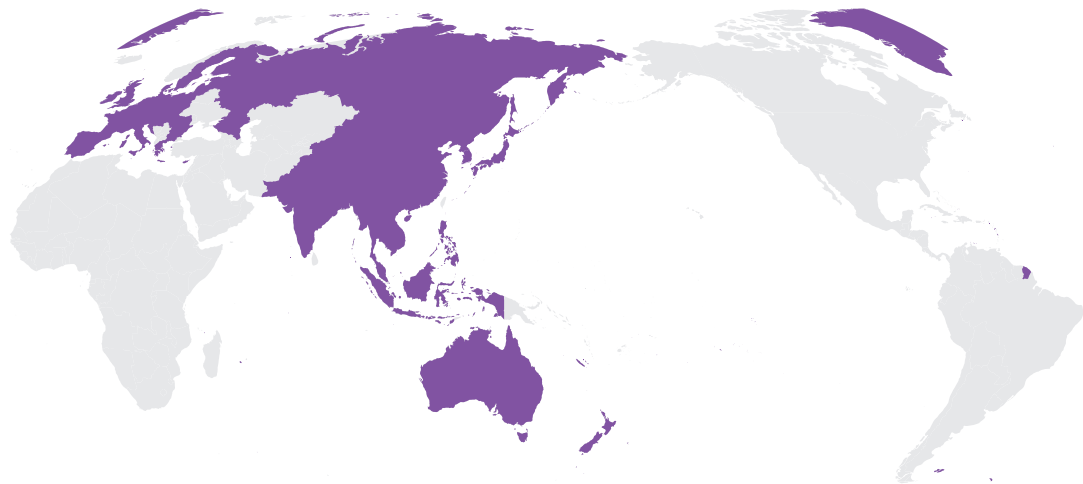
또한 세계 경제의 3대 축인 아시아, 북미, 유럽 중 상대적으로 연계성이 미약했던 아시아·유럽 간 관계 강화를 위해 1996년 공식화된 아시아·유럽 정상 회의(ASEM)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 양 지역 간 경제 협력 확대 외에도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정치·안보 대화 증진, 사회·문화 등 여타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 등 양 지역 간 포괄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와 중남미 양 지역 간 협력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1999년에 설립된 동아시아·라틴 아메리카 협력 포럼(FEALAC)의 일원이기도 하다.

아세안 국가와 한국, 중국, 일본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2005년 설립된 동아시아 정상 회의(EAS)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서를 포괄하는 아시아 전체 협력 달성을 위해 설립된 아시아 협력 대화(ACD)의 일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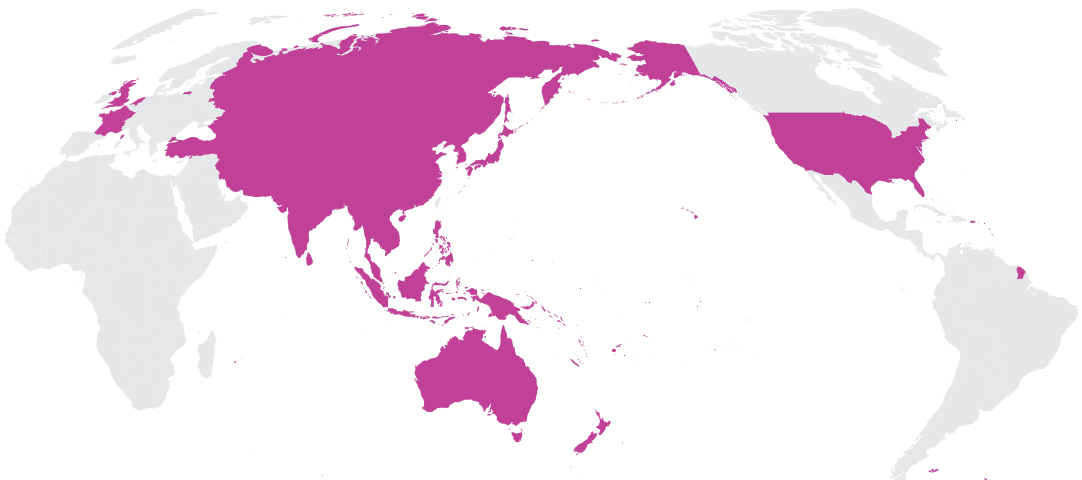
미국발 금융 위기의 전 세계 확산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새로운 국제 금융·통화 질서(이른바 ‘Bretton Woods II’ 체제) 수립을 위해서 G7, 오스트레일리아 등 주요 국가를 포함한 G20 정상 회의·재무장관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설립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UN ESCAP)의 일원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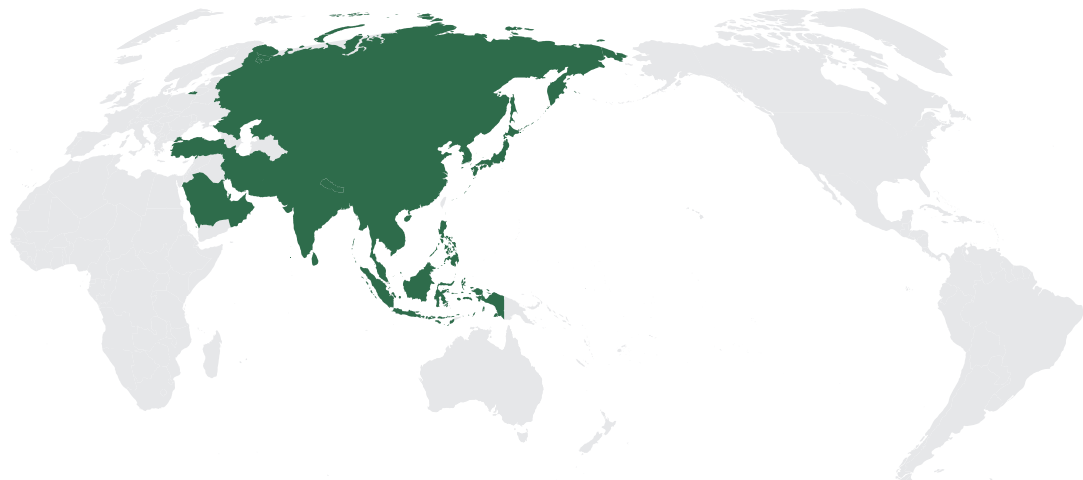
G20 정상 회의·재무장관 회의



아시아·유럽 정상 회의(ASEM)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UN ESCAP)



아시아 협력 대화(A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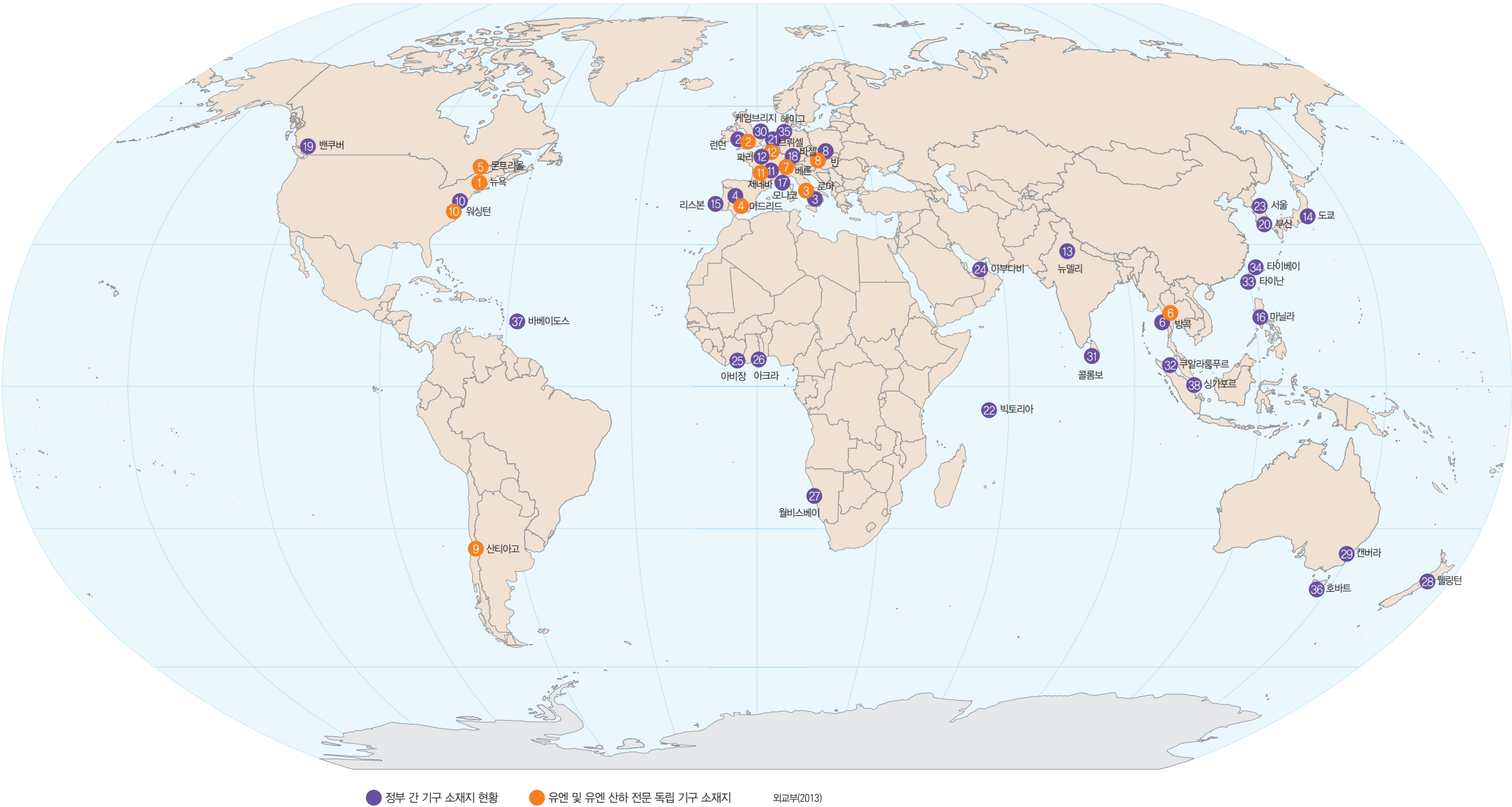
외교부(2013)

국제기구

유엔 및 유엔 산하 전문 독립 기구 가입 현황

번호	소재 도시	기구명	한국 가입 연도	번호	소재 도시	기구명	한국 가입 연도	번호	소재 도시	기구명	한국 가입 연도	번호	소재 도시	기구명	한국 가입 연도
1	뉴욕	국제 연합(UN)	1991	7	베른	만국 우편 연합(UPU)	1949	10	워싱턴	국제 금융 공사(IFC)	1964	11	제네바	국제 노동 기구(ILO)	1991
2	런던	국제 해사 기구(IMO)	1962	8	빈	유엔 공업 개발 기구(UNIDO)	1967			국제 투자 보증 기구(MIGA)	1988			세계 무역 기구(WTO)	1995
3	로마	유엔 식량 농업 기구(FAO)	1949			9	산티아고			국제 원자력 기구(IAEA)	1957			국제 투자 분쟁 해결 본부(ICSID)	1967
		국제 농업 개발 기구(IFAD)	1978	유엔 중남미 카리브 경제 위원회(ECLAC)	2007			11	제네바	세계 보건 기구(WHO)	1949			유엔 무역 개발 회의(UNCTAD)	1965
4	마드리드	세계 관광 기구(UNWTO)	1975	10	워싱턴	국제 통화 기금(IMF)	1955			국제 전기 통신 연합(ITU)	1952	12	파리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UNESCO)	1950
5	몬트리올	국제 민간 항공 기구(CAO)	1952			국제 부흥 개발 은행(BRD)	1955			세계 기상 기구(WMO)	1956				
6	방콕	유엔 아태 경제 사회 위원회(ESCAP)	1954			국제 개발 협회(IDA)	1961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	1979	외교부(2013)			

유엔 및 유엔 산하 전문 독립 기구와 정부 간 기구 가입 현황



정부 간 기구 가입 현황

번호	소재 도시	기구명	한국 가입 연도	번호	소재 도시	기구명	한국 가입 연도	번호	소재 도시	기구명	한국 가입 연도	번호	소재 도시	기구명	한국 가입 연도
2	런던	유럽 부흥 개발 은행(EBRD)	1990	11	제네바	국제 교육국(IBE)	1962	17	모나코	국제 수로 기구(IHO)	1957	27	월비스베이	남동 대서양 수산 기구(SEAFO)	2011
		국제 이송 위생 기구(IMSO)	1985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IEC)	1963	18	바젤	국제 결제 은행(BIS)	1997	28	웰링턴	남태평양 지역 수산 관리 기구(SPRFM0)	2012
		국제 유류 오염 보상 기금(OPC Funds)	1998			상품 공동 기금(CFC)	1982			금융 안전 위원회(FSB)	2009	29	캔버라	동남아 · 뉴질랜드 · 호주 중앙 은행 기구(SEANZA)	1966
3	로마	FAO/WHO 국제 식품 규격 위원회(CAC)	1970			섬유 수출 개도국 기구(ITCB)	1984	19	밴쿠버	바젤 은행 감독 위원회(BCBS)	2009			남방 참다랑어 보존 위원회(CCSBT)	2001
		국제 문화재 보존 복구 연구 센터(ICCROM)	1968	12	파리	정부 간 해양학 위원회(IOC)	1961			중부 베링 해 명태 자원 보존 협약(CBSPC)	1995	30	케임브리지	국제 포경 위원회(IWC)	1978
4	마드리드	대서양 참치 보존 위원회(CCAT)	1970			국제 법적 계량 기구(OIML)	1978	20	부산	북태평양 소하성 어류 위원회(NPAFC)	2003	31	콜롬보	국제 조경 위원회(WC)	1978
6	방콕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식물 보호 위원회(APPPC)	1981			국제 도랑형국(IBWM)	1959	21	브뤼셀	유엔 기념 공원(UNMCK)	1959	32	쿠알라룸푸르	콜롬보 플랜(Colombo Plan)	1962
		아시아 · 태평양 전기 통신 협의회(APT)	1979	13	뉴델리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1996	22	빅토리아	세계 관세 기구(WCO)	1968			동남아 중앙 은행 기구(SEACEN)	1990
		아시아 · 태평양 수산 위원회(APFIC)	1950			아시아 · 아프리카 법률 자문 기구(AALCO)	1974	23	서울	인도양 참치 위원회(IOTC)	1996	33	타이난	아시아 채소 연구 개발 센터(AVRDC)	1971
8	빈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CTBT0)	1996	14	도쿄	아프리카 · 아시아 농촌 개발 기구(AARDO)	1963	24	아부다비	국제 백신 연구소(IVI)	1997	34	타이베이	아태 식량 비료 기술 센터(FFTC)	1970
10	워싱턴	자구 환경 금융(GEF)	1994			아시아 생산성 기구(APO)	1961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GGGI)	2012	35	헤이그	화학 무기 금지 기구(OPCW)	1997
		국제 연화 자원 위원회(CAC)	1954	15	리스본	국제 남 · 아연 연구 그룹(ILZSG)	1987	25	아비장	국제 재생 에너지 기구(IRENA)	2011	36	호버트	남극 해양 생물 자원 보존 위원회(CCAMLR)	1985
		국제 전기 통신 위생 기구(INTELSAT)	1967	16	마닐라	아시아 개발 은행(ADB)	1966			아프리카 개발 기금(AfDF)	1980	37	바베이도스	중서 대서양 수산 위원회(WECAFC)	1974
11	제네바	국제 무역 센터(ITC)	1964			아시아 · 태평양 우편 연합(APPU)	1961	26	아크라	아프리카 개발 은행(AfDB)	1982	38	싱가포르	아시아 ·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1989
		국제 의회 연맹(PIU)	1964			동부 지역 공공 행정 기구(EROPA)	1962			중동 대서양 수산 위원회(CECAF)	1968				

외교부(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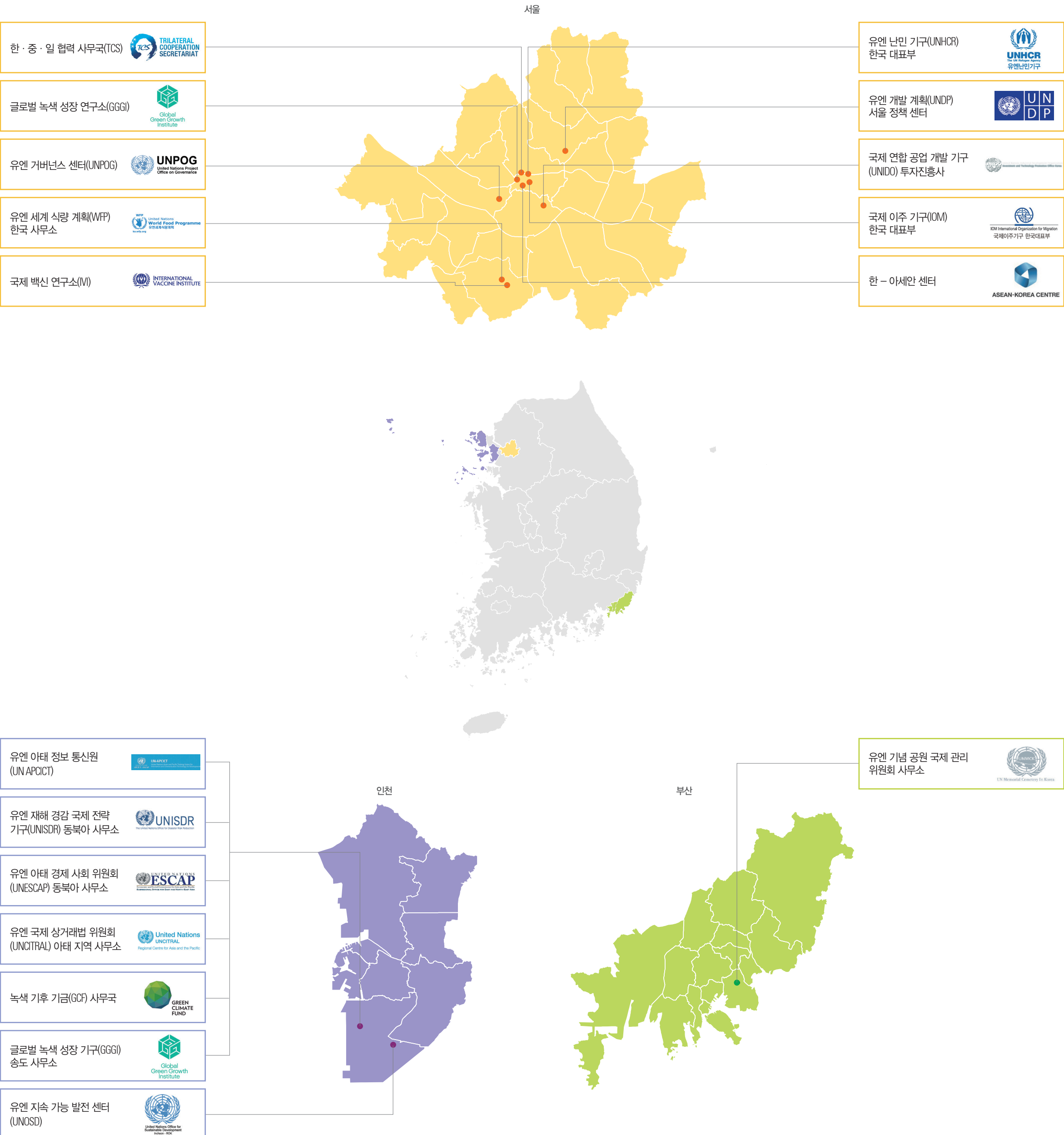
유엔(UN)은 1948년 정부 수립 당시부터 우리나라 외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다. 우리나라는 1949년 유엔 식량 농업 기구(FAO), 만국 우편 연합(UPU), 세계 보건 기구(WHO)에 가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여타 유엔 산하 전문 독립 기구에 가입해 왔다. 지도처

럼 현재 우리나라는 총 26개 유엔 산하 전문 독립 기구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1991년에는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국제 평화, 인권, 개발, 환경 등 범지구적 문제들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 가입 이후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제56차 유엔 총회의장을 수입한 데 이어 2007년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제8대 유엔 사무총장(2011년 연임)으로 취임하여 국제 무대에서 위상이 높아졌다.

또한 2013년 12월 기준 82개에 달하는 정부 간 기구에 가입하여 경제 협력, 자원 개발, 국제 개발 협력, 질병 관리, 환경 보호 등을 위한 다자 외교에도 힘쓰고 있다.

국제기구 유치 현황



사람, 물자, 정보 등의 국경 간 이동이 점차 늘어나면서 여러 국가들이 힘과 지혜를 모을 필요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협력의 장이 국제기구이고, 우리나라 정부는 이를 유치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제기구 관련 업무는 각종 국제 회의의 등 국제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고도의 서비스업이라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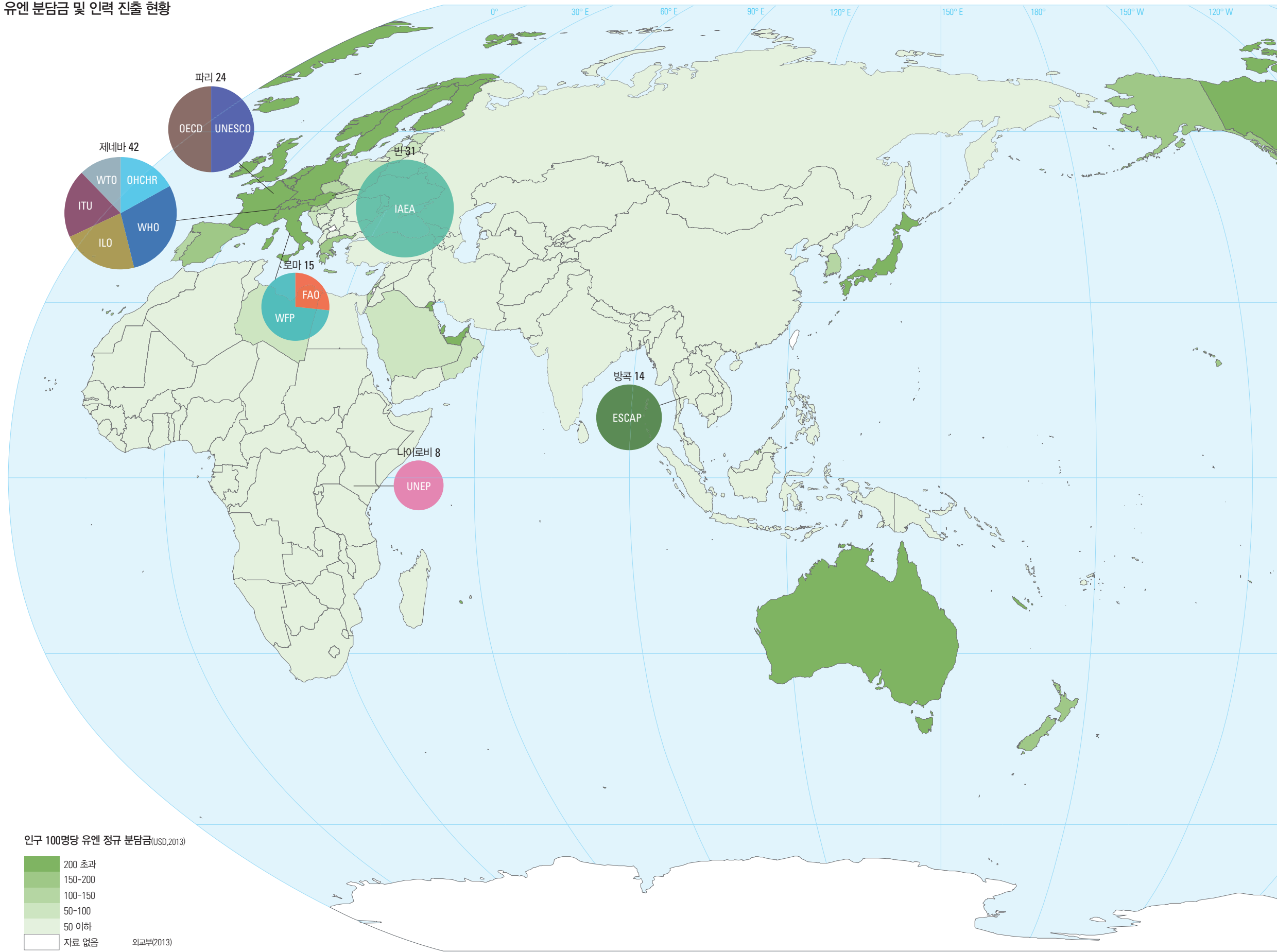
는 부수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시 4개, 인천시 1개, 부산시 1개 등 총 6개의 국제기구 본부 및 사무국을, 이외 약 20여개의 국제기구 관련 기관을 유치하였다. 서울이 유치한 국제기구는 국제 백신 연구소, 한-아세안 센터, 한·중·일 협력 사무국,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GGGI) 등이다. 반면 부산과 인천은 각각 재한 유

엔 기념 공원과 녹색 기후 기금 사무국을 유치하였다. 이중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첫 번째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개발 도상국의 저탄소 녹색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설립되었으며, 2012년에 유엔 지속 가능 발전 정상 회의(Rio+20)를 계기로 국제기구로 전환되었다.

국제 백신 연구소(IVI)는 개발 도상국 어린이들에게 빈발하는 질병 퇴치를 위한 효과적이면서도 저렴한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유엔 개발 계획(UNDP)의 결정하에 설립되었으며, 1997년 서울에서 비영리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하였다.

유엔 관련 활동

유엔 분담금 및 인력 진출 현황



우리나라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정규 예산(UN Regular Budget)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유엔 정규 예산 분담금은 2년 단위로 편성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책정되는데, 이는 회원국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충당된다. 개별 회원국의 분담률은 매 3년마다 18개국으로 구성된 분담금위원회의 권고를 거쳐 총회 제5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분담률은 기본적으로 각국의 국민 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에 비례하는데 외채 부담이 큰 경우 연간 국민 소득을 외채 상환액만큼 축소 조정하기도 한다. 또한 각국의 분담률은 22%를 넘지 않고

0.001%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상한과 하한을 두고 있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 분담률은 1.99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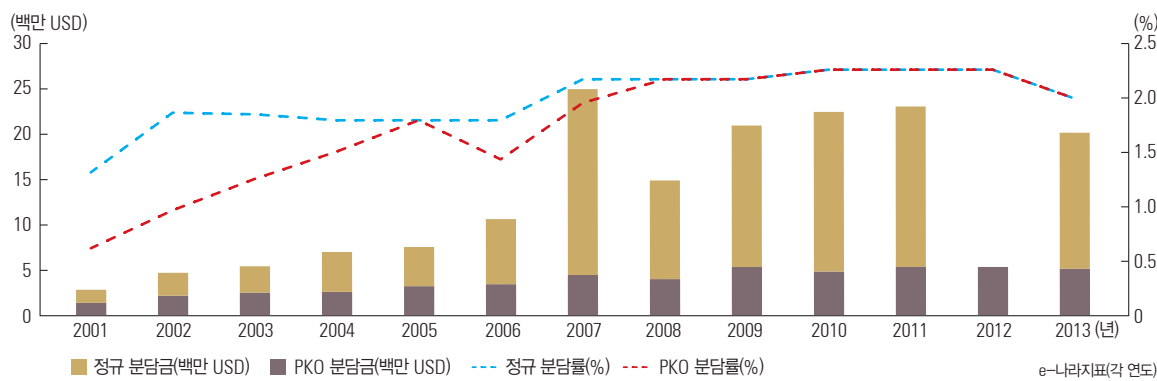
지도는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본부가 소재한 도시별로 나타낸 것이다. 수백 명의 우리 국민이 뉴욕, 파리, 제네바 등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엔 본부, 국제 원자력 기구(IAEA),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세계 보건 기구(WHO)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다. 표는 국제기구에서 고위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국민 현황을 유엔 체제 기구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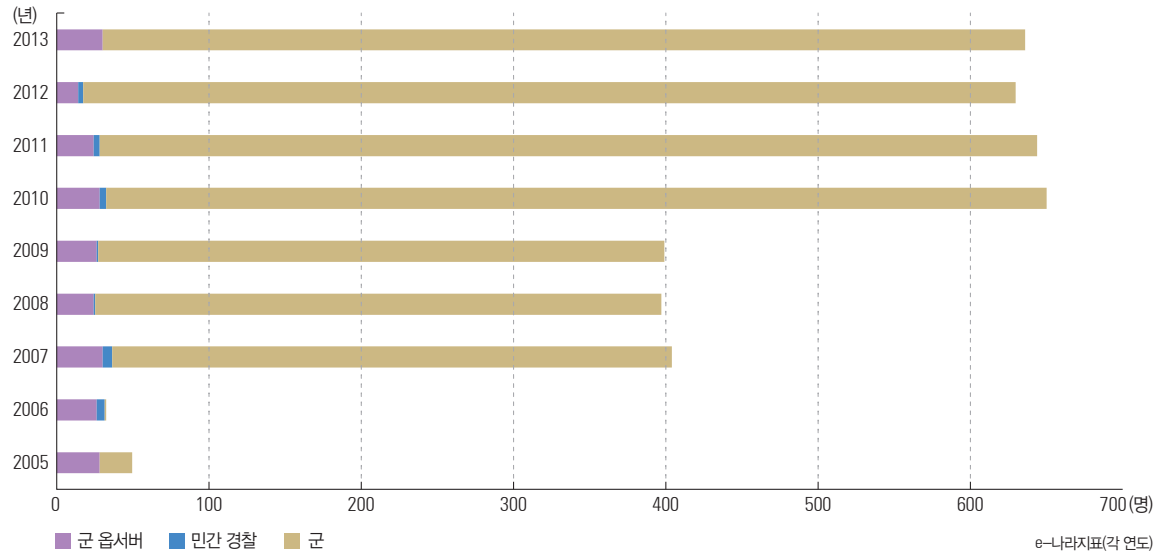
따른 인권 침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유엔 평화 유지 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s)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2014년 11월 기준 8개 유엔 평화 유지 활동 임무단에 총 635명을 파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레바논(UNIFIL) 320명, 남수단(UNMISS) 296명, 인도·파키스탄(UNMOGIP) 7명, 서사하라(MINURSO)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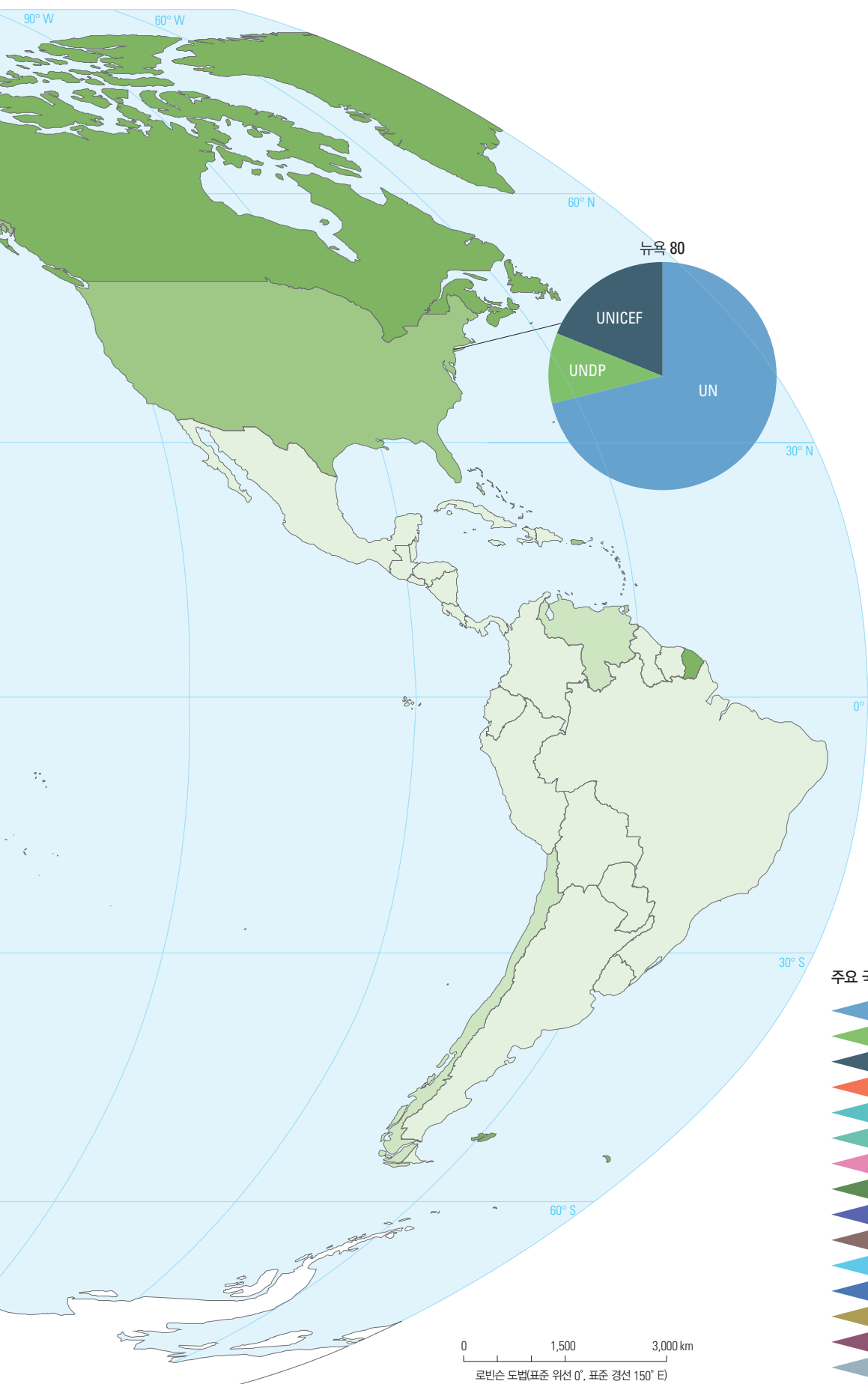
명, 라이베리아(UNMIL) 2명, 수단 다푸르(UNAMID) 2명, 코트디부아르(UNOCI) 2명, 아이티(MINUSTAH) 2명을 각각 파견하여 평화 정착, 정전 감시, 재건 지원, 평화 협정 이행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PKO 예산 부담률은 1.994%로 유엔 회원국 중 12위 수준이다.

한국의 유엔 분담금 액수 추이



PKO 파견 인력 추이





주요 국제기구 사무국 진출 한국인(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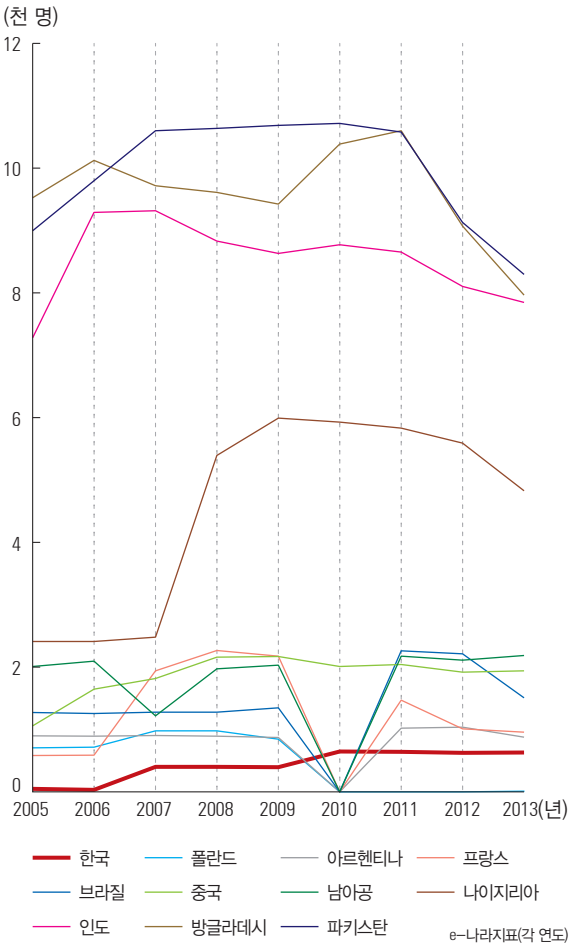
- ▶ 유엔 본부(UN)
- ▶ 유엔 개발 계획(UNDP)
- ▶ 유엔 아동 기금(UNICEF)
- ▶ 유엔 식량 농업 기구(FAO)
- ▶ 세계 식량 계획(WFP)
- ▶ 국제 원자력 기구(IAEA)
- ▶ 유엔 환경 계획(UNEP)
- ▶ 아태 경제 사회 이사회(ESCAP)
- ▶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UNESCO)
- ▶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 ▶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OHCHR)
- ▶ 세계 보건 기구(WHO)
- ▶ 국제 노동 기구(ILO)
- ▶ 국제 전기 통신 연합(ITU)
- ▶ 세계 무역 기구(WTO)

주요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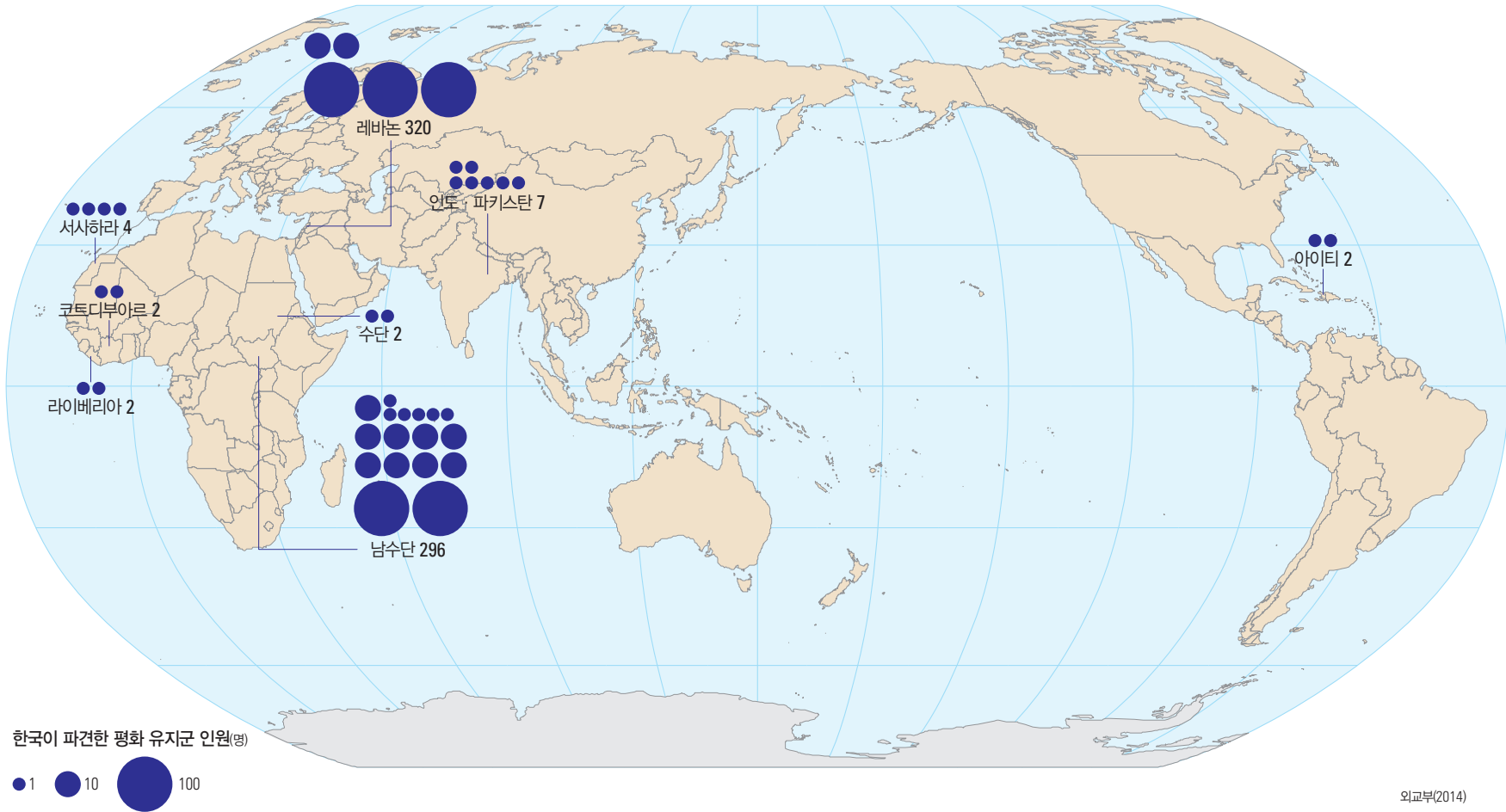
분류	기구명	진출직
유엔 사무국	유엔 본부	사무총장, 사무차장보, 국장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ESCAP) 아태 정보 통신 기술 센터(APCICT)	원장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ESCAP) 교통국	국장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ESCAP) 환경 개발국	국장
	유엔 인도 자원 조정실(OCHA)	사무차장보, 국장
유엔 직속 기구	유엔 국제법 위원회(ILC)	위원
유엔 산하 기구	유엔 환경 계획(UNEP) 아태 지역 사무소	사무소장
	국제 형사 재판소(ICC)	재판관겸 소장
	유고 국제 전범 재판소(ICTY)	부소장
	국제 해양법 재판소(ITLOS)	사무차장, 재판관
	유엔 산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위원회(CESCR)	위원
	대륙붕 한계 위원회(CLCS)	위원
유엔 전문 기구	유엔 식량 농업 기구(FAO) 남남 협력 · 재원 동원국	국장
	유엔 식량 농업 기구(FAO) 베트남 국가 사무소	사무소장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UNESCO) 아태 지역 사무소	사무소장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UNESCO) 평화 및 지속 가능 발전 교육국	국장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 항행 위원회	위원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 국제 상표 진흥국	국장
	세계 보건 기구(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소	사무처장
	국제 농업 개발 기금(IFAD) 아시아 태평양국	국장
	국제 해사 기구(IMO) 예산부국	국장
	국제 해사 기구(IMO) 내부 감사 및 윤리실	국장
	세계 기상 기구(WMO) 아시아 남서 태평양 지역 사무국	국장
	세계 기상 기구(WMO)	집행이사
	세계 기상 기구(WMO) 농업 기상 위원회	의장
	국제 전기 통신 연합(ITU) 아태 지역 사무소	사무소장
유엔 독립 기구	국제 원자력 기구(IAEA) 방사성 수송 폐기물 안전국	국장
유엔 감시단	유엔 인도 파키스탄 정전 감시단(UNMOGIP)	단장
유엔 위원회	유엔 인권 이사회(HRC) 자문 위원회	위원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CRPD)	위원
기타 기구	유엔 중앙 긴급 대응 기금(CERF)	자문위원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전범 재판소(ECCC)	재판관
	사법 통일 국제 연구소(UNIDROIT)	집행이사
	WTO 상소 기구(Appellate Body)	위원
	국제 해저 기구(ISA) 법률 기술 위원회	위원
	국제 수로 기구(IHO) 산하 해양법 자문 위원회(ABLOS)	위원

외교부(2014)

주요 국가별 PKO 파견 인력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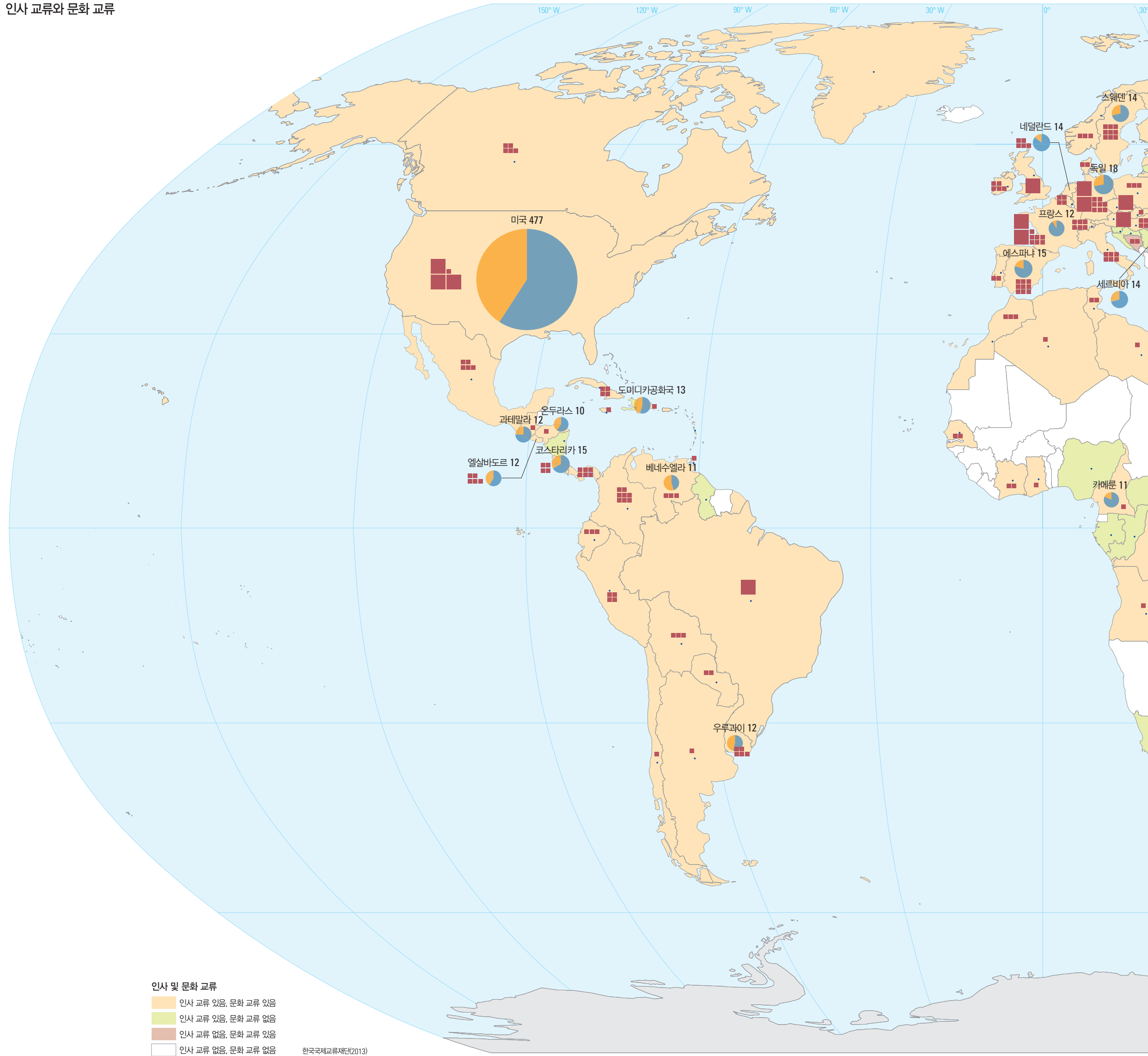
유엔 평화 유지군 파견 현황



외교부(2014)

국제 교류

인사 교류와 문화 교류



정부는 다양한 국제 교류 활동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고자 1991년 한국 국제 교류 재단(Korea Foundation)을 외교부 산하 공공 외교 기관으로 설립하였다.

재단은 해외 대학의 한국 관련 강좌 운영 및 학술 활동 지원을 통해 한국학의 장기적 발전과 지한(知韓) 인사 육성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한국학 기반 확대’ 사업과 해외 한국 연구자와 학생에게 각종 펠로십과 장학금을 제공하는 ‘한국 전문가 육성’ 사업 그리고 국내외의 다양한 방면의 인사를 초청하여 상호 교류를 확대하는 ‘인사 교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국가 정책 연구소의 한국 관련 연구 및 활동 지원, 국내외 포럼, 국제회의 개최, 민간 외교 단체의 교류 활동 지원 등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개인,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국제 협력 네트워크’ 사업과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각종 공연 및 전시 사업과 해외 유수 박물관에 한국실 설치를 지원하는 ‘문화 교류’ 사업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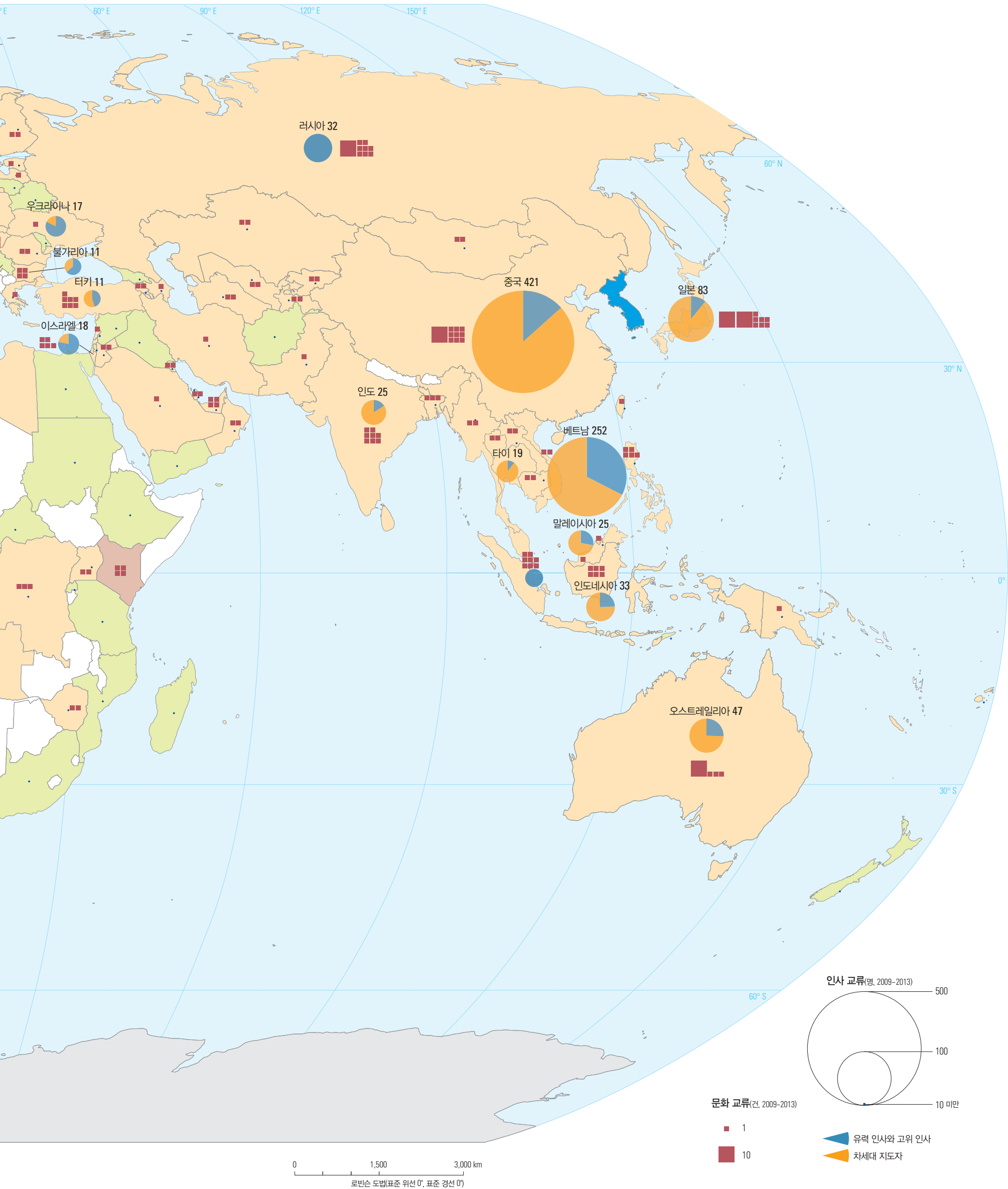
또한 ‘미디어’ 사업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예술을 폭넓게 다루는 문화 예술 전문 계간지인 ‘Koreana’를 9개 언어로 발간하며, 해외 대학, 도서관 및 연구 기관 등에 한국 관련 도서 및 시청각 자료를 지원하

고 있다. ‘지정 기부 사업’을 통해서도 국내 및 해외 기관의 한국 관련 활동 및 사업을 민간 기부금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는 앞서 언급한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규모 추이를 보여 주며, 연간 총 사업비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약 400억 원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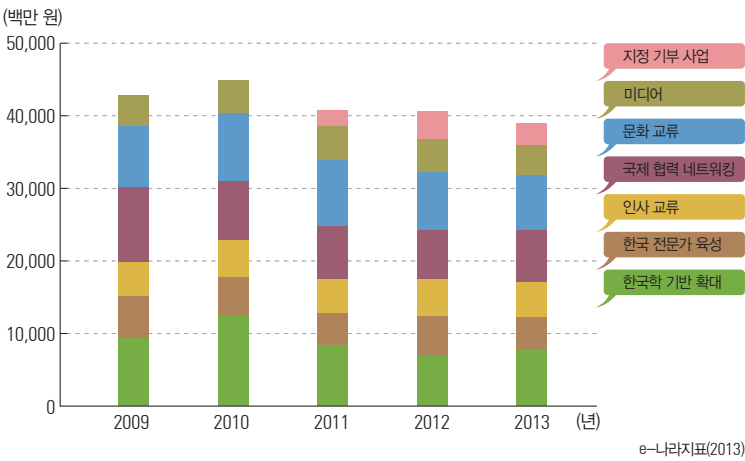
위 지도는 ‘인사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해외 유력·고위 인사 초청’ 사업과 ‘차세대 지도자 교류’ 사업 실적을 보여 준다. 전자는 해외 다양한 분야의 유력 인사 및 전문가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국내 유관 기관 방문 및 강연회 등을 통해 서로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우호 증진과 유대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며, 후자는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미래의 주역이 될 세계 각국의 젊은 지도자들과 인적 교류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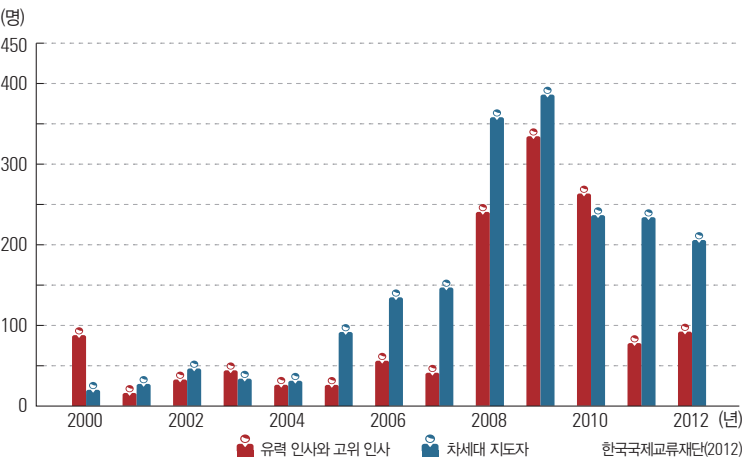
또한 지도는 ‘문화 교류’ 사업의 주요 세부 사업인 전시와 공연 실적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우리나라가 가진 문화 예술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문화 국가로서의 한국 이미지를 높이고 나아가 한국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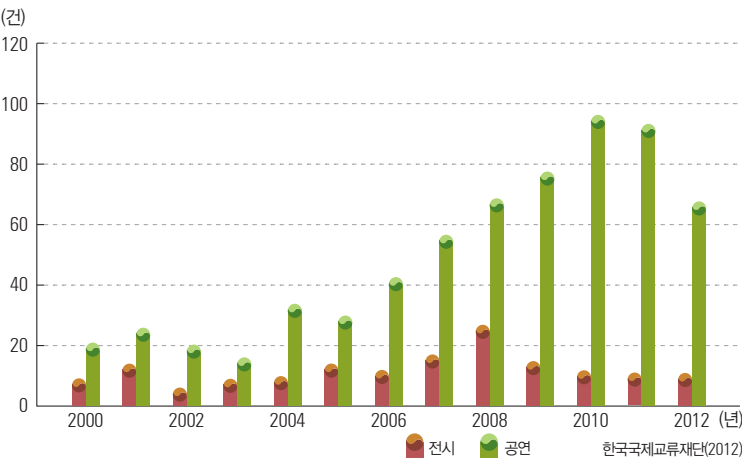
국제 교류 사업 현황(사업 분야별 지출액)



인사 교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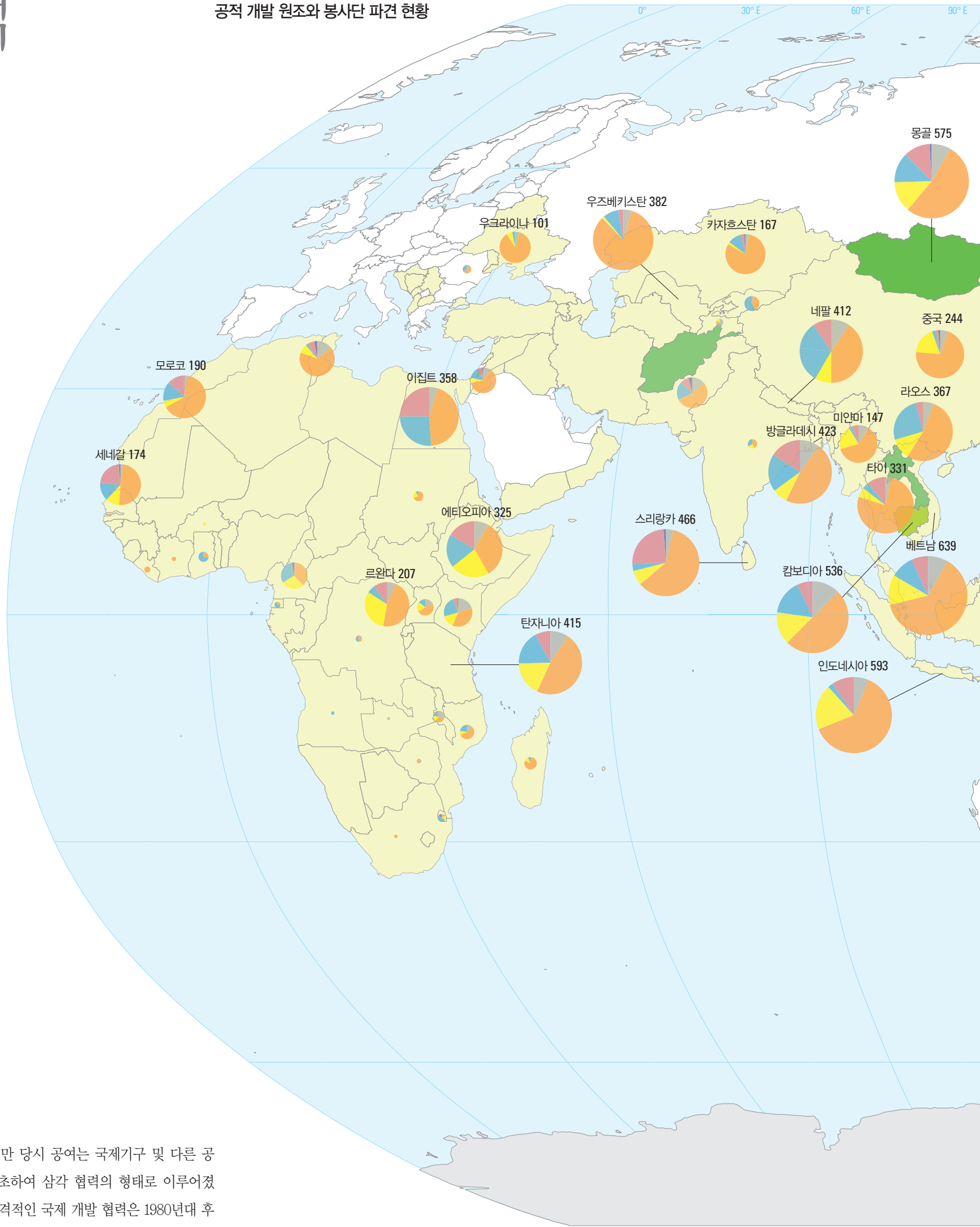
문화 교류 추이



국제 개발 협력

공적 개발 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 개발 원조와 봉사단 파견 현황



우리나라는 20세기 전반부에 식민 지배와 전쟁으로 세계 정치 경제에서 주변부에 머물렀으나, 후반부에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정치적 발전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발전은 1988년 서울 올림픽 게임 개최, 1995년 유엔 가입, 1996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가입으로 가시화되었다.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져가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도와야 한다는 국내외 목소리 또한 커졌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이 서구 선진국과 달라 그 개발 경험과 노하우가 현재 개발 도상국들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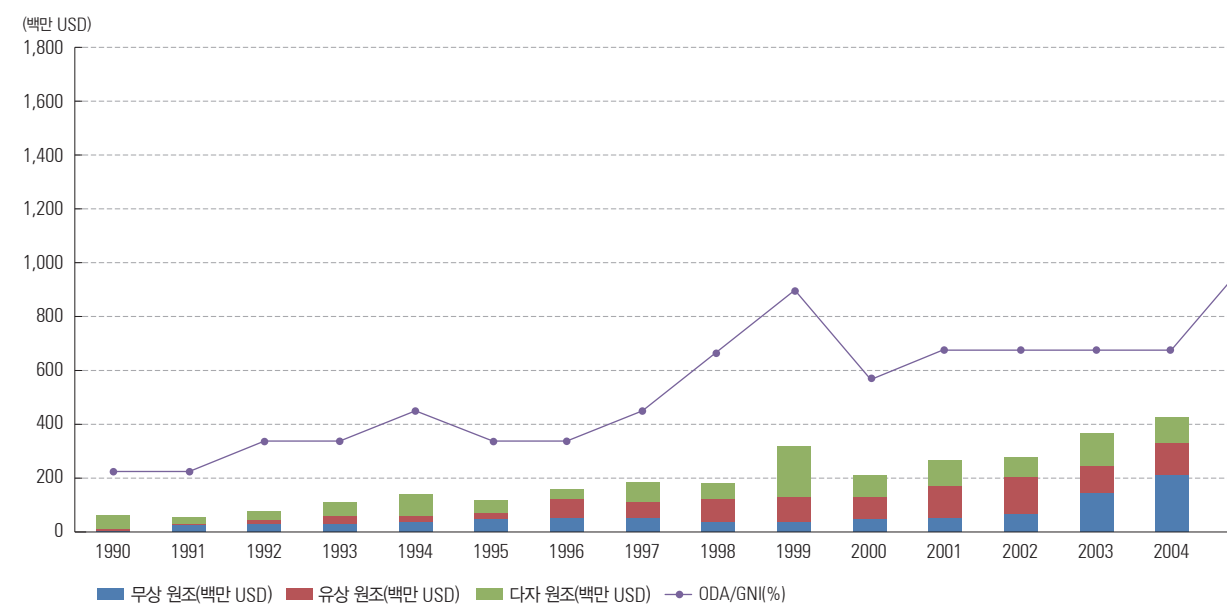
국제 개발 협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원조 수원국이였다. 1945년 광복 및 6·25 전쟁 이후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12.7억 원의 원조를 제공받았다. 그 후 경제 성장이 본격화되고 선진국으로부터 외자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원조 수혜 규모가 점점 감소하였다. 결국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은행(WB: World Bank)의 차관 대상국 명단과 2000년 개발 원조 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수원국 명단에서 제외됨으로써 공식적으로 원조 수원국의 지위를 탈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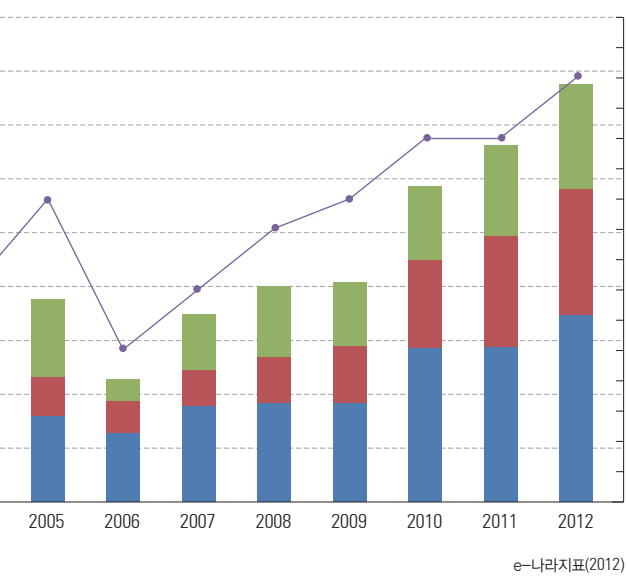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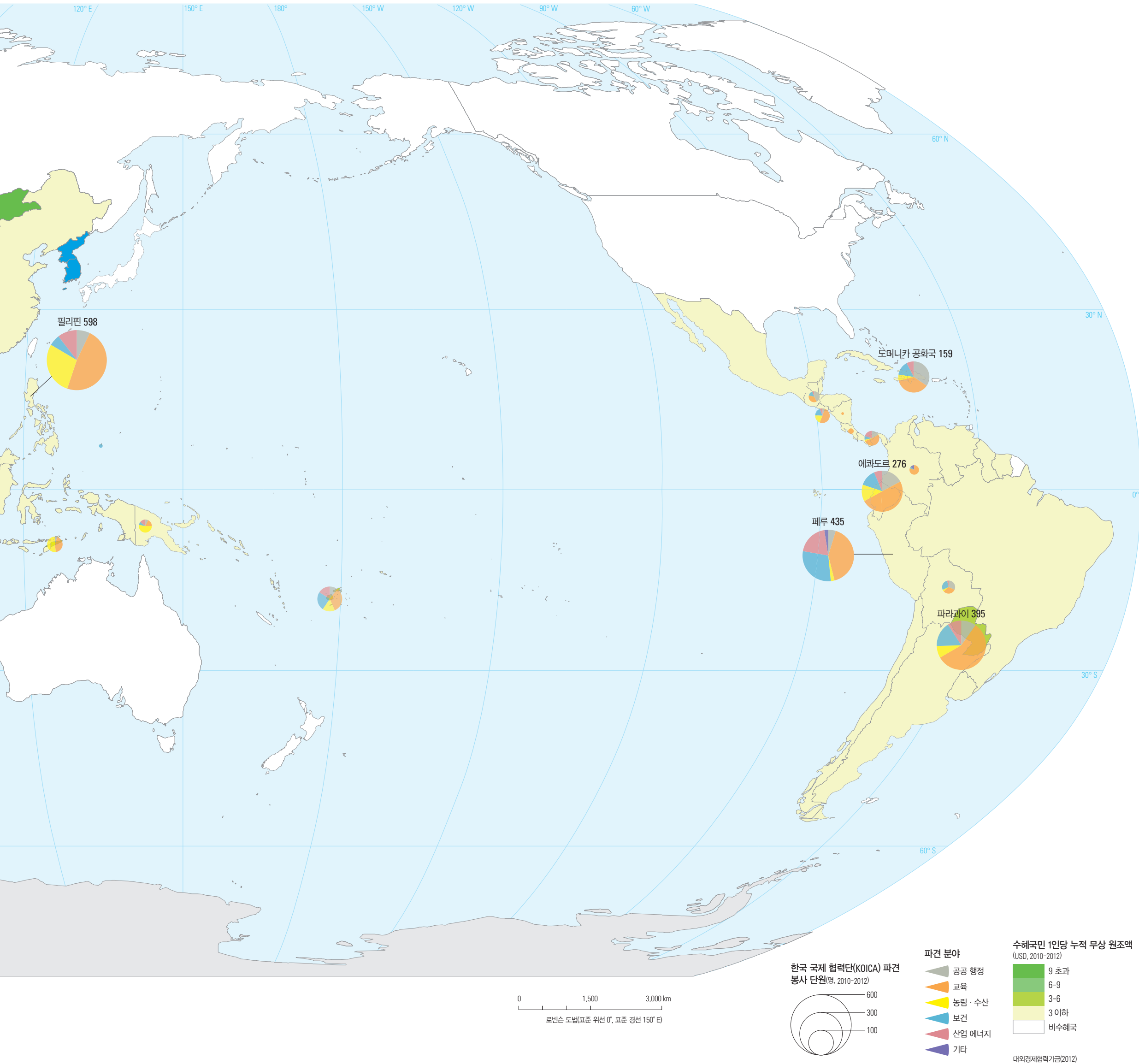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원조 공여의 시작은 1960년대 초로 거슬

러 올라간다. 하지만 당시 공여는 국제기구 및 다른 공여국의 지원에 기초하여 삼각 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독자적이고 본격적인 국제 개발 협력은 1980년대 후반 이후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개발 도상국에 대한 양허성 차관을 지원하고자 1987년에 대외 경제 협력 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설립하였고, 1991년에는 무상 원조를 전담하기 위한 기관으로 외무부 산하에 한국 국제 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을 설립하였다.

본 장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 개발 협력의 현황과 추이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양자 또는 다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적 개발 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추이와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봉사단원 파견을 분야별로 그리고 수혜국별로 나누어 고찰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개별 국가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춘 각종 지원 사업을 기획 및 실행하고 있다. 이에 아시아, 중동, 동유럽, 독립 국가 연합(CIS),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로 나누어 해당 지역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지원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국제 사회에서 높아진 위상과 그에 상응한 역할을 수행하려는 노력을 확인한다.

유형별 ODA 추이





공적 개발 원조(ODA)란 ‘중앙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한 공공 기관이나 이들의 집행 기관이 개발 대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해당 국가나 국제기구에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하의 개발 원조 위원회(DAC)에 가입하였으며, 그 일원으로서 원조 활동을 하고 있다. 위 지도는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우리나라가 제공한 수혜국 1인당 누적 무상 원조액을 보여 준다. 또한 2012년 현재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한국 국제 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을 통해 세계 각국에 파견한 봉사단원을 공공 행정, 교육, 농림수산, 보건, 산업 에너지, 기타 등의 분야

별로 보여 준다. 이를 통해 다수의 봉사단원들이 교육, 농림·수산, 보건 분야로 세계 각지에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프의 선은 명목 국민 총소득(GNI) 대비 공적 개발 원조 비율을 보여 준다.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그 지원 규모를 꾸준히 높여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2005년에 그 비율이 0.1%로 급증했던 것은 예외적으로 남부 아시아에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한 복구를 돕기 위함이었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공적 개발 원조액은 31달러로 DAC 회원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나, 1990년대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공적 개발 원조는 공여국과 수혜국 간의 직접적인 지

원을 의미하는 양자 간 원조와 공여국이 국제기구에 출연 혹은 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다자간 원조로 분류된다. 양자 간 원조는 증여율이 100%인 무상 원조와 증여율이 25% 이상 100% 미만인 유상 원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다자간 원조는 출연, 출자, 양허성 차관으로 각각 세분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모든 유형의 원조액 규모를 지속적으로 높여 왔다. 2012년 수치를 보면 양자 간 원조가 약 11억 6천만 달러, 다자간 원조가 약 3억 9천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각각 전년 대비 17.4%와 16.0% 증가한 것이다. 이상의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가 개발 대상국 발전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일조하고 있음은 물론 그 역할을 키워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무상 원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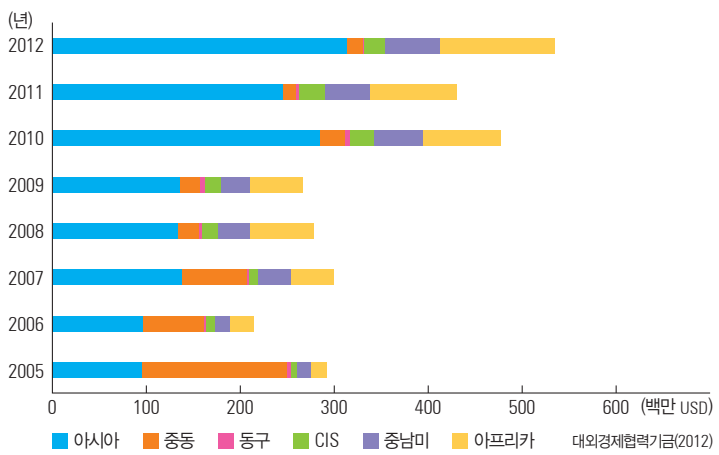
몽골 내 지역별 한국 ODA 현황



- ① 식수 개발 사업(2005-2006년, 50만 USD)
축산물 안전 관리 시스템 개발 사업(2008-2010년, 166만 USD)
국회사무처 전자 문서 보관소 DB 구축 사업(2010년, 92만 USD)
- ② 축산 위생 검역 능력 사업(2004-2005년, 40만 USD)
외무부 외교 문서 DB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2006년, 33.9만 USD)
재난 방지 연구 센터 역량 강화 사업(2007-2008년, 122만 USD)
울란바토르 시 지역 난방 및 용수 공급 시스템 개선 사업(2007-2009년, 500만 USD)
정부 통합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2007-2009년, 520만 USD)
가축 바이러스성 질병 진단 센터 건립 사업(2007-2009년, 130만 USD)
관세 행정 현대화를 위한 전자 관세 통관 시스템 구축 사업(2008-2009년, 250만 USD)
기상청 기상 관측 보존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2008-2009년, 130만 USD)
울란바토르 시 대기 오염 저감을 위한 난방 문화 개선 시범 사업(2008-2009년, 70만 USD)
할호골 지역 농업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2008-2009년, 255만 USD)
채소 재배 온실 설치 사업(2008-2010년, 140만 USD)
축산물 안전 관리 시스템 개발 사업(2008-2010년, 166만 USD)
국회사무처 전자 문서 보관소 DB 구축 사업(2010년, 92만 USD)
지적 재산권 현대화 사업(2010-2012년, 310만 USD)
한몽 기술대학교 역량 강화 사업(2010-2014년, 500만 USD)
울란바토르 시 토지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2011-2012년, 270만 USD)
할호골 시범 농장 개발 사업(2011-2012년, 400만 USD)
국가 등록 제도 원비 사업(2011-2013년, 400만 USD)
울란바토르 시 지역 난방 및 용수 공급 시스템 개선 2차 사업(2011-2013년, 500만 USD)
- ③ 정보 통신 개발 전자 정부 프레임워크 수립 사업(2005-2006년, 60만 USD)
전자 조달 시스템 구축 사업(2010-2012년, 460만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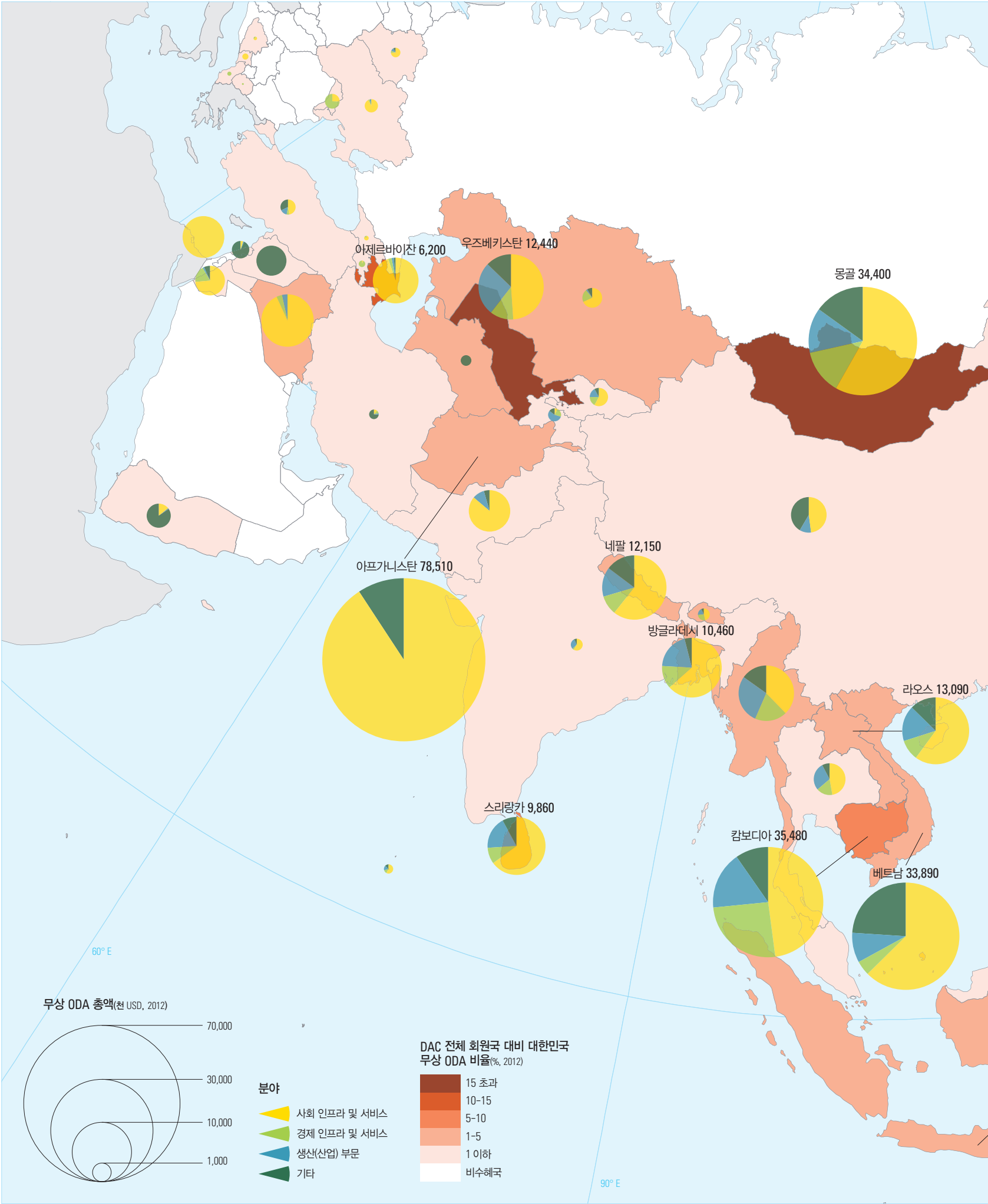
한국국제협력단

한국 무상 ODA 지역별 추이



그래프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중동, 동구, 독립 국가 연합(CIS), 중남미 및 아프리카에 제공한 양자 무상 원조의 추이를 보여 준다. 우선 원조액이 2010년 들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과거 중동에 적지 않은 원조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가 주요 수혜 지역이다.

아시아, 중동, 동구 및 독립 국가 연합(CIS)에 대한 한국 양자 무상 원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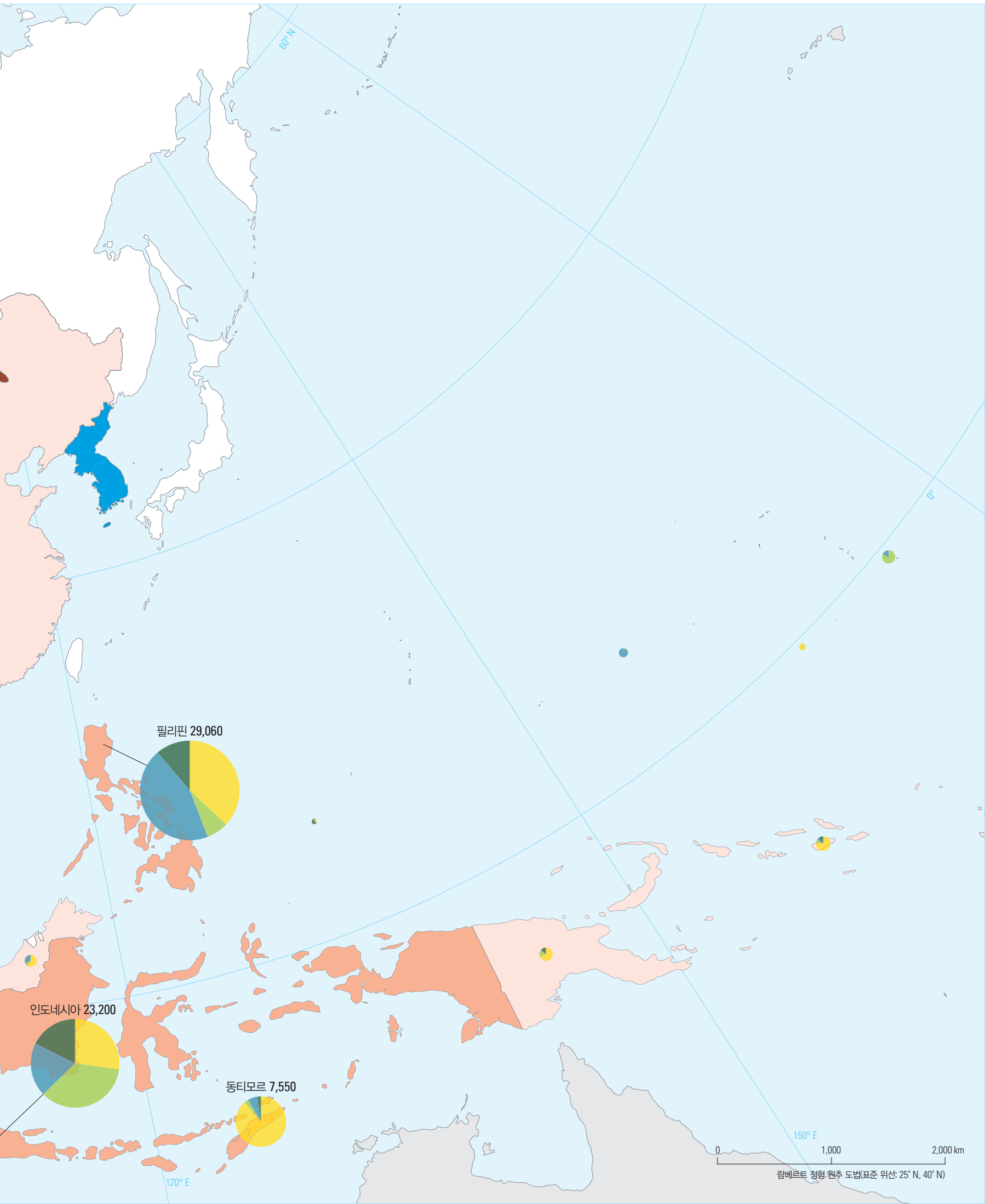
위 지도는 2012년 현재 아시아, 중동, 동구 및 독립 국가 연합(CIS)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양자 무상 원조를 보여 준다. 색상은 해당 수혜국에 제공되는 OECD 개발 원조 위원회(DAC) 전체 회원국의 양자 무상 원조액에서 우리나라 원조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 준다. 즉, 색상이 짙을수록 해당 수혜국이 받은 무상 원조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높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대외 무상 원조를 많이 하는 수혜국이 주로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의 몽골,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여타 DAC 공여국에 비해 중점적으로 무상 원조하는 국가들이다.

아시아, 중동, 동구 및 독립 국가 연합(CIS)에 대한 한국 양자 무상 원조 지도에서 파이그래프는 우리나라 무상 원조의 규모와 지원 분야를 수혜국별로 보여 준다.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몽골, 그리고 베트남에 대한 원조 규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지원 분야로는 사회 인프라 부문이 가장 높고, 경제 인프라 부문, 생산 부문 순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몽골 내 지역별 한국 ODA 현황 지도에서 몽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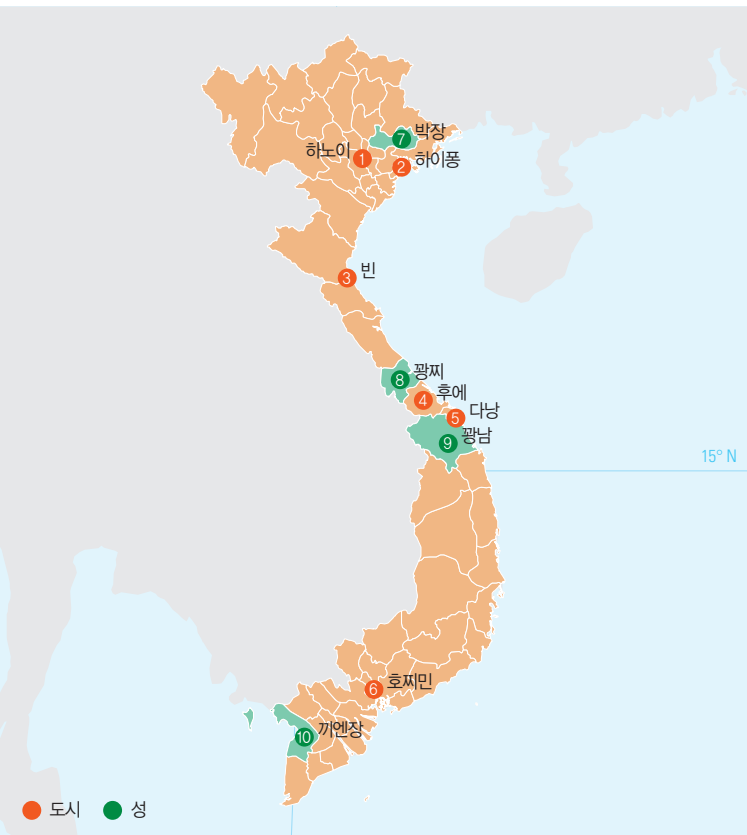
국제 협력단의 다양한 무상 원조 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몽골 인구의 불균등한 지리적 분포 때문에 사업은 주로 수도인 울란바토르 시에서 진행되며, 다르항 시에서도 일부 진행되고 있다. 사업은 현지 주민의 요구에 맞게 식량, 식수 관련 분야와 정보 통신 및 기술 관련 사업이 주를 이룬다.

한편, 베트남 내 지역별 한국 ODA 현황 지도에서는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의료 서비스 개선, 정보 통신 강화, 기술 인력 파견 및 연수생 초청, 지역 개발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구가 상대적으로 희소한 내륙 고산 지역보다는 연안 저지대, 특히 수도 하노이에서 보다 많은 사업이 진행된다.



대외경제협력기금, QMDS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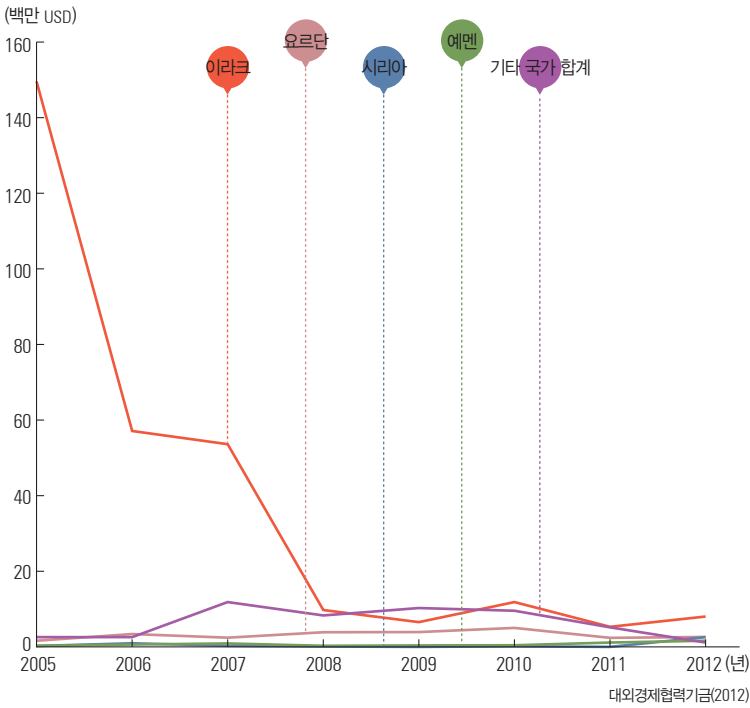
베트남 내 지역별 한국 ODA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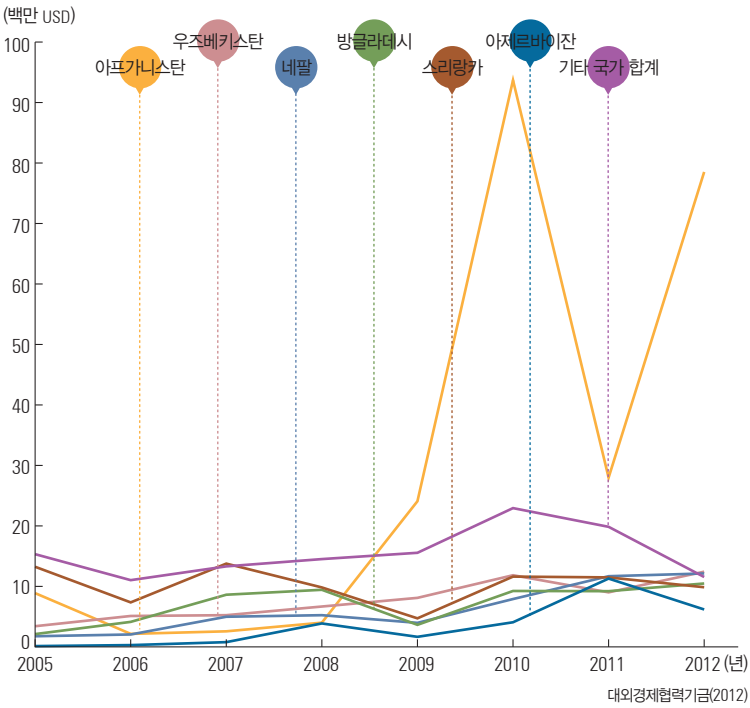
- 1 마약 퇴치 사업(2004-2006년, 53.4만 USD)
산업 폐수 처리 역량 강화 사업(2007-2008년, 90만 USD)
정보 통신 입법 지원 사업(2004-2005년, 86만 USD)
한·베 친선 병원 3차 지원 사업(2005-2006년, 130만 USD)
산업 오염 방지 기술 지원 사업(2003-2005년, 60만USD)
호찌민 정치 아카데미 도서관 정보화 지원 사업(2006-2007년, 142.5만 USD)
환경 교육 센터 설립 사업(2007-2010년, 150만 USD)
법관 연수 선진화 지원 사업(2008-2011년, 300만 USD)
경쟁 행정 관리국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2011-2014년, 150만 USD)
의료 보험 제도 구축 역량 강화 사업(2011-2013년, 80만 USD)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 사업(2010-2012년, 500만 USD)
아세안 6개국 일본 뇌염 예방 및 퇴치 백신 연구 사업(2002-2006년, 250만 USD)
- 2 산업 폐수 처리 역량 강화 사업(2007-2008년, 90만 USD)
하이퐁 신도시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2007-2010년, 370만 USD)
- 3 산업기술학교 증축 및 역량 강화 사업(2007-2008년, 230만 USD)
- 4 후에 시 개발 마스터플랜 개선 사업(2011-2013년, 350만 USD)
- 5 마약 퇴치 사업(2004-2006년, 53.4만 USD)
한·베 친선 IT대학 설립 사업(2004-2007년, 1,000만 USD)
- 6 마약 퇴치 사업(2004-2006년, 53.4만 USD)
박장성 한·베 기술대학 설립 사업(2010-2014년, 1,000만 USD)
- 7 광저성 중급 직업 훈련 학교 개선 사업(2011-2013년, 470만 USD)
- 8 중부 지역 종합 병원 건립 사업(2006-2012년, 3,500만 USD)
- 9 끼엔장성 식수 개발 사업(2007-2010년, 240만 USD)

한국국제협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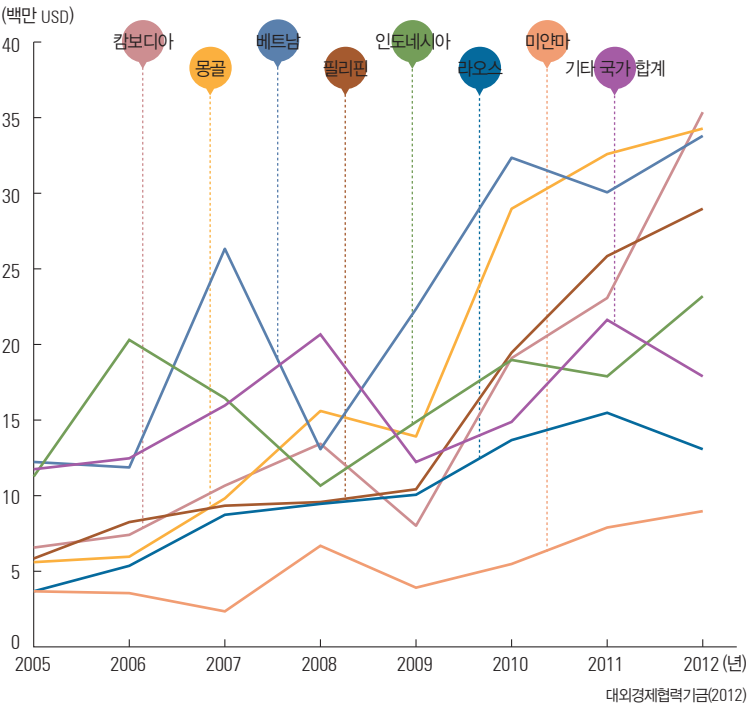
중동에 대한 한국 양자 무상 원조 추이



남부 아시아, 동구 및 CIS 국가에 대한 한국 양자 무상 원조 추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한국 양자 무상 원조 추이



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국 양자 무상 원조 현황



위 지도는 2012년 현재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양자 무상 원조를 보여 준다. 짙은 색으로 표시된 수혜국은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가 전체 OECD 개발 원조 위원회(DAC) 회원국의 무상 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이다. 멕시코를 제외한 중미 국가들과 남미 대륙의 서안에 위치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원조에 대한 높은 의존율을 보인다. 그 중 카리브해 제도의 앤티가 바부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그리고 남미의 파라과이가 돋보인다.

지도에서 파이그래프는 우리나라 무상 원조의 규모와 지원 분야를 수혜국별로 보여 준다. 원조액 측면에서 우

리나라가 중남미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원조하고 있는 국가는 페루, 파라과이, 에콰도르임을 알 수 있다. 지원하는 분야를 살펴보면 주로 사회 인프라 구축과 개선 사업이며, 일부 국가의 경우 경제 및 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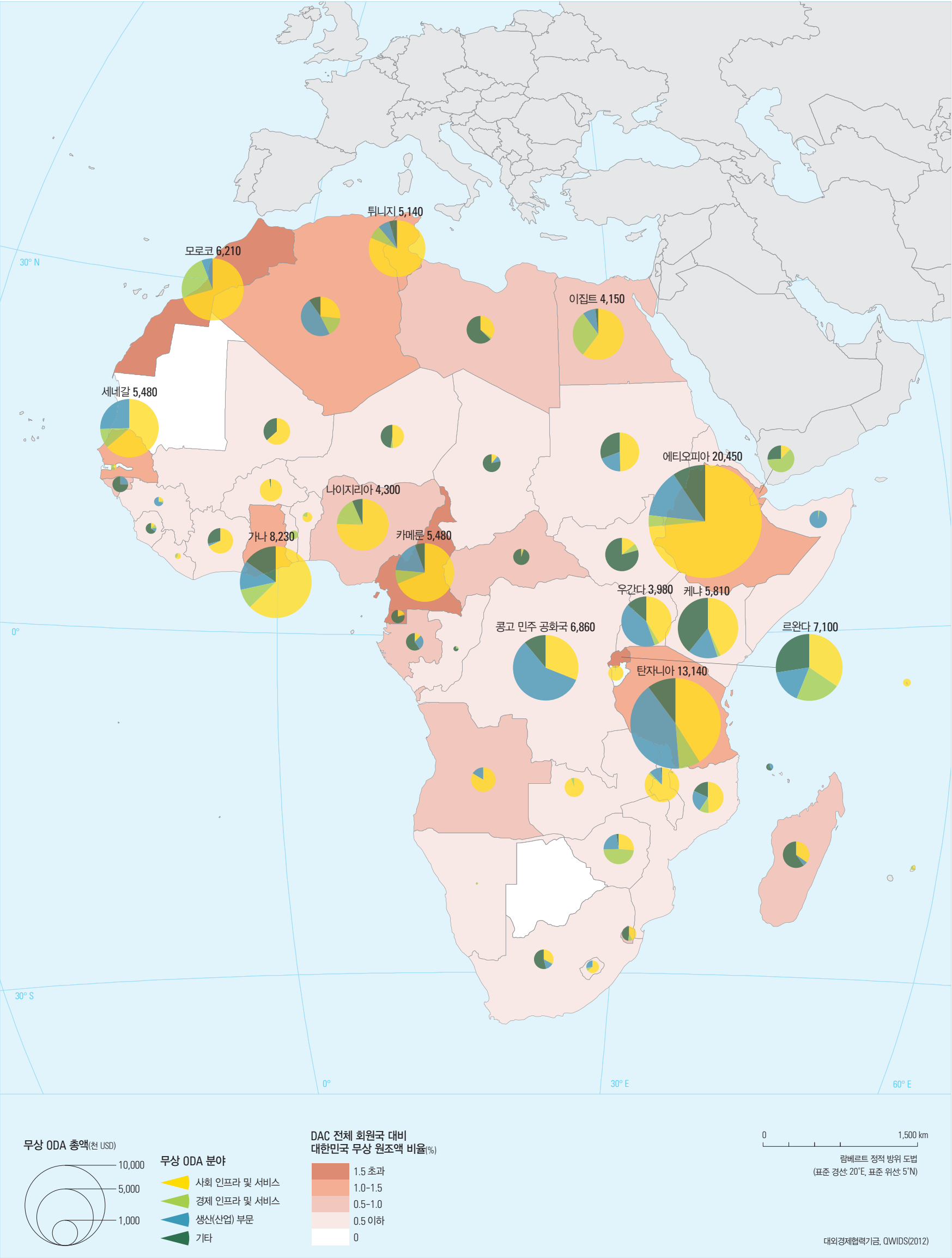
사회 인프라 사업의 사례로, 페루에서 진행된 '제1 카야오 베야비스타 한·페 의료 센터 건립 사업'이 있다. 해당 사업은 1992년에 시작하여 2010년까지 총 239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그 결과 해당 지역 주민의 보건과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 파라과이에서 이루어진 '10개 중앙 부처 간 인터넷 및 그

롭웨어 시스템 개발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2007년에만 250만 달러가 투자되어 파라과이의 전자 정부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통신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한편 경제 및 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의 사례로 에콰도르에서 2008년 250만 달러 규모로 착수하여 2010년에 완성된 '침보라소 주 관개수로 건설 및 영농 기술 지원 사업'이 있다. 이를 통해 농가의 생산성 증가, 농업용수 확보 및 농작물 생산량 증대를 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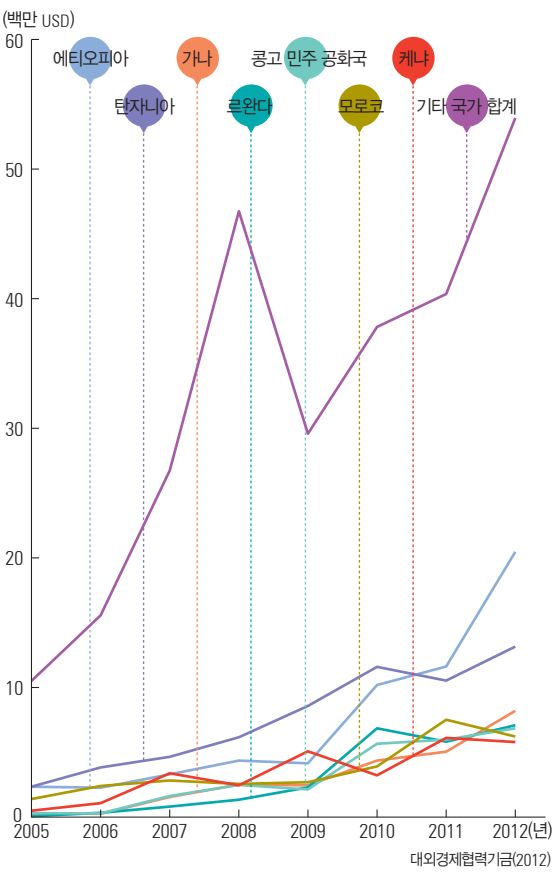


봉사단원 활동(페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한국 양자 무상 원조 현황



아프리카 주요 국가별 한국 양자 무상 원조 추이



지원 시설물(르완다국립대학교 ICT 공학부 건물)

지도는 2012년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공여한 양자 무상 원조를 보여 준다.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가 전체 DAC 회원국의 무상 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에 짙은 색상이 칠해졌다. 앞서 살펴본 중남미 경우와는 달리 남부 아프리카 몇몇 국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도의 파이그래프는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어느 나라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그리고 어떤 분야에 제공되고 있는지 보여 준다.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원조가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가나, 르완다에 제

공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가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사실은 그 추이를 보여 주는 그래프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지원 분야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사회 인프라 부문이 가장 우세하고, 경제 인프라 부문과 생산 부문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수혜국들의 사회 기반 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으며, 내전 혹은 기근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 및 생산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음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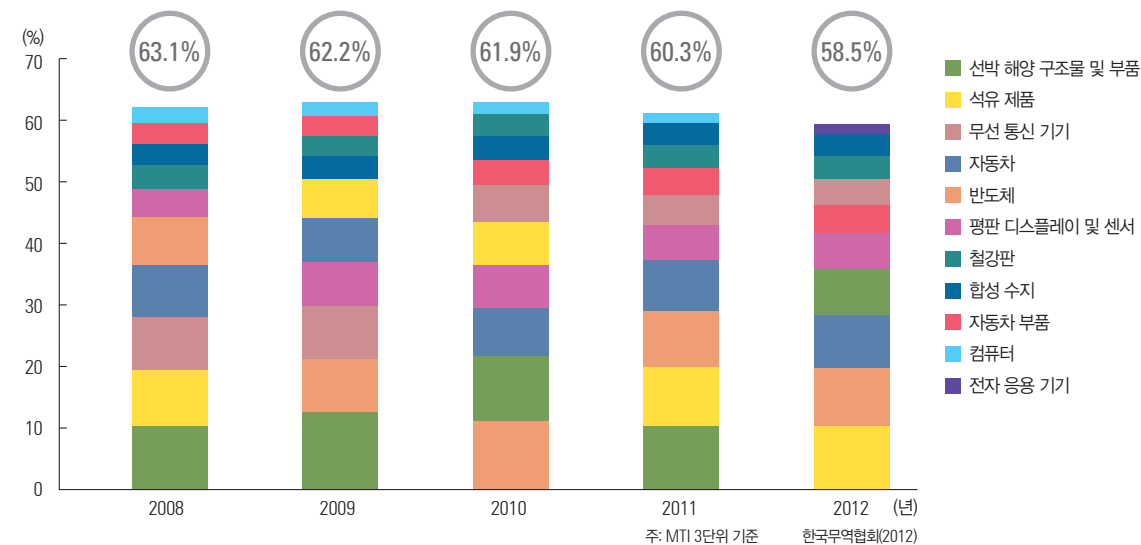
실제로 우리나라는 사회 인프라 부문 사업의 일환으로서 2011년부터 280만 달러를 들여 에티오피아의 아디

스아바바 시에서 결핵을 예방하고 퇴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르완다에서는 키갈리 경제 특구 내 ICT 혁신 센터를 건립하여 인력 양성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돕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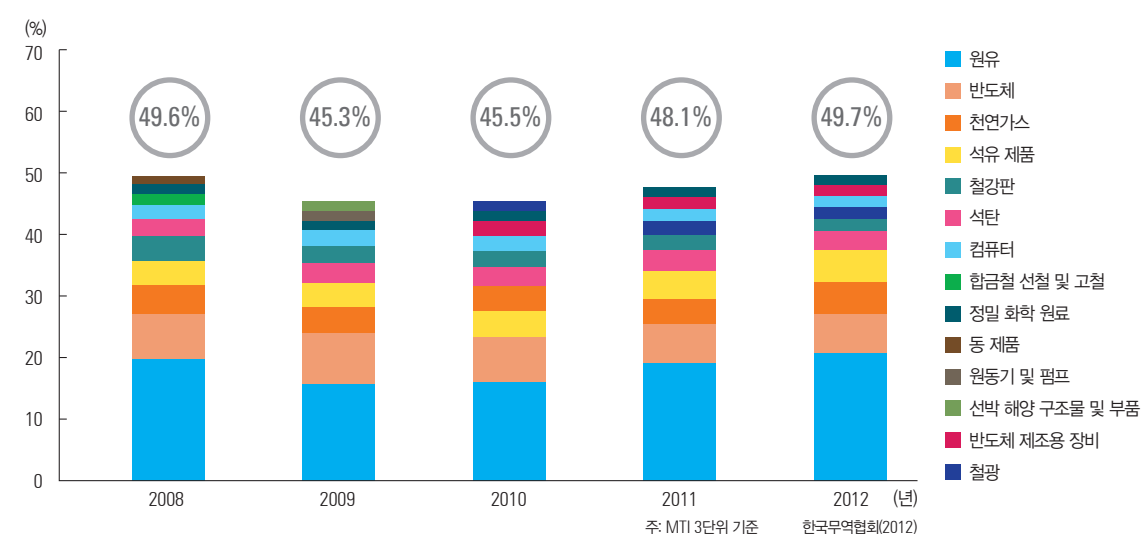
국제 통상

국제 통상의 개념은 협의의 국제 통상과 광의의 국제 통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의 국제 통상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유형의 상품 거래와 통신·금융·보험·운송·유통·관광·건설 등 서비스와 지적 재산권과 같은 무형의 상품 거래를 포함하는 국제 무역을 의미한다. 한편, 광의의 국제 통상은 상품의 국제 이동을 의미하는 국제 무역뿐만 아니라 국가 간 노동·자본·기술·경영 능력 등과 같은 생산 요소의 국제 이동을 의미하는 국제 투자를 포함한다. 더 나아가 국제 통상은 국제 무역 및 국제 투자 등과 같은 경제적인 환경에 노동, 기술, 경쟁 등에 관한 국제 규범을 연계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제 통상의 주요 이슈는 자유 무역 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등과 같은 국제법 및 규범 기반의 국제 협상 등을 들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한국의 국제 무역, 해외 및 외국인 직접 투자, 해외 자원 개발 현황을 통해 한국이 국제 통상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중심으로 세계 속의 한국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 품목의 수출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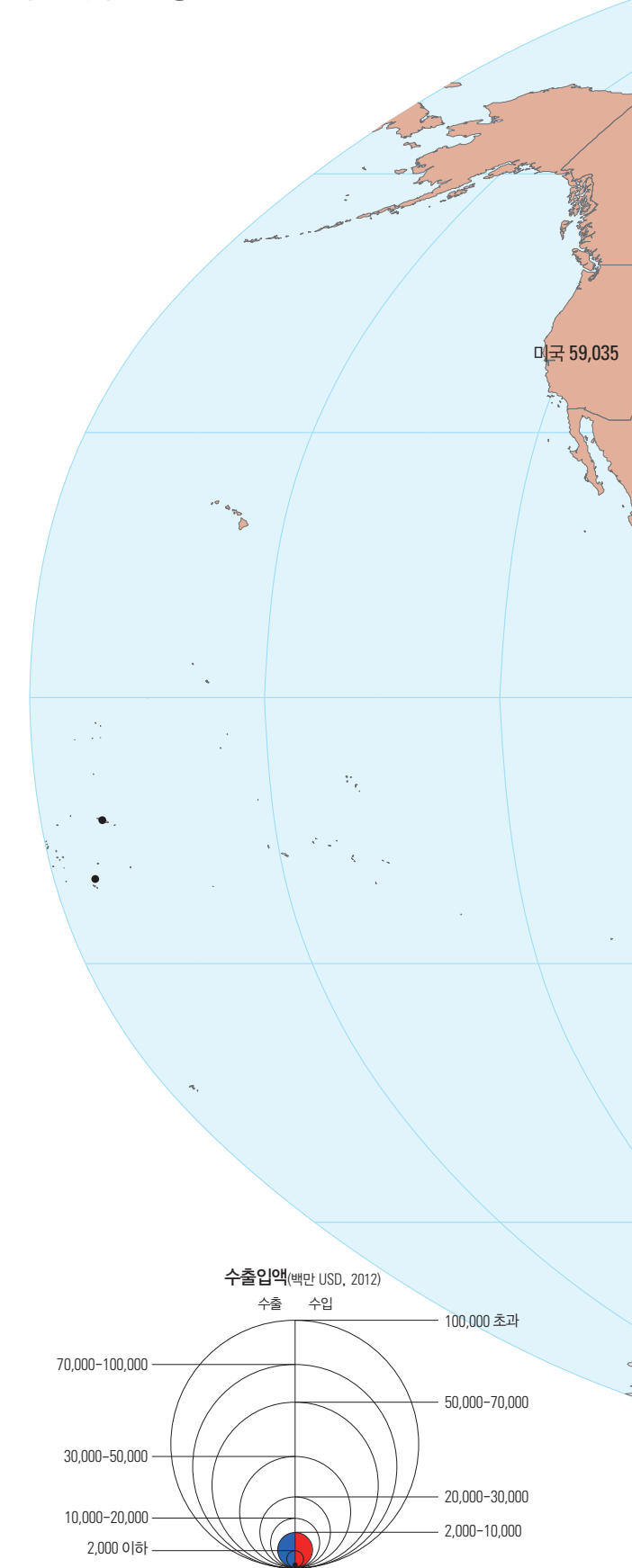


주요 품목의 수입 비중 추이



수출 및 수입

수출 및 수입 현황



에서 2013년 5,596억 USD로 증가하였으며, 무역 수지도 93억 USD에서 440억 USD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의 수출 품목별로는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 반도체, 자동차,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등이 꾸준히 5대 수출 품목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5대 품목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43.7%에서 2011년 42.3%로 소폭 감소하였다. 상세 품목별로는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이 2010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수출 1위 품목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2011년에는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석유 제품이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에 이어 수출 2위 품목을 차지하였다. 반도체의 수출 비중은 2008년 7.8%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을 제치고 수출 1위 품목이 되었지만, 2011년에는 D램 등 주요 품목의 수출 단가 하락으로 3위에 그쳤다. 그리고 자동차, 자동차 부품은 미국 및 주요 선진국의 수요 회복과 최근 발효된 EU, 미국과의 FTA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수입 규모도 수출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2009년에는 세계 경제 위기 및 국제 유가 하락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그 이후에는 원유 등 주요 에너지의 물량 및 단가 상승,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로 인해 증가하였다. 품목별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총수입에서 에너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 국제 유가와 수입 증가율이 동조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수입액은 총 수입액의 30%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국제 유가 상승, 도입 물량 확대 등으로 32.9%를 차지하였다. 특히, 원유는 전년 대비 46.8% 증가하여 사상 최초로 연간 1,000억 USD 이상의 수입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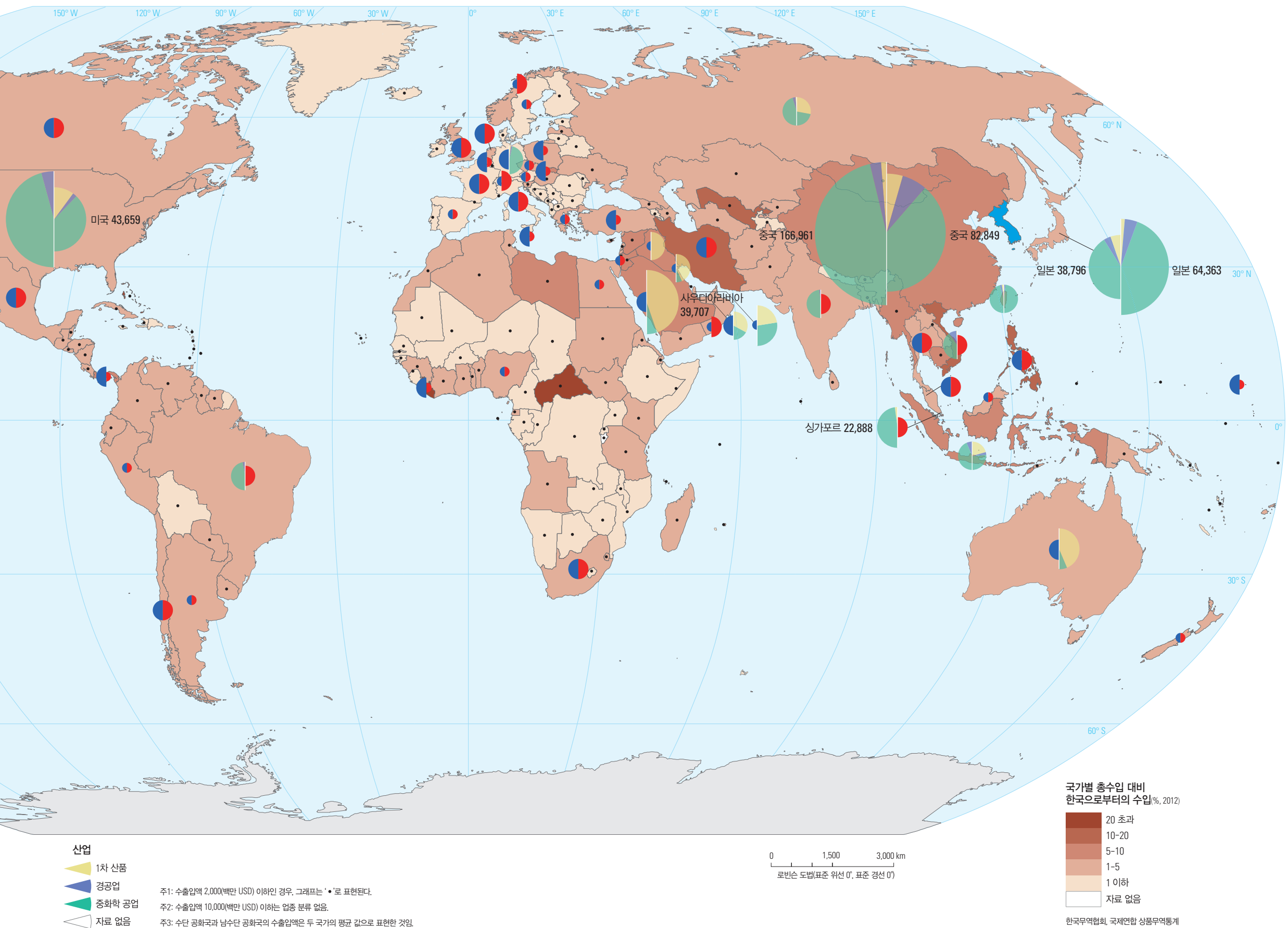
한국의 국가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는 중국이었으며, 미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이 그 뒤를 이었다. 선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08년 31.1%에서 2011년 27.5%로 다소 감소한 반면, 개발 도상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동기간 68.9%에서 72.4%로 증가하였다. 한편, 한국의 국가별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도 역시 중국이었으며, 일본, 미국,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중국은 2007년에 처음으로 한국의 1위

수입 대상국이 된 이후 2013년 현재까지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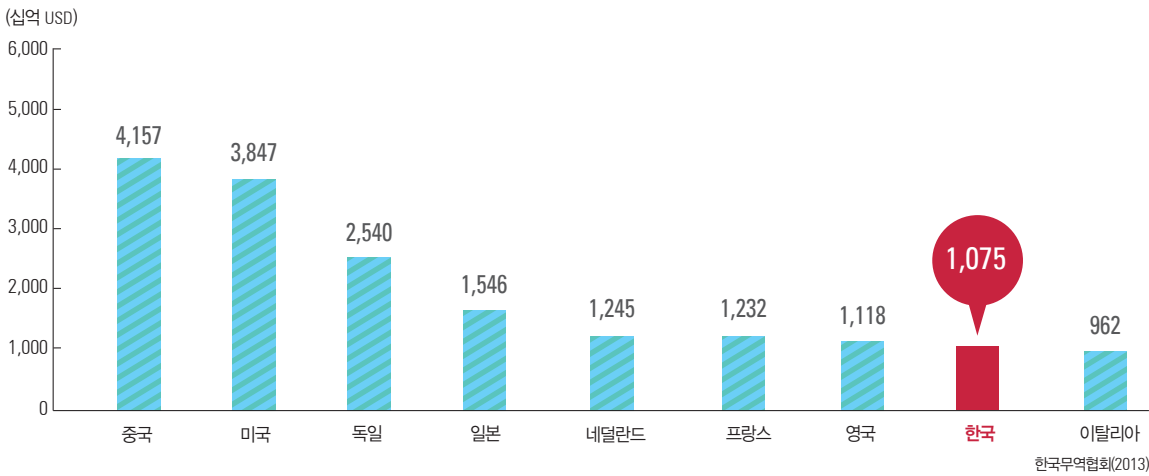
한국의 무역 수지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흑자를 기록하였다. 2000년대 후반 세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133억 USD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세계 경기 회복과 우리 상품의 경쟁력 상승 등으로 수출 증가폭이 수입 증가폭을 앞질러 2009년(404억 USD)과 2010년(412억 USD)에는 400억 USD가 넘는 흑자를 달성하였다.

2011년에는 국제 유가 상승세로 인해 흑자(308억 USD)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5년 연속 무역 흑자를 이어갔으며, 2013년에는 440억 USD로 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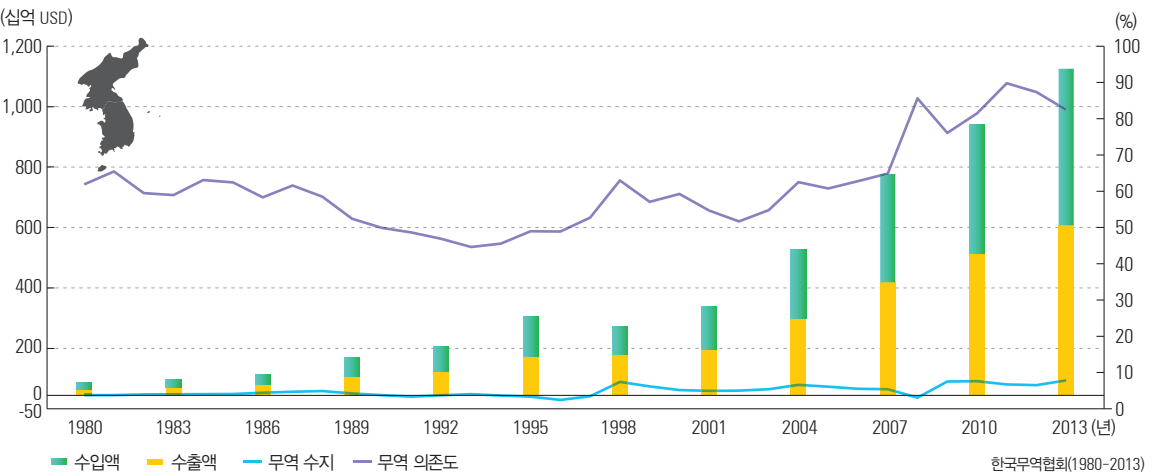
국가별 무역 수지를 살펴보면, 대중 무역 수지가 2003년 이후 10년 연속 가장 많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2013년에는 사상 최대인 866억 USD를 기록하였다. 반면, 대일 무역 적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2009년 제외)였으나, 일본 지진,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2011년 이후에는 적자가 소폭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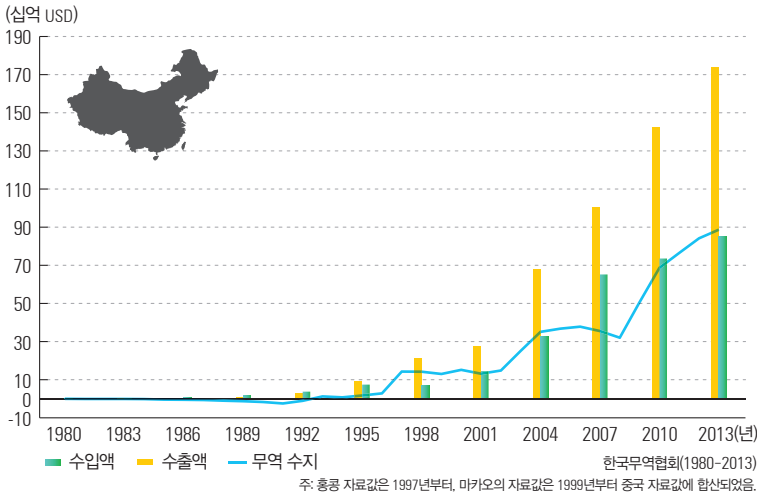
국가별 무역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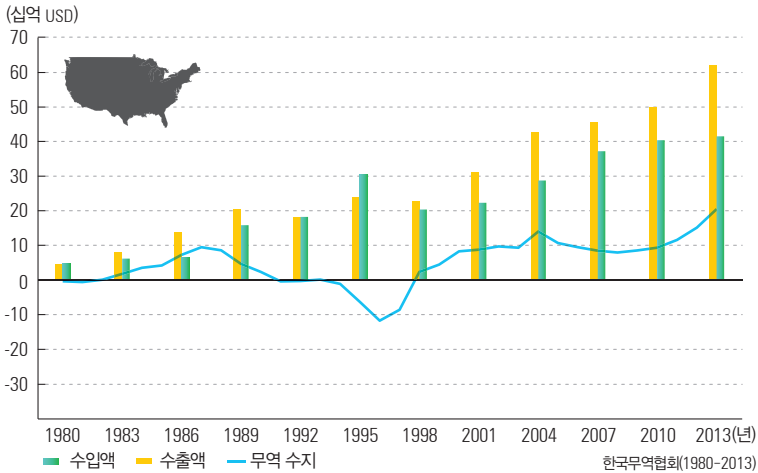
수출입 및 무역 수지와 무역 의존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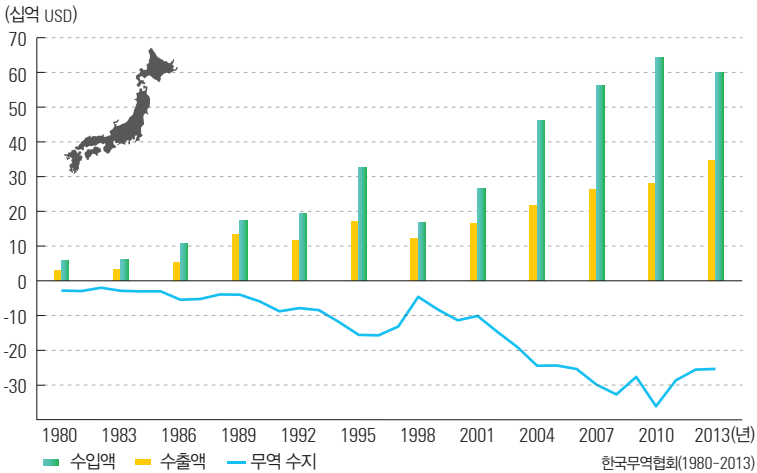
대중국 수출입 및 무역 수지 동향



대미국 수출입 및 무역 수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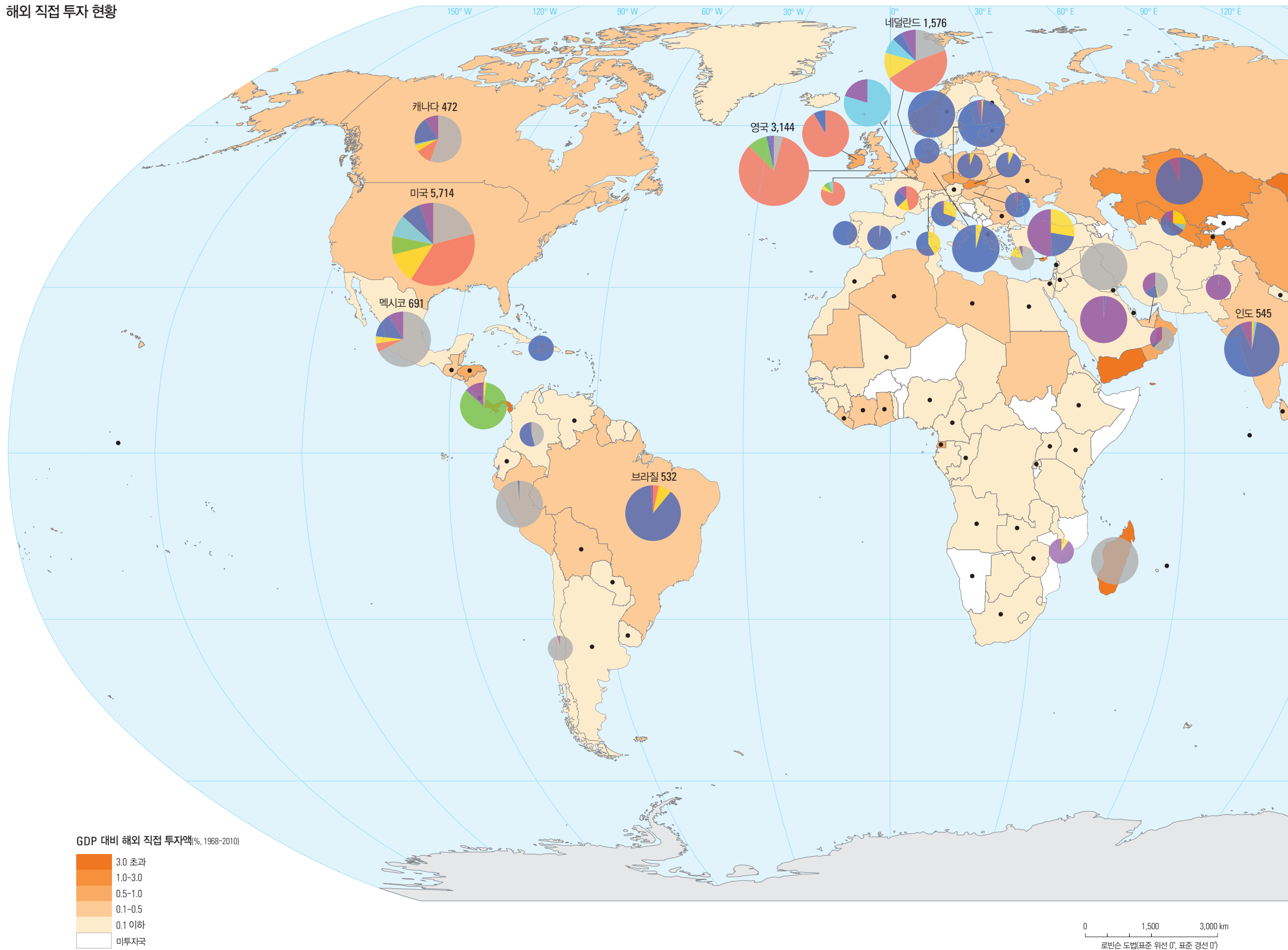


대일본 수출입 및 무역 수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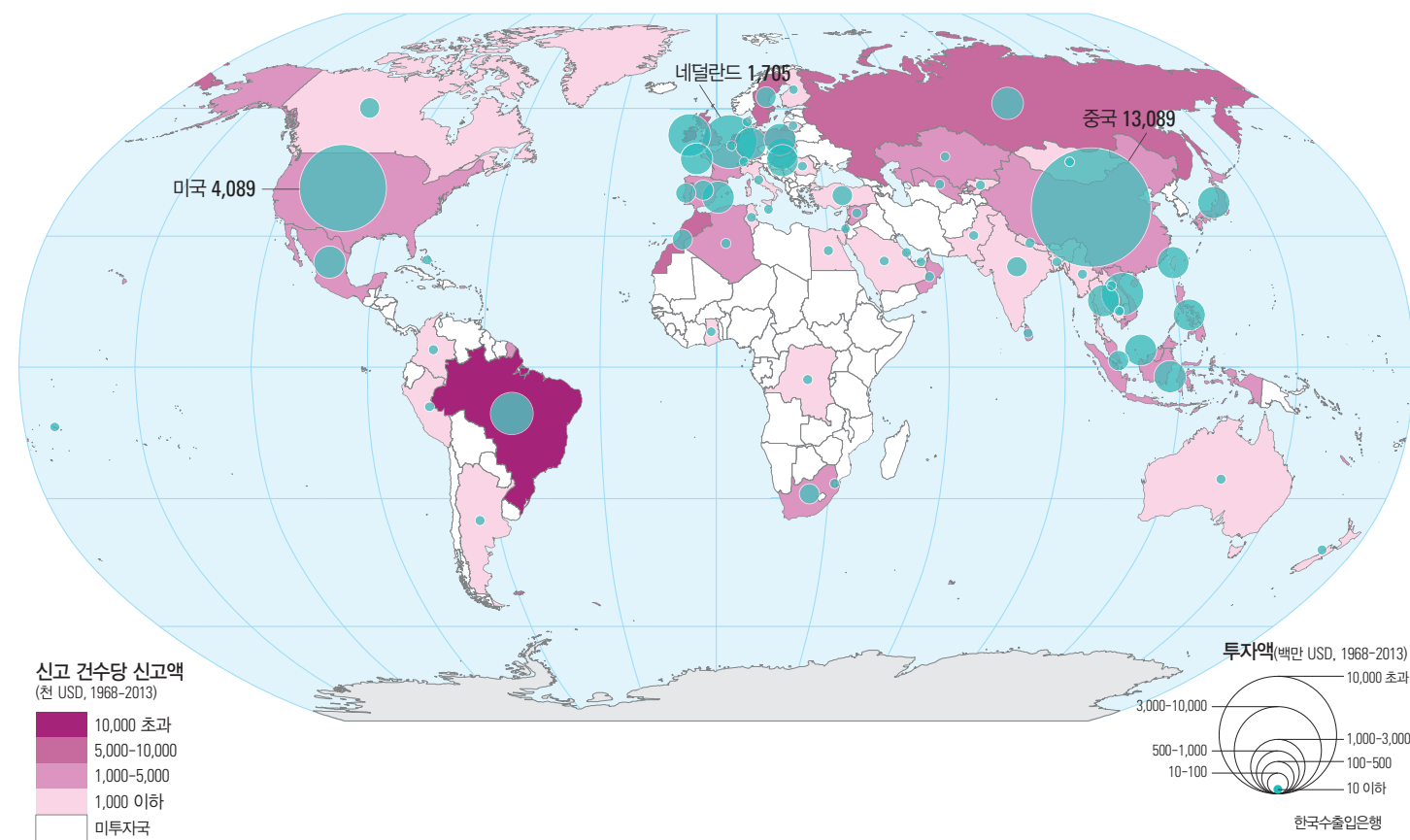


해외 직접 투자

해외 직접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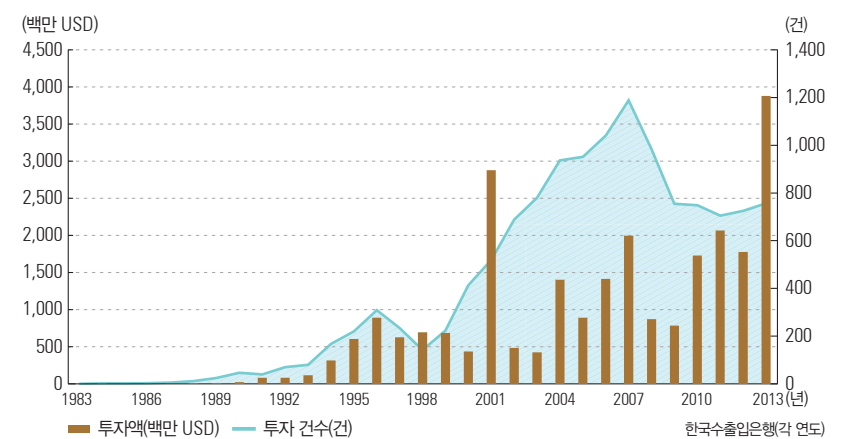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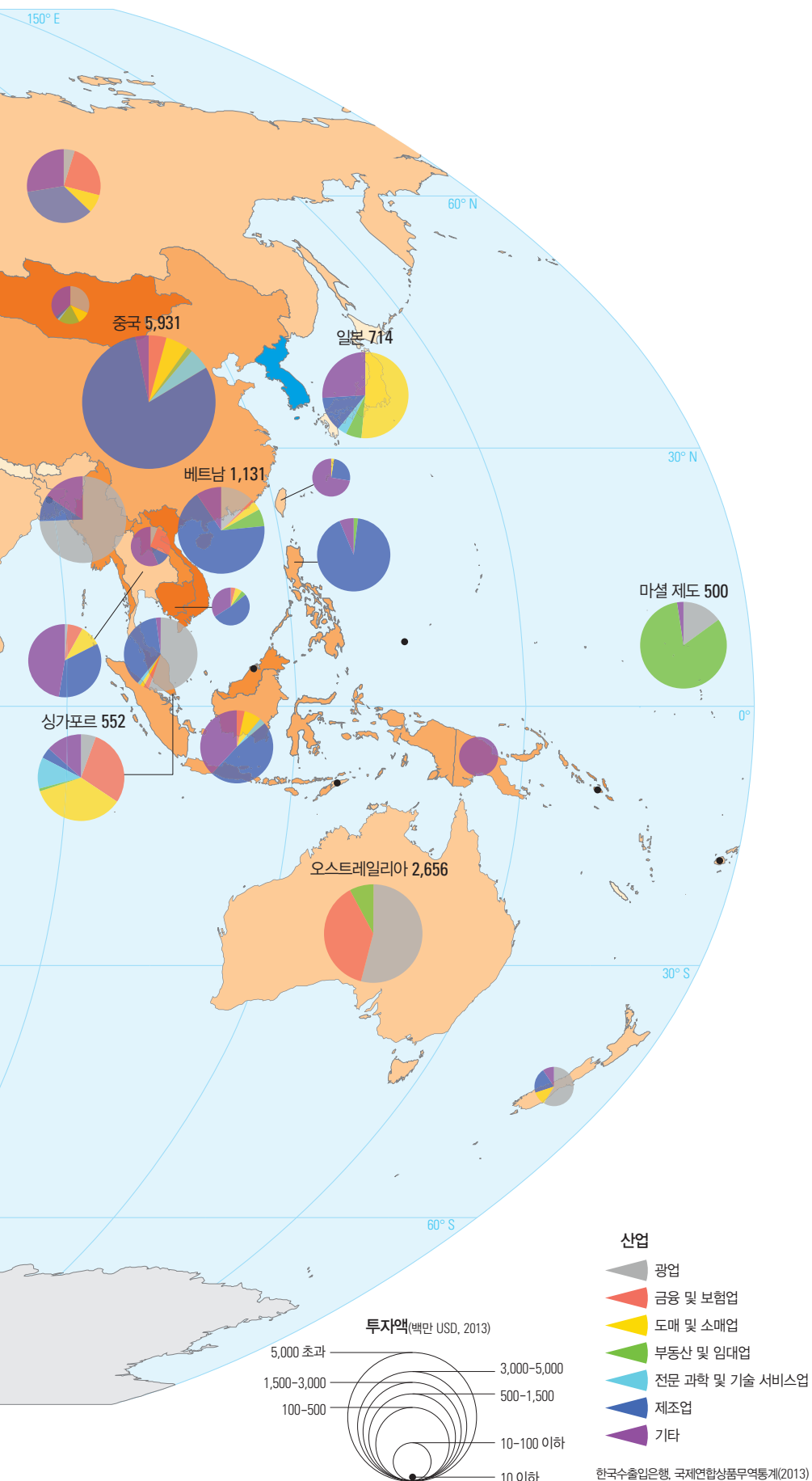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해외 직접 투자 누적 투자 현황



제조업 부문 중에서 살펴보면,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투자 비중이 각각 27.4%와 13.9%로 전 기간 누적 투자액 기준으로 가장 높다.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업은 2013년까지 73개국에 260.4억 USD를 투자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활성화되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 크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본 업종의 투자액은 1990년 0.8억 USD에서 2013년 38.8억 USD로 증가하였다. 한편,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업 부문의 해외 직접 투자는 중국(52.5%, 홍콩 포함)과 미국(15.8%)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네덜란드(6.0%), 베트남(3.1%), 아일랜드(2.6%), 일본(2.0%)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해외 직접 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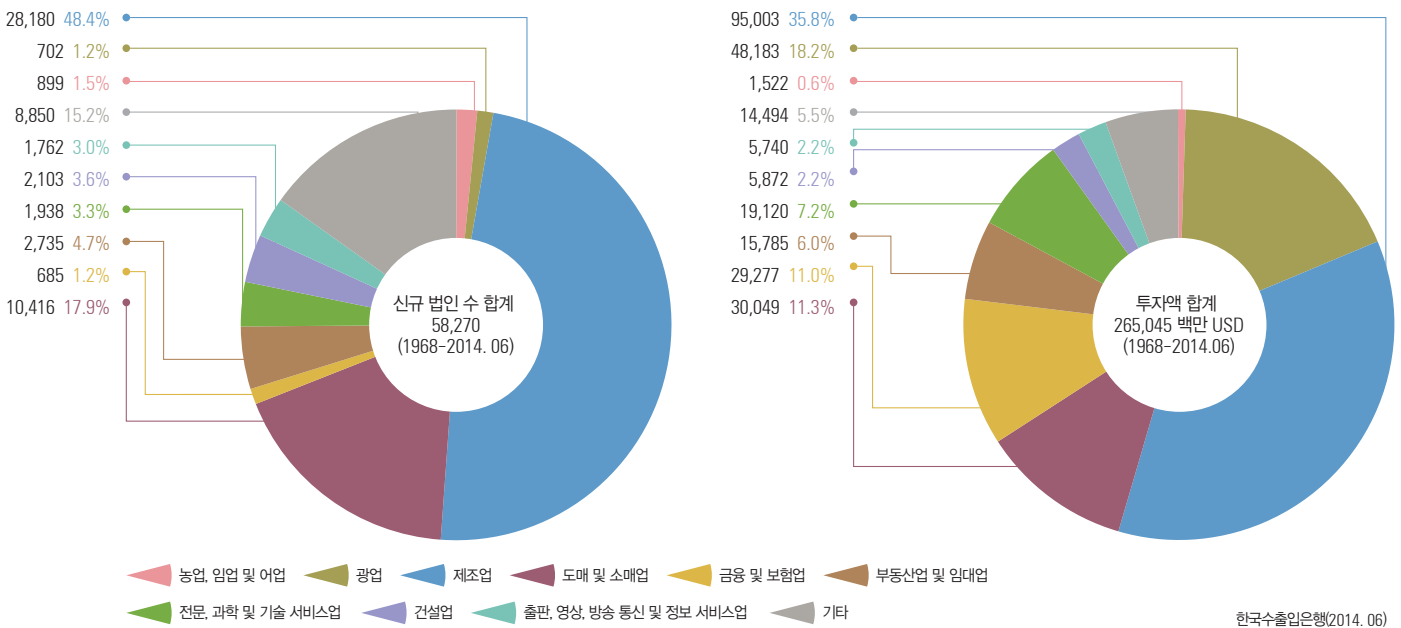


해외 직접 투자는 신규 투자, 인수 합병, 기존 해외 시설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 활동 범위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사업 행위이다. 특히, 해외 직접 투자는 기업 특유의 우위, 내부화 우위, 입지 특유의 우위를 통해 기업에 보다 나은 사업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이 진보하는 기본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 투자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에 처음으로 10억 USD를 초과하였고, 2007년에 227억 USD를 기록하여 17년 만에 20배 이상 성장하여 2013년 현재 241.4억 USD를 기록하였다. 그 결과, 2014년 6월 현재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누적액은 2,650억 USD에 달하고, 해외에 신규로 설립되거나 인수된 해외 법인은 58,270개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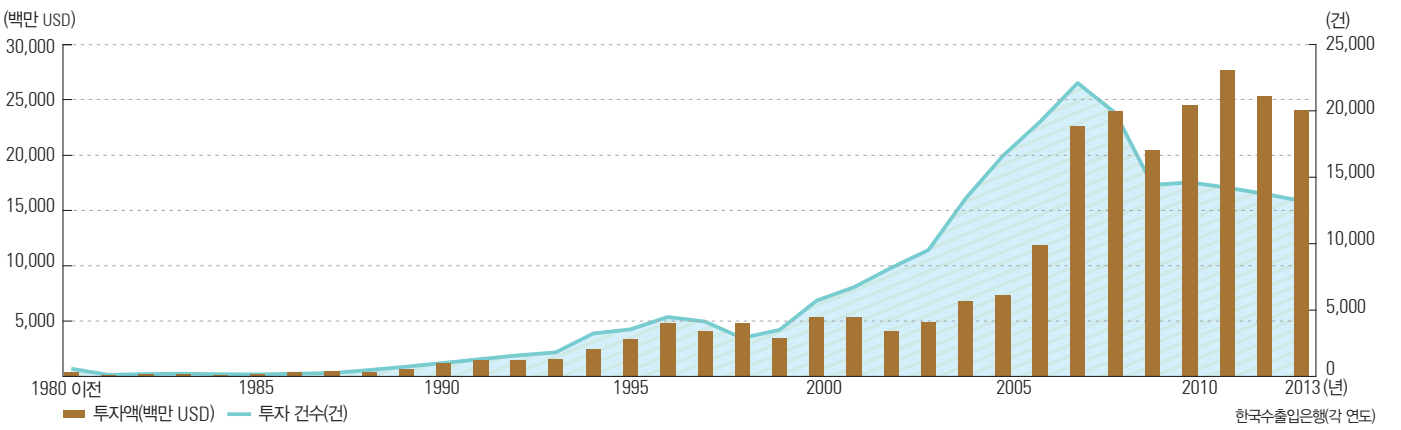
한국 해외 직접 투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0년 현재 아시아, 북미, 유럽이 각각 45.6%, 23.9%, 19.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는 중국과 미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

다. 예를 들어, 대중국 해외 직접 투자액은 총 투자액의 27.3%를 차지하여 한국의 최대 투자국이며, 다음으로 미국이 20.5%, 영국이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 국가에 대한 비중은 3% 이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 베트남 투자 비중이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10년 4%를 차지하여 한국의 4번째 투자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는 몇몇 투자 유치국의 국내 총생산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2010년 현재,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는 캄보디아, 마다가스카르, 베트남, 파나마, 몽골, 라오스 국내 총생산에 각각 15.0%, 8.3%, 5.7%, 5.2%, 3.3%, 2.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해외 직접 투자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2014년 6월 말 현재 제조업의 누적액이 950억 USD이며 전체 투자의 3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광업이 18.2%, 도매 및 소매업이 11.3%, 금융 및 보험업이 11.0%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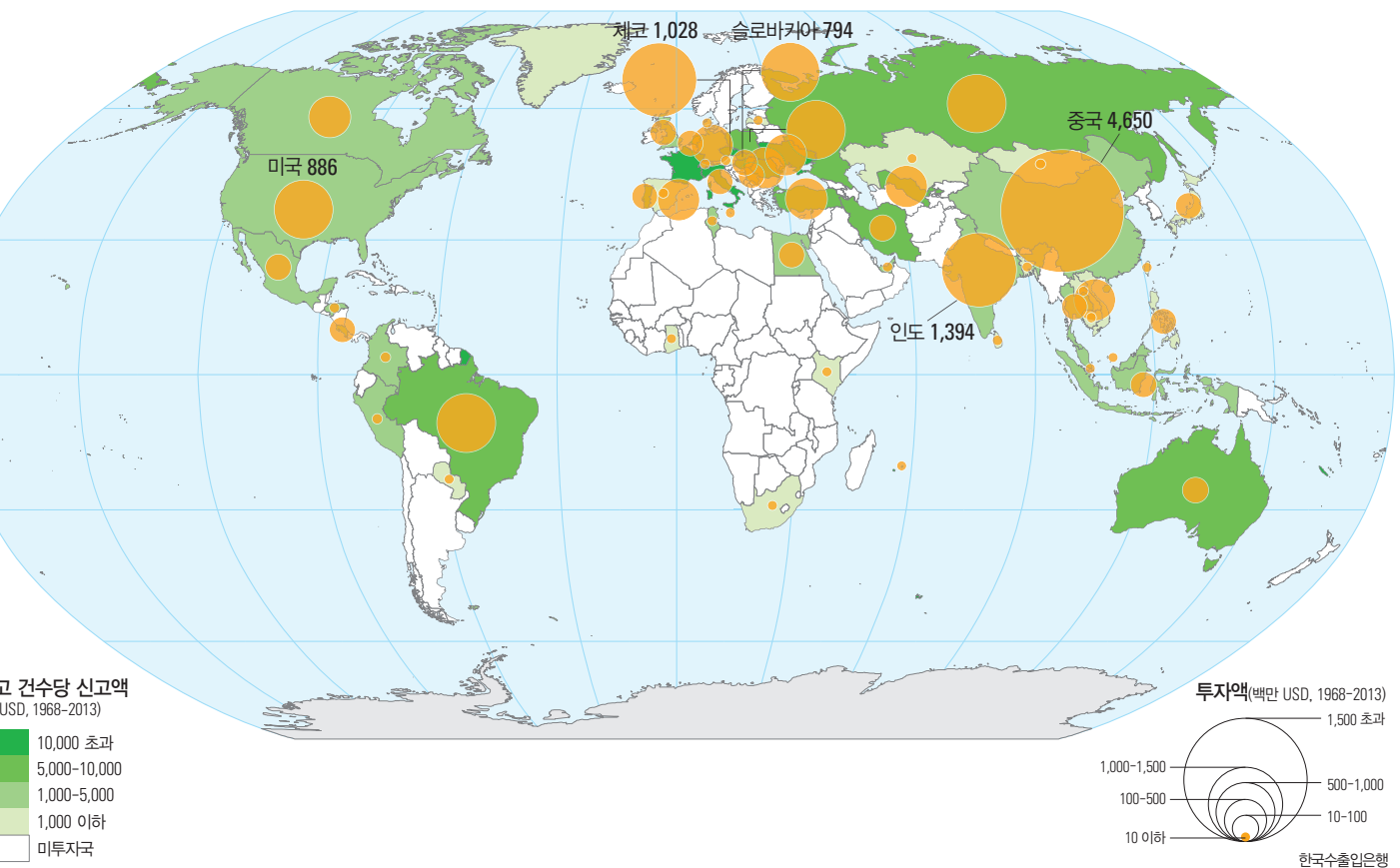
업종별 해외 직접 투자 현황



해외 직접 투자 동향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해외 직접 투자 누적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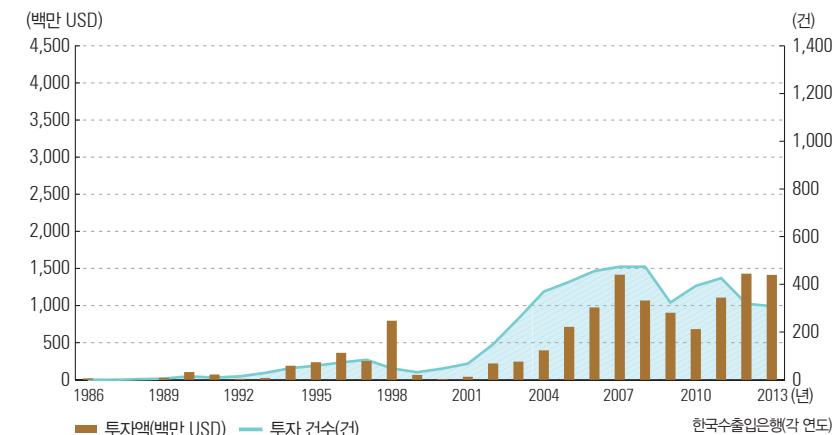


신규 건수당 신고액
(천 USD, 1968-2013)
10,000 초과
5,000-10,000
1,000-5,000
1,000 이하
미투자국

투자액(백만 USD, 1968-2013)
1,500 초과
1,000-1,500
500-1,000
100-500
10-100
10 이하
한국수출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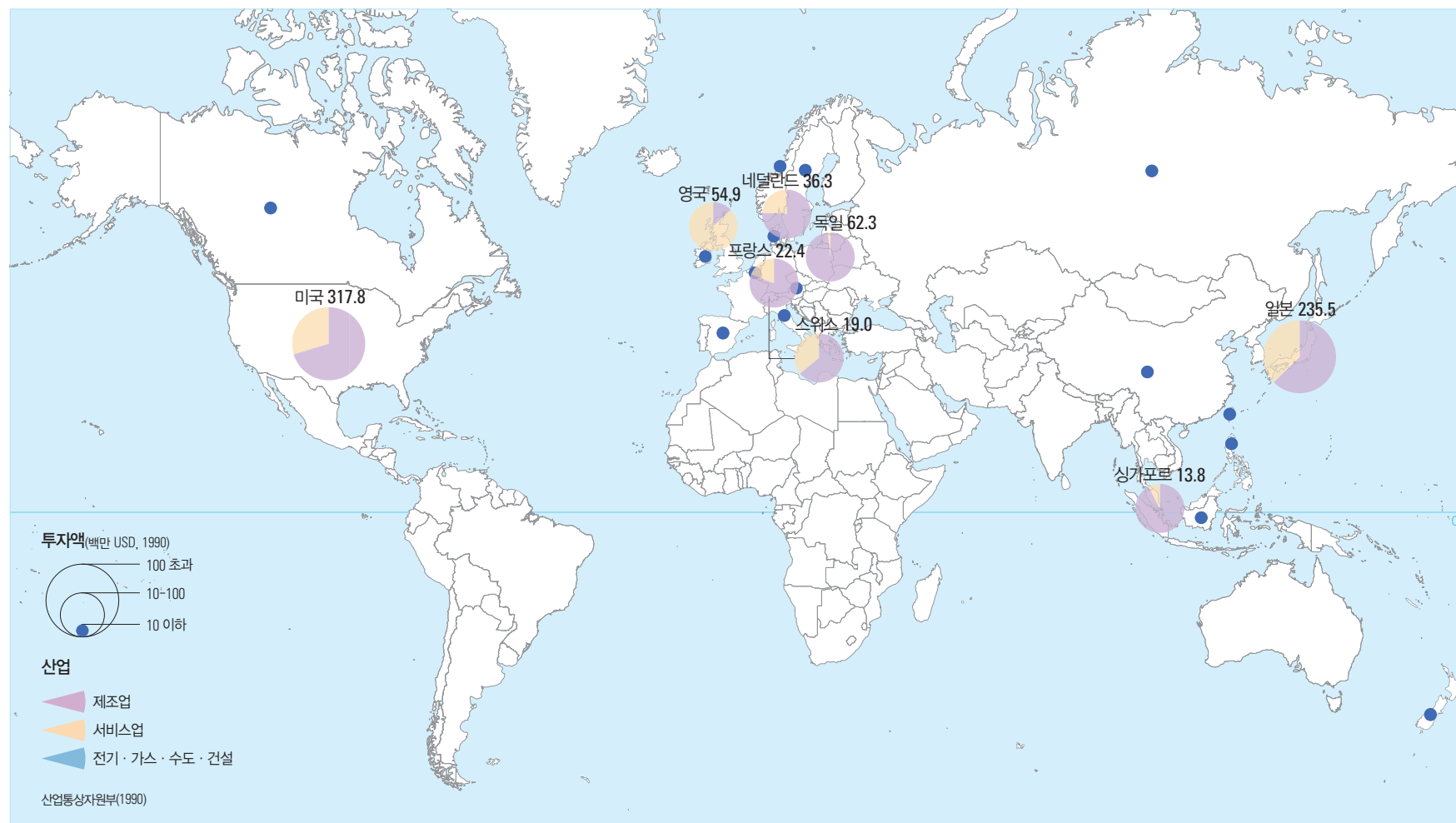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2013년까지 57개국에 136.7억 USD를 투자하였으며, 1986년에 투자가 처음 이루어진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완만히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에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본 업종의 투자액은 1990년 1.1억 USD에서 1998년 8.0억 USD로 증가하였지만, 2001년 0.4억 USD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14.1억 USD를 기록하였다. 한편, 본 업종의 해외 직접 투자는 중국(37.0%, 홍콩 포함)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인도(11.5%), 체코(7.8%), 미국(6.8%), 슬로바키아(6.0%), 브라질(5.4%)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해외 직접 투자 동향



외국인 직접 투자

산업별 외국인 직접 투자액(19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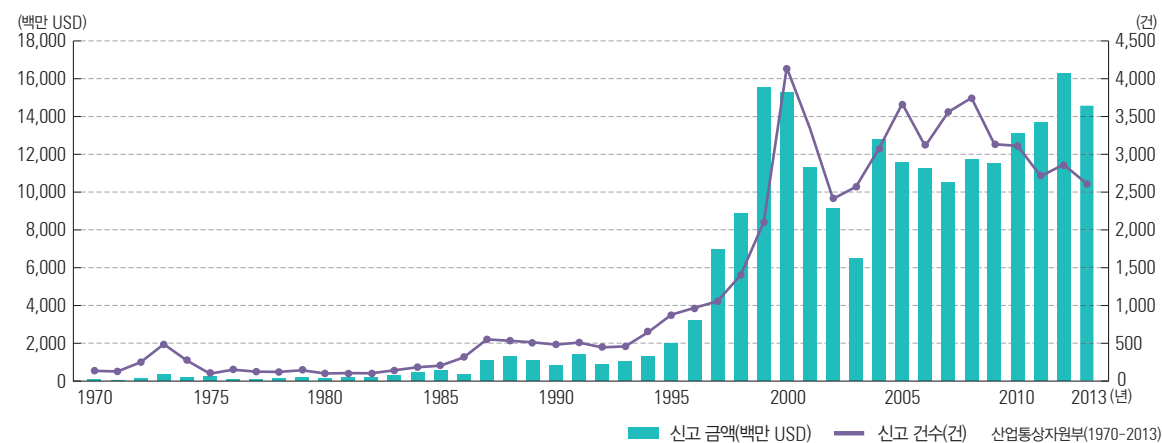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1980년대에 기반이 조성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8년 9월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출범시켰고, 신고 수리제를 단순 신고제로 전환하였으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더 나아가 2010년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개정하여 지자체 및 관련 중앙 행정 기관이 모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국가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FTA 효과 등 투자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승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0년 8억 USD(신고 금액 기준)에 불과하던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2013년 145.5억 USD로 급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국가는 1990년 26개국에서 2013년 78개국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2013)에 따르면,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지수는 2008년 23위에서 2012년 8위로 상승하였으며, AT Kearney의 외국인 직접 투자 신뢰 지수도 2007년 24위에서 2011년 19위로 5단계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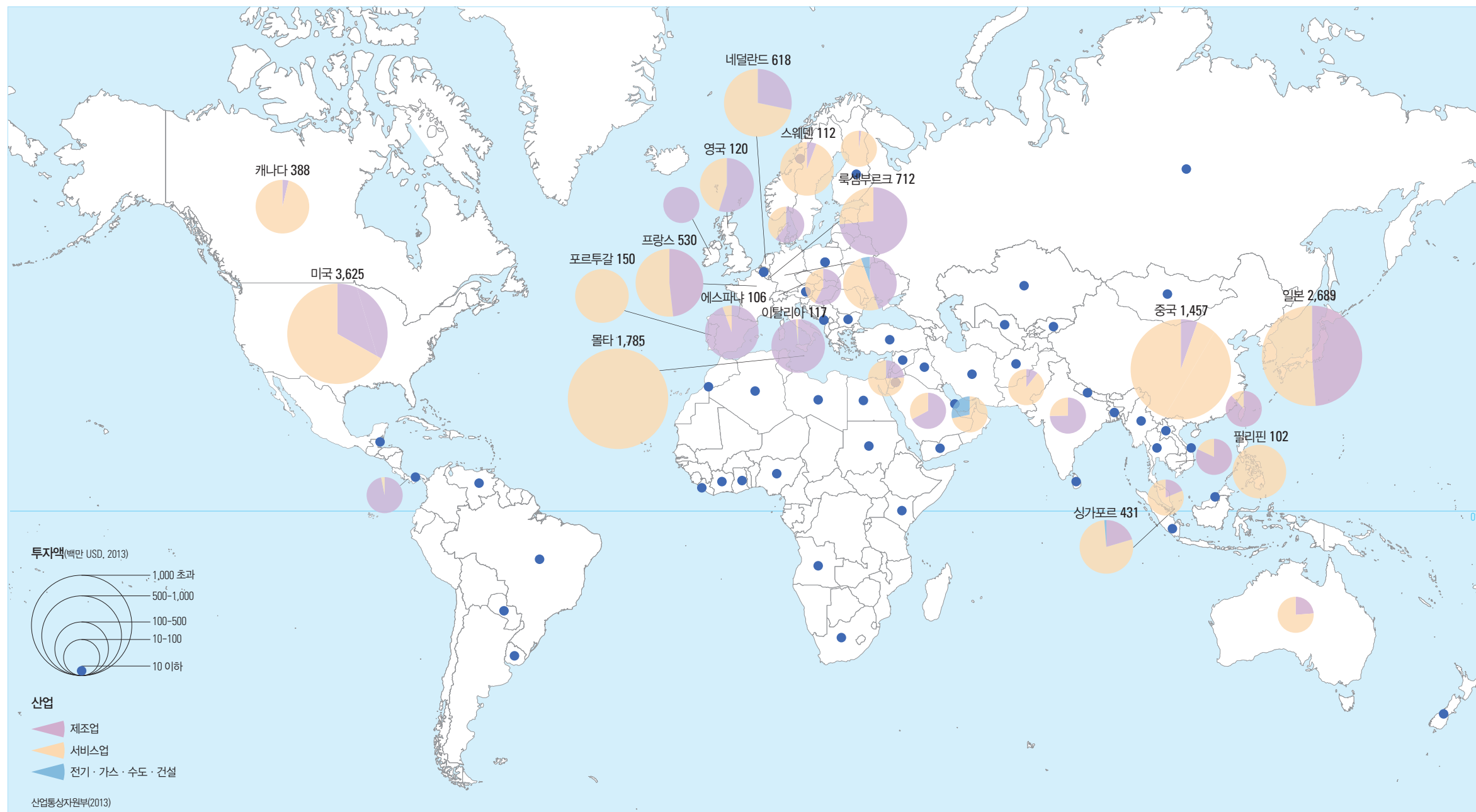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 투자의 특징을 지역 및 업종별로 살펴보면, 1990년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 투자 국가는 미국(39.8%)과 일본(29.5%)이 지배적이었으나, 2013년에는 유럽과 중국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각각 36.2억 USD(25.9%), 26.9억 USD(12.8%)로 전체의 43.7%로 감소하였으며, 유럽,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는 각각 48.7억 USD(30.8%), 14.6억 USD(10.4%)로 전체의 41.2%로 크게 증가하였

다. 또한 1990년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 투자 업종은 영국, 캐나다, 덴마크 등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이 지배적이었지만, 2013년에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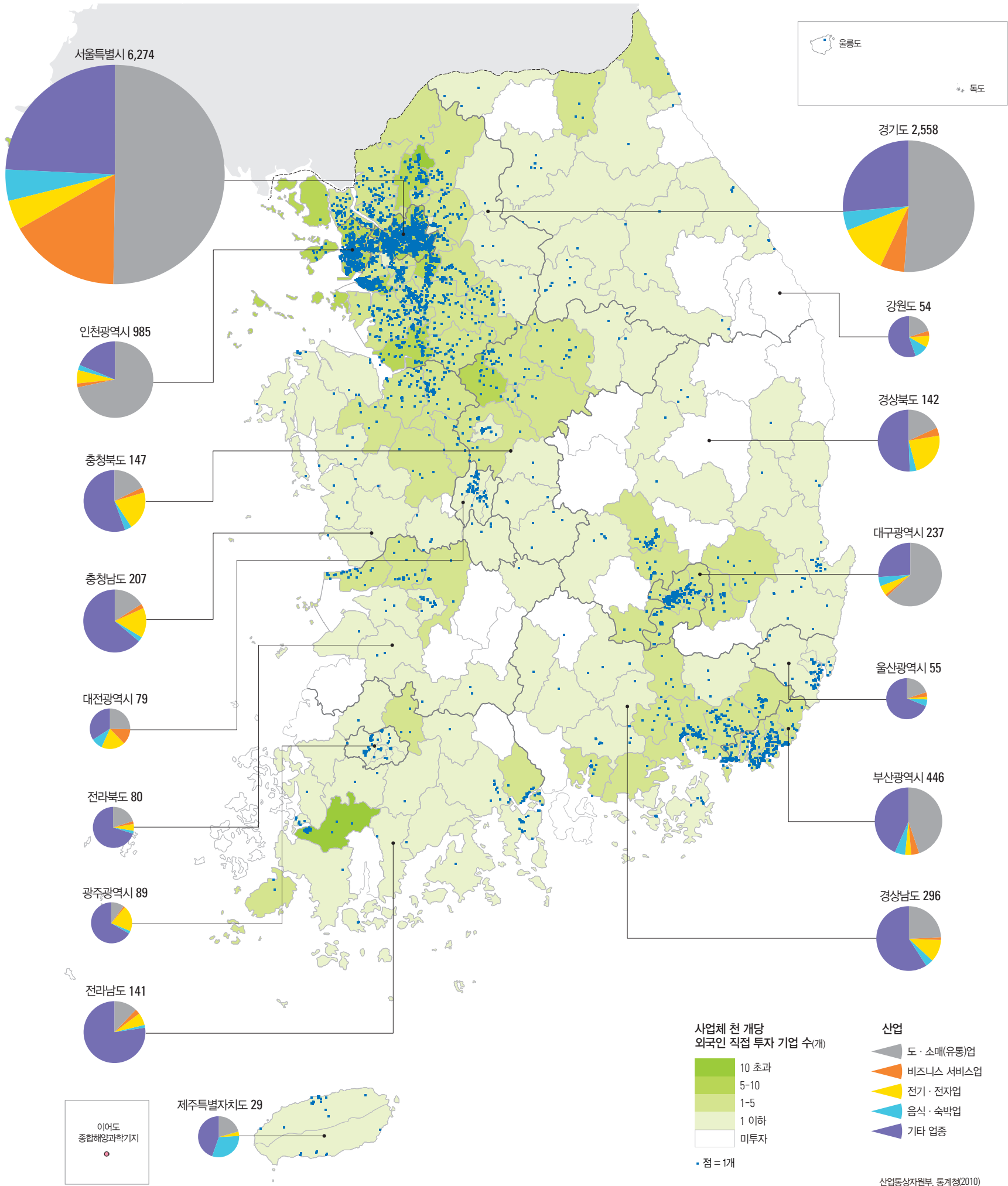
외국인 직접 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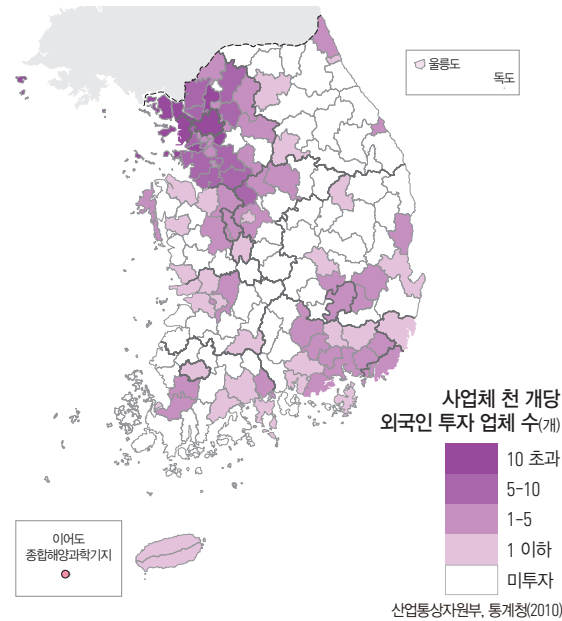
산업별 외국인 직접 투자액(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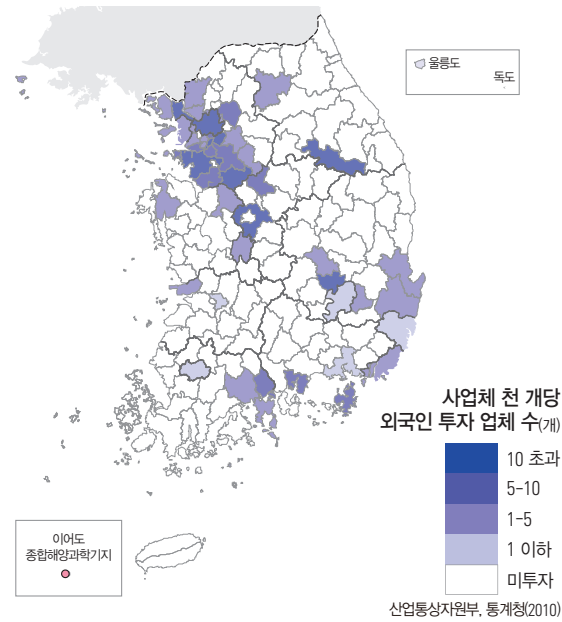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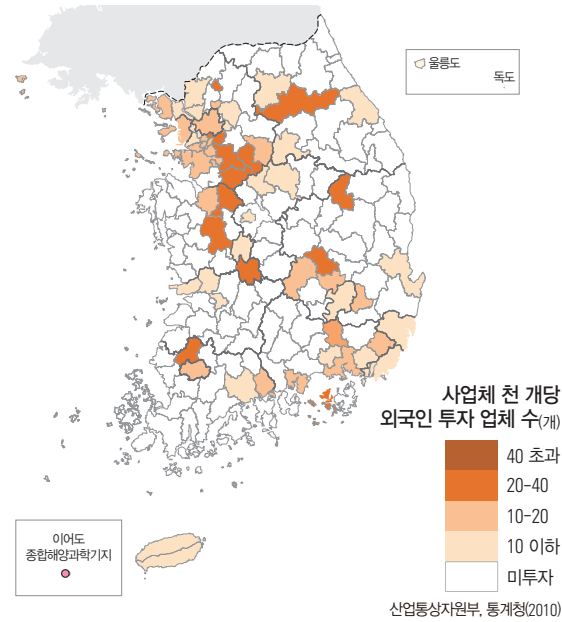
도·소매(유통)업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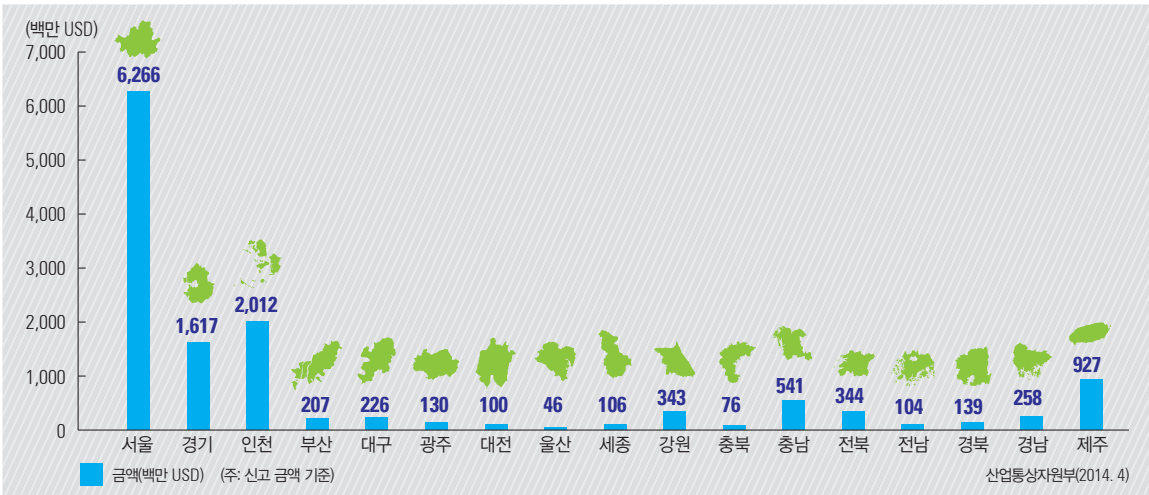
비즈니스 서비스업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 분포



전기·전자업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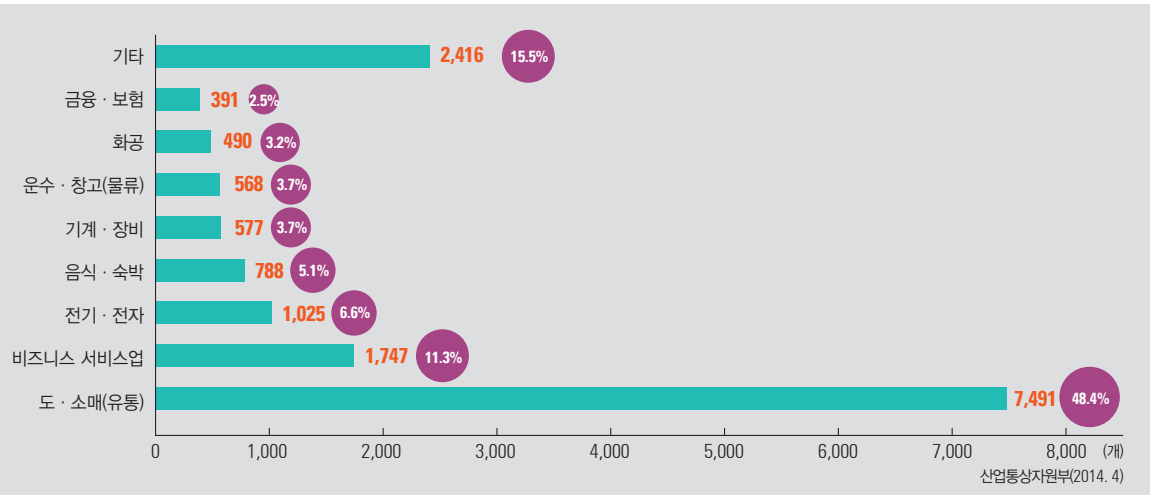
지역별 외국인 직접 투자 현황(2013년)



2013년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 투자(신고 금액 기준)는 145.5억 USD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98.95억 USD(68%)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집중되어 있다. 광역시·도별로는 서울특별시 62.66억 USD(43.1%),

인천광역시 20.12억 USD(13.8%), 경기도 16.17억 USD(11.1%), 제주도 9.27억 USD(6.4%) 순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루어졌다.

업종별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 현황(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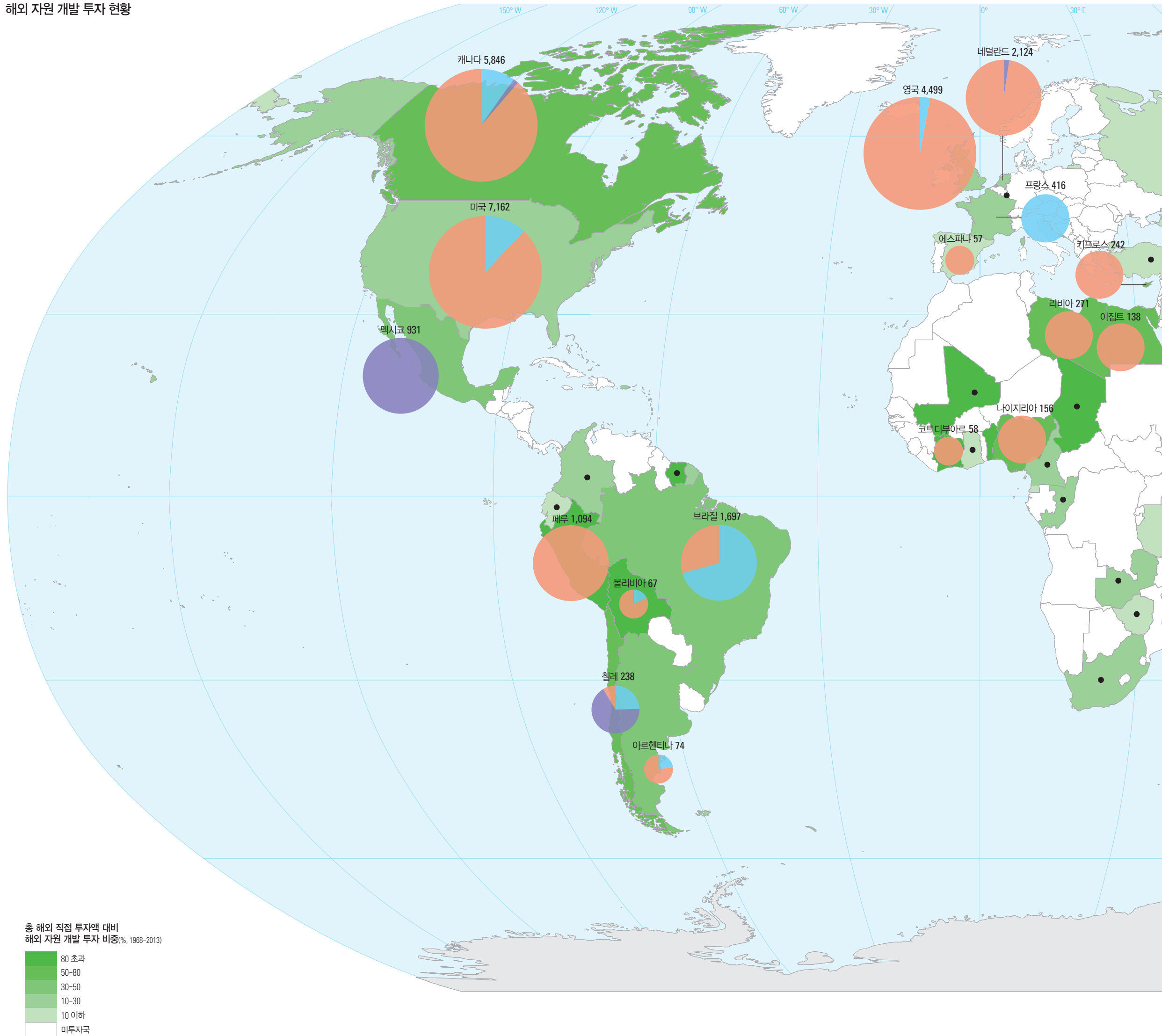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 기업 정보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 15,493개의 외국인 투자 기업이 등록되어 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유통)업 7,491개 (48.4%), 비즈니스 서비스업 1,747개(11.3%), 전기·전

자업 1,025개(6.6%), 음식·숙박업 788개(5.1%), 기계·장비업 577개(3.7%), 운수·창고(물류)업 568개(3.7%), 화학업 490개(3.2%), 금융·보험업 391개(2.5%) 순의 외국인 투자 기업이 등록되어 있다.

해외 자원 개발

해외 자원 개발 투자 현황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96%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세계 4위의 에너지 수입국이다. 최근 글로벌 자원 민족주의 확산, 자원 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등 대내외 환경 악화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공급의 변화와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해외 자원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게 되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국지적 자원 공급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원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국제 수지 악화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1977년 최초의 해외 자원 개발 이후 정부는 급격히 변화하는 자원 개발 환경에 대응

하기 위해 지난 37년 간 해외 자원 개발 투자를 주도하여 최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는 200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 처음으로 10억 USD 이상 투자를 하였다. 2009년 이후 한국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3년 현재 해외 자원 개발 투자액은 59.9억 USD로 1990년에 비해 약 50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 해외 투자 중 해외 자원 개발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7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2007년 우리나라 해외 자원 개발 비중은 8.8%에서 2012년 27.8%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비록 1980년대 초반 및 중반에 해외 자원 개발 비중이 50% 이상 차지했지만, 이는 제조업과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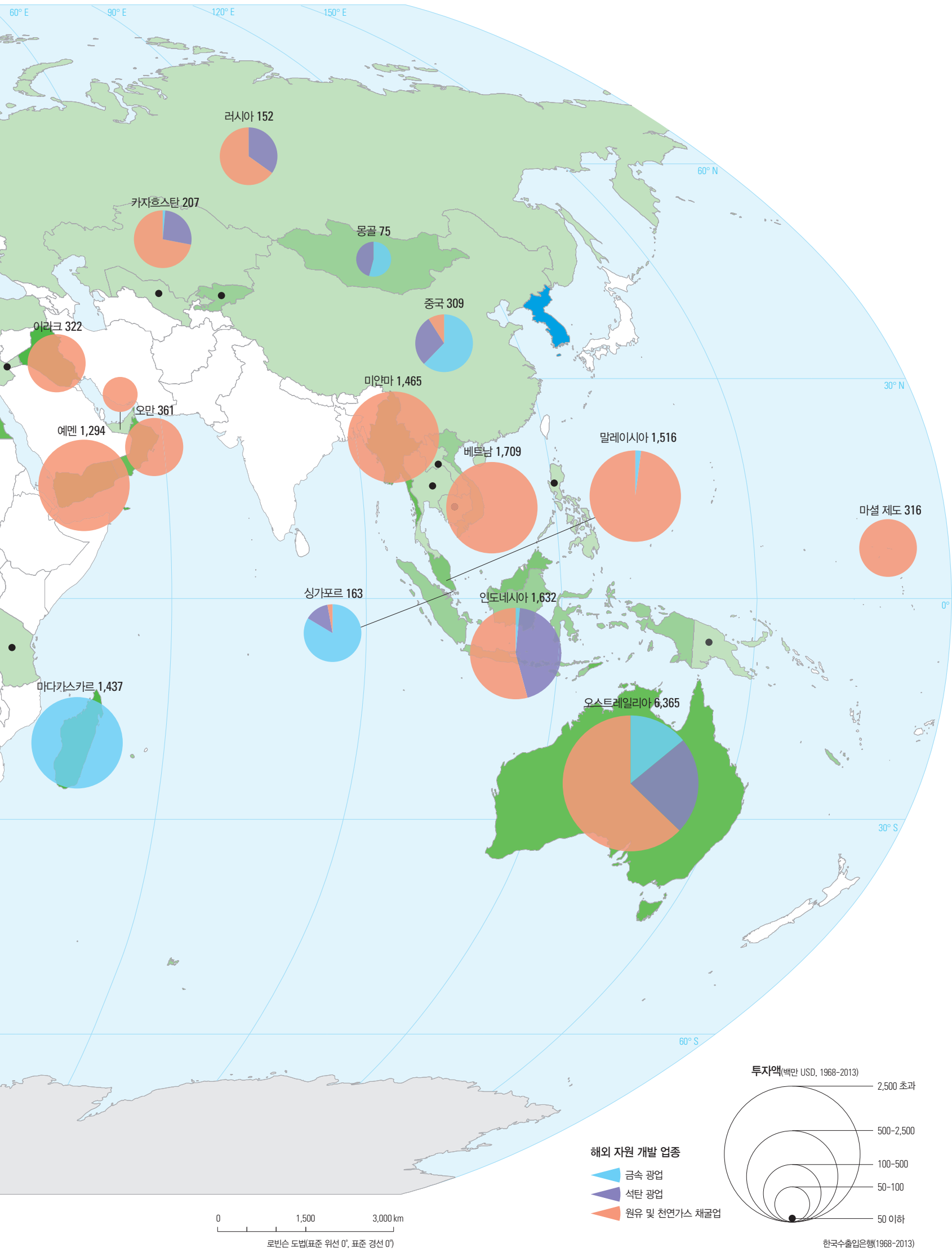
업 부문에서의 한국 해외 직접 투자가 아주 낮게 발생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를 자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원유 및 천연가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지만, 최근 들어 석탄, 비철금속, 철광석 등 광물 자원에 대한 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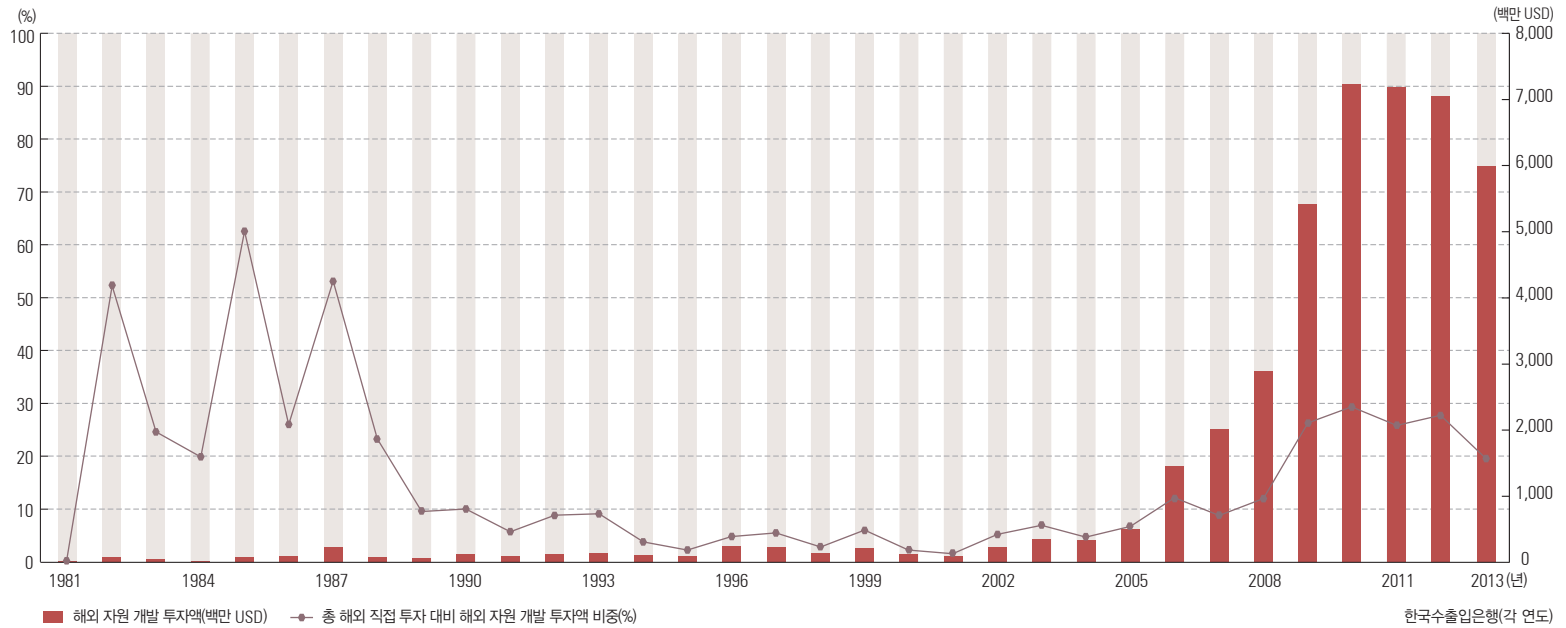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원유 및 천연가스 부문의 투자액은 40.8억 USD로 20여 년 간 크게 증가했지만, 2003년 이후 해외 자원 개발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원유·천연가스 부문의 투자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원유 및 천연가스 부문의 투자 비중은 2003년 96.9%에서 2013년 현재 68.1%로 감소한

반면, 금속 광업 부문의 투자는 0.9%에서 22.1%, 석탄 광업 부문의 투자는 2.2%에서 9.8%로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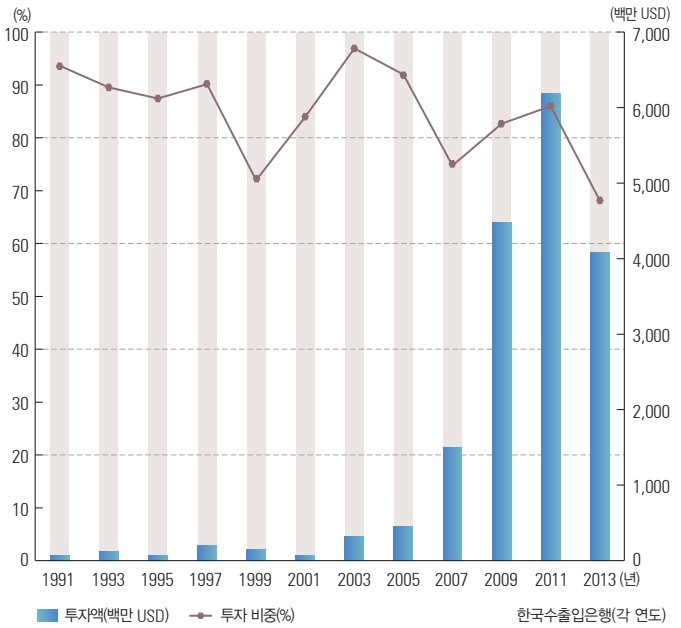
최근 한국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가 급증하면서 자원에 대한 자주 개발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자주 개발률은 소비량(또는 수입량) 중 '국내외에서 국내 기업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지분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원유 및 천연가스의 자주 개발률은 2002년 2.8%에서 2012년 13.8%로 증가하였다. 특히, 유연탄의 자주 개발률은 2002년 24.2%에서 2012년 57.7%로 급증하였다. 또한 주요 광물 자원인 철도 2003년 0.8%에서 2012년 14.5%로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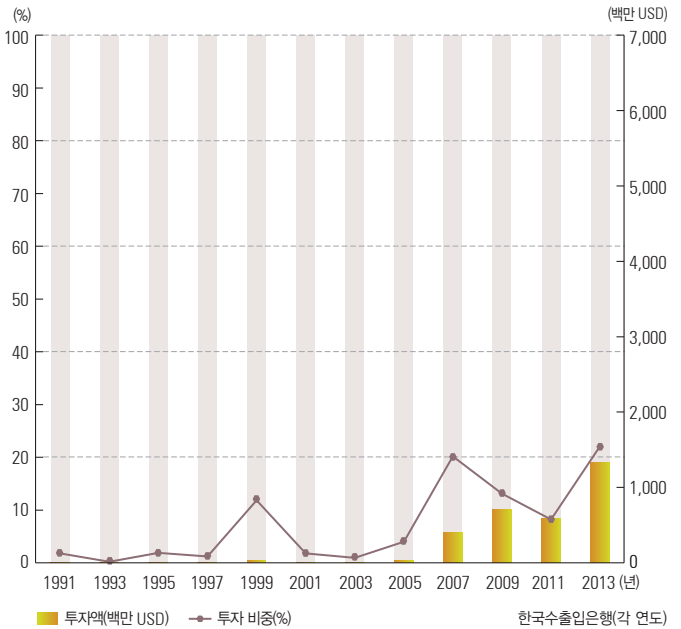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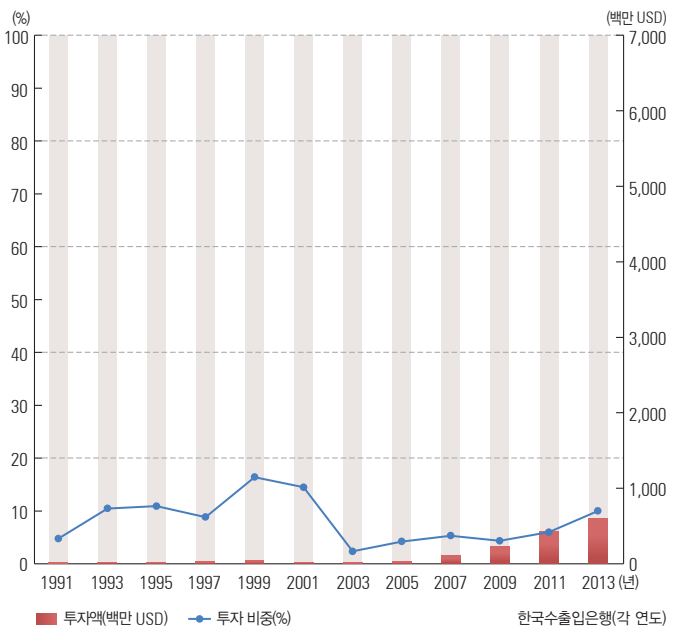
원유 및 천연가스 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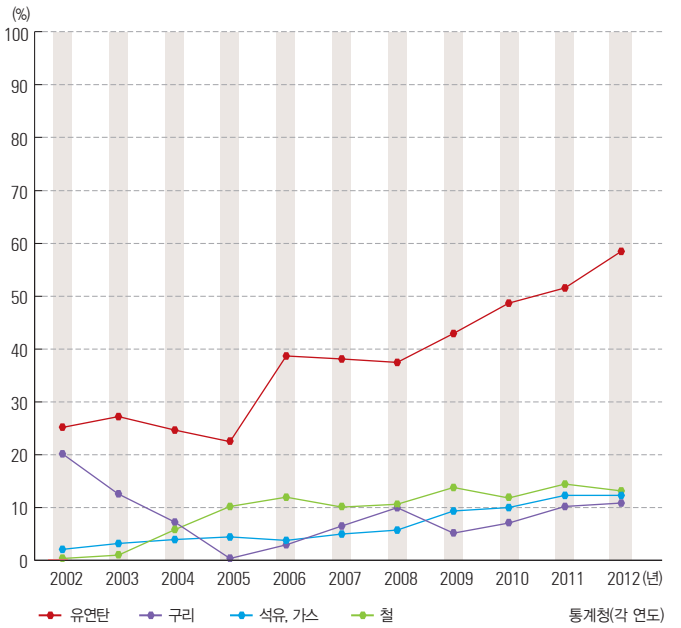
금속 광업 투자 추이



석탄 광업 투자 추이



주요 자원의 자주 개발률 변화



연구와 탐험

극지와 해양에 대한 연구와 탐험은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 영공의 한계를 넘어,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지구상 공동의 영역에 대한민국 과학 영토, 자원 영토를 확장하는 도전의 과정이다. 그리고 영토와 자원 확보의 국가 간 경쟁을 넘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연구와 기술 역량을 발휘하여 전 지구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기후 변화와 지구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협력의 과정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극지 연구와 탐험은 1988년 상주 과학 기지인 남극 세종과학기지 건설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남극 세종과학기지 건설 이후 대한민국은 기지 주변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와 탐험 활동을 수행하여 왔으며, 2014년에는 남극 장보고과학기지를 건설하여 보다 남극점에 가까운 남극 대륙으로 연구와 탐험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2009년부터 기지와 기지 주변의 측량 및 지도 제작을 수행하며 지리 정보를 구축하기 시작

하였고, 2011년 17개, 2012년 10개, 총 27개의 남극 고유 지명을 남극 지명사전(CGA: Composite Gazetteer of Antarctica)에 등록하였다. 북극에 대한 연구와 탐험은 2002년 북극 다산과학기지 건설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북극 이사회에서 정식(permanent) 옵서버 자격을 얻어 북극 항로와 자원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9년에는 국내 최초의 극지 연구용 쇄빙선인 아라온 호가 건조

되어 항해를 시작하였다. 아라온 호는 남·북극 결빙 해역에서의 독자적인 극지 연구를 수행하고, 항로를 개척하며, 남·북극 과학기지에 대한 보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아라온 호가 수집한 해저 지형 자료를 활용하여 2013년에는 ‘돌고래 해저구릉군’과 ‘꽃신 해저 놀’이라는 우리말 남극 해저 지명 2건을 국제 수로 기구(IHO)에 등록하였고, 2014년에는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주변 해역의 잠정판 해도를 제작·발간하였다.

아라온 호 남극 항해 경로



아라온 호 북극 항해 경로



아라온 호



북극 다산과학기지 기지촌



북극 다산과학기지

북극 다산과학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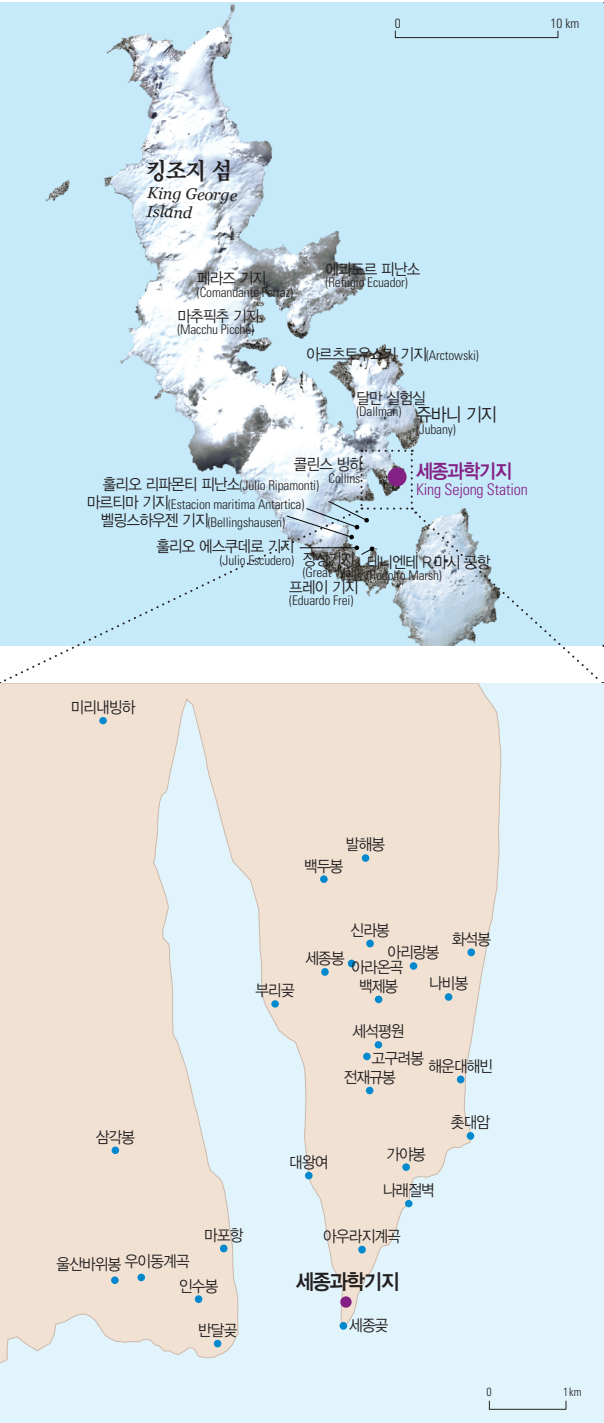
북극 다산과학기지 세부 지도



55분, 동경 11도 56분이다. 북극 다산과학기지는 북극의 환경과 자원 연구를 위하여 개설하였으며, 북극권 동토층 관측과 측정,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기체의 순환 및 대기 중 미세 입자 분석, 북극권 토양 환경 및 생태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2년 4월 29일 북극 다산과학기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북극 다산과학기지의 개설로 대한민국은 세계 8번째로 남극과 북극에 모두 과학 기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되었다. 북극 다산과학기지는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군도(Svalbard Islands)의 스피츠베르겐 섬(Spitsbergen Island)의 니알슨(Ny-Alesund)에 위치하고 있다. 경위도 좌표상의 위치는 북위 78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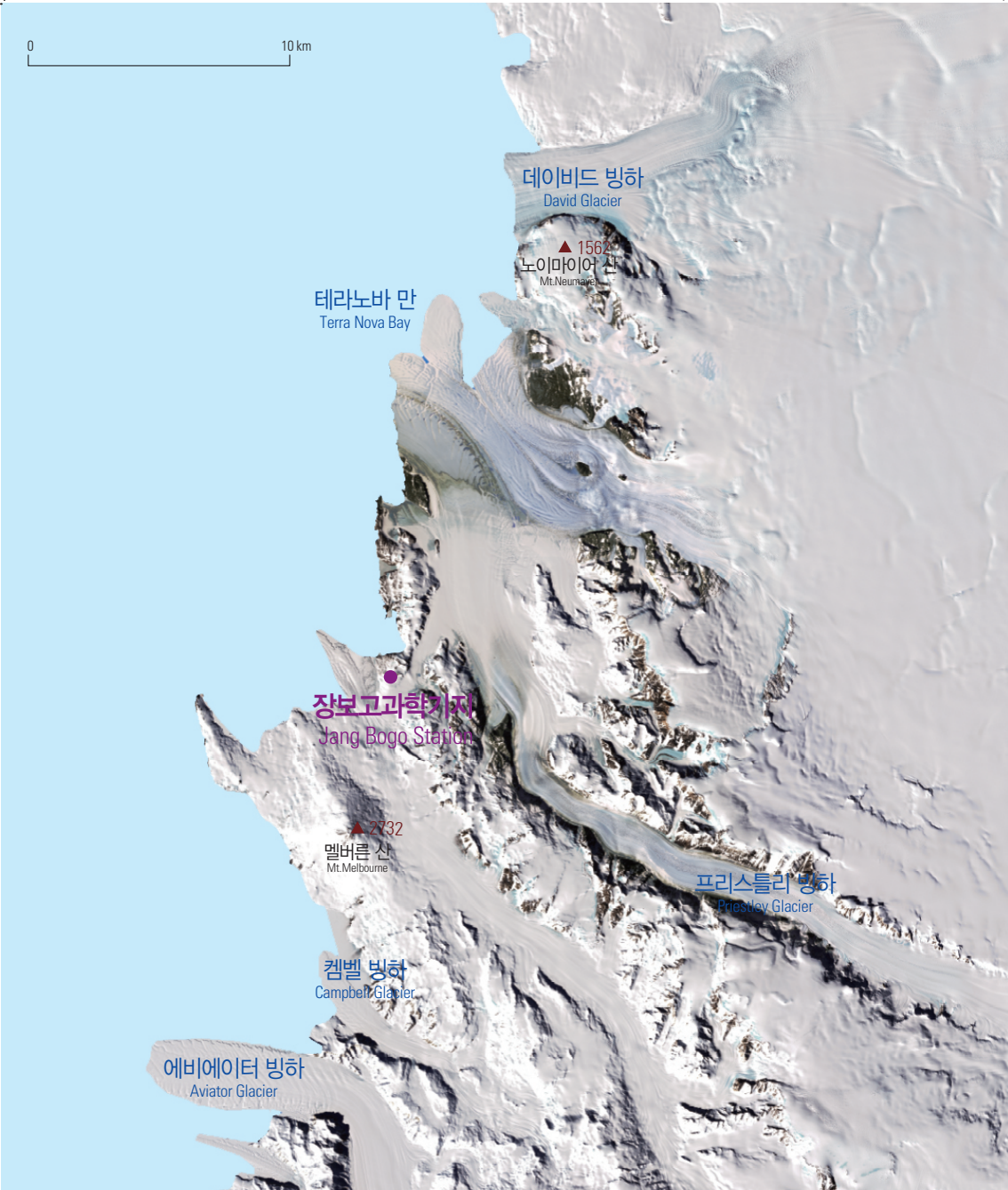
남극 세종과학기지



각국의 남극 기지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남극 세종과학기지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우리나라는 남극에 남극 세종과학기지과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두 개의 과학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남극 세종과학기지는 1988년 2월 17일에, 남극 장보고과학기지는 2014년 2월 12일에 준공되었다. 대한민국은 남극 세종과학기지의 건설로 남극에 상주 기지를 보유한 18번째 국가가 되었고,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의 건설로 북극의 상주 기지를 보유한 10번째 국가가 되었다. 남극 세종과학기지는 남셰틀랜드 군도(South Shetland Islands)의 킹조지 섬(King George Island)에 입지하고 있으며, 경위도 좌표상의 위치는 남위 62도 13분, 서경 58도 47분이다. 킹조지 섬에는 12개국 13개 남극 기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주 기지는 8개국 9개 기지가 운영되고

있다. 남극 장보고과학기지는 남극 대륙 동남부의 북빅토리아랜드(Northern Victoria Land) 테라노바 만(Terra Nova Bay)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위도 좌표상의 위치는 남위 74도 37.4분, 동경 164도 13.7분이다. 우리나라는 남극 장보고과학기지가 건설되기 이전까지 남극의 북부에 해당하는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과 주위 섬들에 대하여 대기과 지질, 해양, 생물 등 극지 환경과 기후 변화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의 건설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남극에 대한 연구의 범위를 남극 대륙의 대기과 지질, 해양, 생물, 고기후, 고환경, 운석 탐사 등으로 확장하게 되었다.

세계 유산

세계 유산이란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유산을 의미한다. 세계 유산에는 문화유산, 자연 유산, 복합 유산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13건의 세계 유산이 있는데, 이 가운데 문화유산이 12건, 자연 유산이 1건이다.

우리나라의 세계 유산은 수도권(5건)과 경상북도(3건)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1392년 조선이 개국한 이래 600여 년 동안 수도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서울에는 왕릉, 궁궐, 유교 사당 등이 많다. 또한 수원에는 화성이, 광주에는 남한산성이 위치하고 있다.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는 석굴암과 불국사, 경주 역사 유적 지구가 있어 신라의 역사적 자취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역사 마을인 양동 마을도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조선 시대에 화려하게 꽃피었던 양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경상북도 안동에도 한국의 대표적 씨족 마을이면서 양반 마을인 하회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외에도 북한 지역에 2건(고구려 고분군, 개성 역사 유적 지구), 경상남도에도 1건(해인사 장경판전), 전라남·북도과 인천광역시에 1건(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제주특별자치도에 1건(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이 각각 위치하고 있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은 한라산 천연 보호 구역, 거문 오름 용암 동굴계, 성산 일출봉 응회구 3개 지구로 구분된다.

세계 유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덤군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무덤군에는 청동기 시대의 지석묘군, 고구려 시대의 적석총, 신라와 조선 시대의 왕릉이 포함된다. 무덤에는 당대의 세계관과 장례 전통, 제례 전통이 깃들여 있다. 무덤과 더불어 건축물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창덕궁은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건축물과 조경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목조 건물인 해인사 장경판전은 실내의 통풍, 방습, 온도 등을 적절히 유지하여 대장경판을 현재까지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다. 역사 유적 지구는 신라 시대와 고려 시대의 수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각 시대를 대표하는 뛰어난 건축물과 기념물, 유적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곽은 경기도의 동쪽과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남한산성과 수원 화성은 북쪽의 개성, 서쪽의 강화와 함께 네 방위에서 왕도를 방위하던 성으로서의 역사적 의의와 함께 축성술의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의 전통을 간직한 역사 마을과 종묘 같은 건축물이 있다. 역사 마을인 하회 마을과 양동 마을에는 현재도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조선 시대의 사회적 구조와 유교적인 전통이 잘 반영되어 있다. 종묘에는 건축물의 예술적 가치와 함께 왕가를 기리는 의례와 음악, 무용 등의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 자연 유산으로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이 있다.

세계 유산과 등재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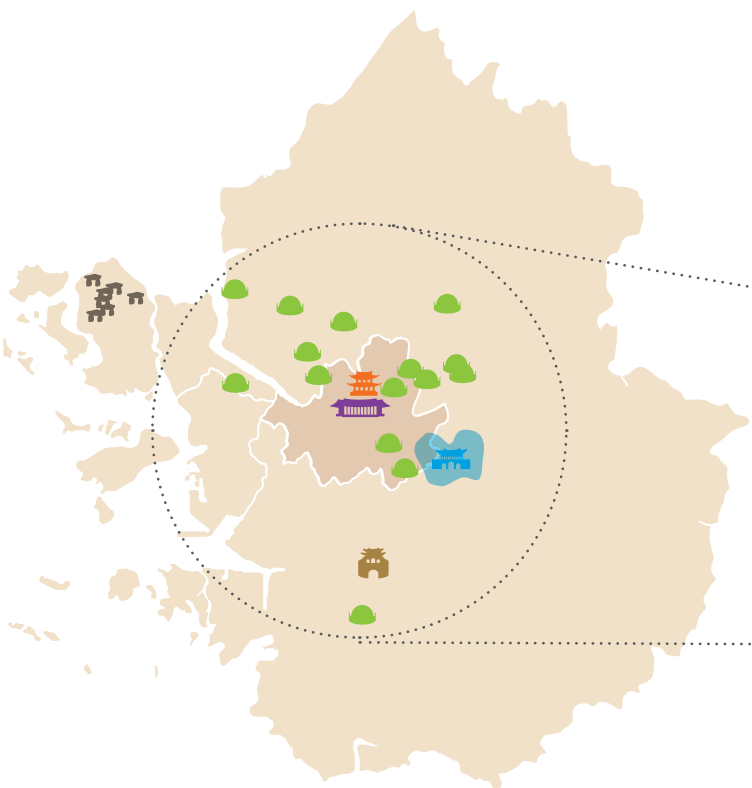
등재 연도	세계 유산	인류 무형 문화유산	세계 기록 유산
1995	① 해인사 장경판전 ② 석굴암과 불국사 ③ 종묘		
1997	④ 창덕궁 ⑤ 수원화성		① 훈민정음 ② 조선왕조실록
2000	⑥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⑦ 경주 역사 유적 지구		
2001		①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례악	③ 직지심체요절 ④ 승정원일기
2003		② 판소리	
2004	⑤ 고구려 고분군		
2005		③ 강릉 단오제	
2007	⑤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⑤ 조선왕조 의궤 ⑥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2009	⑩ 조선 왕릉	④ 강강술래 ⑤ 남사당놀이 ⑥ 영산재 ⑦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⑧ 처용무	⑦ 동의보감
2010	⑪ 한국의 역사 마을: 하회·양동	⑨ 가곡 ⑩ 대목장 ⑪ 매사냥	
2011		⑫ 줄타기 ⑬ 택견 ⑭ 한산 모시짜기	⑤ 일성록 ⑤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2012		⑮ 아리랑	
2013	⑫ 개성 역사 유적 지구	⑯ 김장 문화	⑩ 난중일기 ⑪ 새마을 운동 기록물
2014	⑬ 남한산성	⑰ 농악 ⑱ 북한 아리랑 민요	

문화재청(2014)



⑩ 조선 왕릉(2009년 등재, 건원릉)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소재
조선 시대의 왕과 왕비의 무덤이다. 서울 시내(정릉·한인릉·선정릉·태강릉·의릉), 서울 동쪽(동구릉·홍유릉·광릉·사릉·영녕릉), 서울 서쪽(서오릉·서삼릉·온릉·파주 삼릉·파주 장릉·김포 장릉·용건릉), 강원도 영월(정릉)에 나뉘어 있다.

경기도권 세계 유산



- 조선 왕릉
- 수원 화성
- 종묘
- 창덕궁
- 남한산성
- 고인돌



⑥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2000년 등재, 고창 고인돌)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남도 화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청동기 시대의 돌무덤인 고인돌은 세계적으로 한반도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또한 고인돌은 선사 시대 문화상을 파악할 수 있고, 사회 구조, 정치 체계는 물론 당시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선사 시대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유적이다.



⑬ 남한산성(2014년 등재, 성곽 남문)
경기도 광주시 소재
조선 시대의 왕도를 동쪽에서 방위하던 산성이다. 높고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고 있어 방어력에 유리하다. 병자호란 때 청군의 주력 부대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던 곳이다.



④ 창덕궁(1997년 등재, 인정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창덕궁은 태종 5년(1405) 경복궁의 이궁으로 지어진 궁궐로,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선조 40년(1607)에 중건하기 시작하여 광해군 5년(1613)에 재건되었다. 창덕궁은 1610년 광해군 때 정궁으로 사용한 후부터 1868년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까지 258년 동안 역대 제왕이 정사를 보살펴 온 법궁이었다.



⑤ 종묘(1995년 등재, 종묘)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조선 시대 왕가의 조상을 모시는 유교 사당이다. 건축물 배치 원리에 따라 좌청룡에 해당하는 궁궐의 동쪽에 세워졌다. 부속 건축물로는 영녕전, 공신당, 칠사당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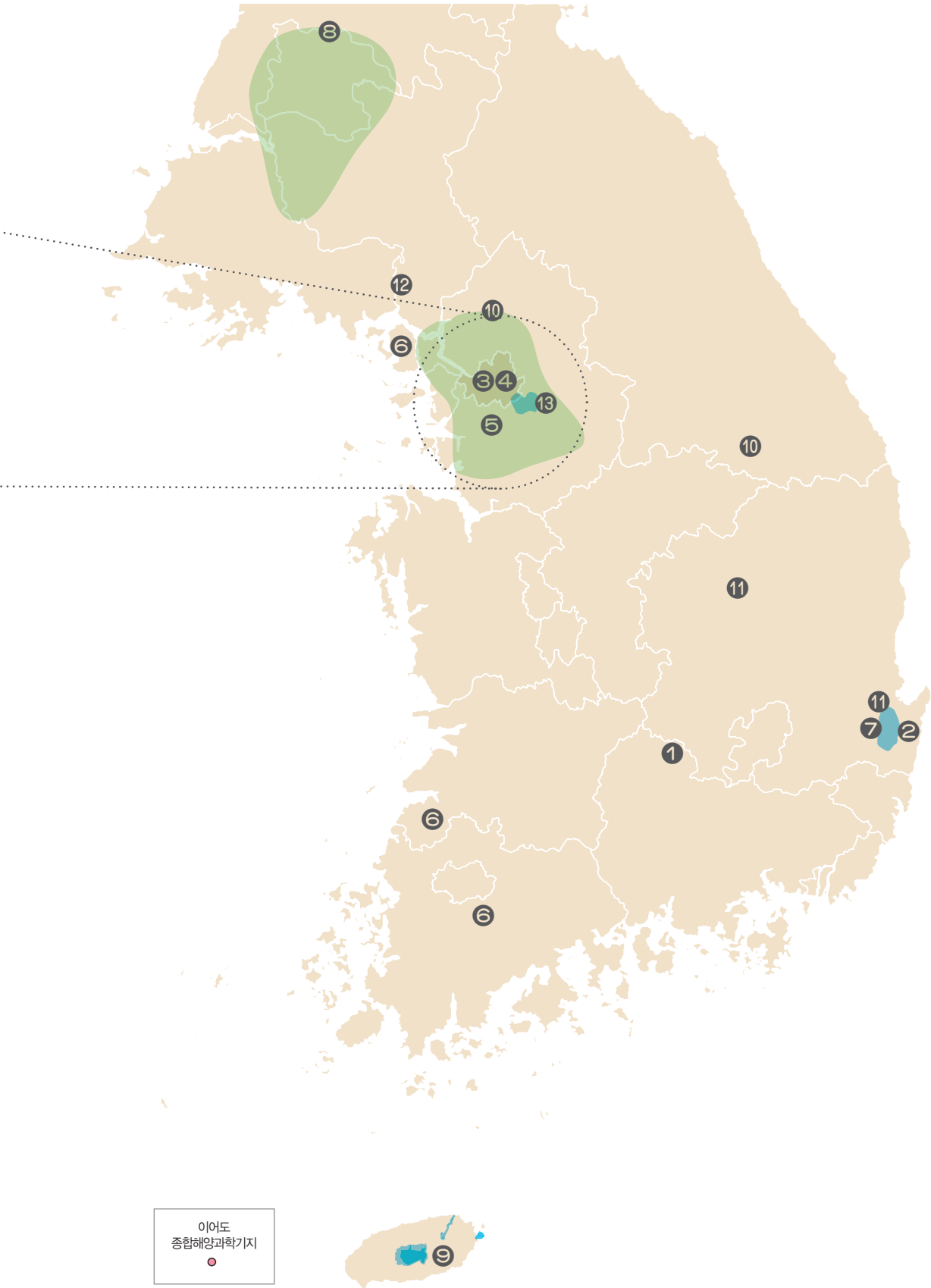


⑫ 개성 역사 유적 지구(2013년 등재, 왕건릉)
황해남도 개성시 소재
개성 역사 유적 지구는 고려 시대의 수도인 개성의 역사적 유적지이다. 이곳에는 개성 성곽, 개성 남대문, 개성 첨성대, 만월대, 고려 성균관, 송양 서원, 선조교, 표충사 및 왕건릉, 공민왕릉, 명릉 등 7개의 능이 분포하고 있다.



③ 고구려 고분군(2004년 등재, 동명왕릉)
평안남도, 평양직할시, 남포특별시, 황해남도 소재
고구려 고분군은 고구려 시대의 무덤군이다. 63기의 무덤이 대동강 하류 양안의 넓은 범위에 걸쳐 8개 고분군을 이루고 있다. 무덤의 양식이 나 내부 벽화에는 고구려인들의 생활상이 함축되어 있다.

세계 유산의 위치



⑨ 한라산 천연 보호 구역(2007년 등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한라산 천연 보호 구역은 화산 활동에 의해 생성된 순상 화산체인 한라산에 지정된 세계 자연 유산이다. 이 구역에 백록담 분화구, 수많은 오름 등 다양한 화산 지형이 분포한다.



⑨ 거문 오름 용암 동굴계(2007년 등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거문 오름 용암 동굴계는 약 30만 년~10만 년 전 거문 오름으로부터 흘러 나온 용암류가 지형 경사를 따라 해안까지 흘러가는 동안 형성된 용암동굴 무리이다. 김녕굴, 만장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뽕뒤굴로 구성되어 있다.



⑤ 수원 화성(1997년 등재, 화서문)
경기도 수원시 소재
정조 때 축성된 평산성이다. 도성 남쪽을 방위하는 기능과 함께 성내의 행궁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동양 철학과 서양 건축 기술이 반영된 대표적 성곽이다.



② 석굴암과 불국사(1995년 등재, 불국사)
경상남도 경주시 소재
불국사는 토함산 서쪽에 위치하고, 동쪽의 석굴암과 쌍을 이루고 있으며, 신라 고도인 경주의 상징적인 건축물이다. 석굴암은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적 열정, 예술혼이 총체적으로 실현된 기념비적인 불상이다.



⑦ 경주 역사 유적 지구(2000년 등재, 안압지 동궁)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경주 역사 유적 지구는 신라 천년의 고도(古都)인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곳은 불교 미술의 보고인 남산 지구, 천년 왕조의 궁궐터인 월성 지구, 신라 왕을 비롯한 고분군 분포 지역인 대능원 지구, 신라 불교의 정수인 황룡사 지구, 왕경 방어 시설의 핵심인 산성 지구로 구분되어 있다.



⑪ 한국의 역사 마을: 하회·양동(2010년 등재, 하회 마을)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마을 이름을 하회(河回)라 한 것은 낙동강이 'S'자 모양으로 마을을 감싸 안고 흐르는 데서 유래되었다. 풍산 류씨가 주류를 이루어 살고 있는 이 마을은 양반과 서민의 생활이 공존하고 있으며, 민족적 전통과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다.



⑪ 한국의 역사 마을: 하회·양동(2010년 등재, 양동 마을)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양동 마을은 월성 손 씨와 여강 이 씨의 두 가문에 의해 형성된 유서 깊은 양반 마을이다.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수백 년 된 기와집과 나지막한 돌 담장이 이어지며, 전통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마을 전체가 중요 민속 자료로 지정되었다.



⑨ 성산 일출봉 응화구(2007년 등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성산 일출봉(해발 180m)은 약 5천 년 전 앞은 바다에서 일어난 수성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응화구이다. 이는 지하에서 올라온 마그마와 물이 만나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분출된 화산재가 쌓여 형성되었다.



① 해인사 장경판전(1995년 등재, 장경판전 외관)
경상남도 합천군 소재
해인사 장경판전은 13세기에 만들어진 세계적 문화유산인 고려대장경판 8만여 장을 보존하는 보고로서, 해인사의 현존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원활한 통풍과 방습, 실내 적정 온도 유지, 판가의 진열 장치 등이 매우 과학적이며, 합리적으로 되어 있어 고려대장경판이 지금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다.



①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례악(2001년 등재, 종묘대제봉행위원회)
종묘 제례와 종묘 제례악은 종묘에서 이루어지는 제향 의식과 제사를 드릴 때 연주하는 기악, 노래, 춤을 말한다.



③ 강릉 단오제(2005년 등재, 강릉 단오제위원회)
단오 전후에 강원도 강릉 지방에서 행하는 마을굿이다. 풍년을 빌고 재앙을 쫓기 위해 서낭신에게 굿을 올리며 각종 민속놀이도 한다.



⑥ 영산재(2009년 등재, 영산재보존회)
영산재는 죽은 사람을 위한 제로, 영혼이 불교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극락왕생하게 하는 의식이다.



⑨ 가곡(2010년 등재, 중요 무형 문화재 제30호)
가곡은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에 곡을 붙여서 관악악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전통 음악이다.



⑫ 줄타기(2011년 등재, 중요 무형 문화재 제58호)
줄타기꾼 줄타기 줄 위를 걸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재주를 보이는 놀이다.



⑮ 아리랑(2012년 등재) **⑮ 북한 아리랑 민요**(2014년 등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로 남한에서는 정선과 진도 아리랑이 유명하고, 북한에서는 평양을 위시한 전역에 구전 아리랑이 존재한다.



② 판소리(2003년 등재, 판소리 기능 보유자)
판소리는 소리꾼이 고수의 장단에 맞춰 창, 말, 몸짓을 섞어가며 구연하는 우리 고유의 민속악이다.



④ 강강술래(2009년 등재, 강강술래보존위원회)
정월 대보름날이나 팔월 한가위에 남부 지방에서 행하는 민속놀이로, 여러 사람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⑦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2009년 등재, 제주 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제주 칠머리당에서 해녀들이 영등할머니에게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비는 의식이다.



⑩ 대목장(2010년 등재, 중요 무형 문화재 제74호)
나무를 다루는 사람을 전통적으로 목장, 목공, 목수라 한다. 또한 궁궐, 사찰, 가옥을 짓고 건축과 관계된 일을 대목(大木)이라 불렀고, 그 일을 하는 장인을 대목장(大木匠)이라 한다.



⑬ 택견(2011년 등재, 중요 무형 문화재 제76호)
유연한 동작으로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자기 몸을 방어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무예이다.



⑬ 김장 문화(2013년 등재)
김장은 겨우내 먹기 위해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일 또는 그렇게 담긴 김치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인류 무형 문화유산은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14년 현재까지 18건이 등재되었다. 인류 무형 문화유산은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의 보편성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학술적 가치가 있다. 인류 무형 문화유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식이나 의례가 4건, 놀이가 4건, 노래가 4건으로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대목장, 매사냥, 줄타기, 택견, 한산 모시짜기, 김장 문화가 각각 1건씩 존재한다.



⑤ 남사당놀이(2009년 등재, 남사당놀이보존회)
남사당놀이는 남사당패가 농촌을 돌며 서민층을 대상으로 연기를 하는 놀이를 말한다.



⑧ 처용무(2009년 등재, 처용무보존회)
처용무는 액운을 쫓기 위한 의식으로, 궁중 무용에서 처용탈을 쓰고 추는 춤을 말한다.



⑪ 매사냥(2010년 등재, 매사냥 기능 보유자)
매사냥은 훈련된 매를 이용하여 꿩이나 작은 짐승을 잡는 행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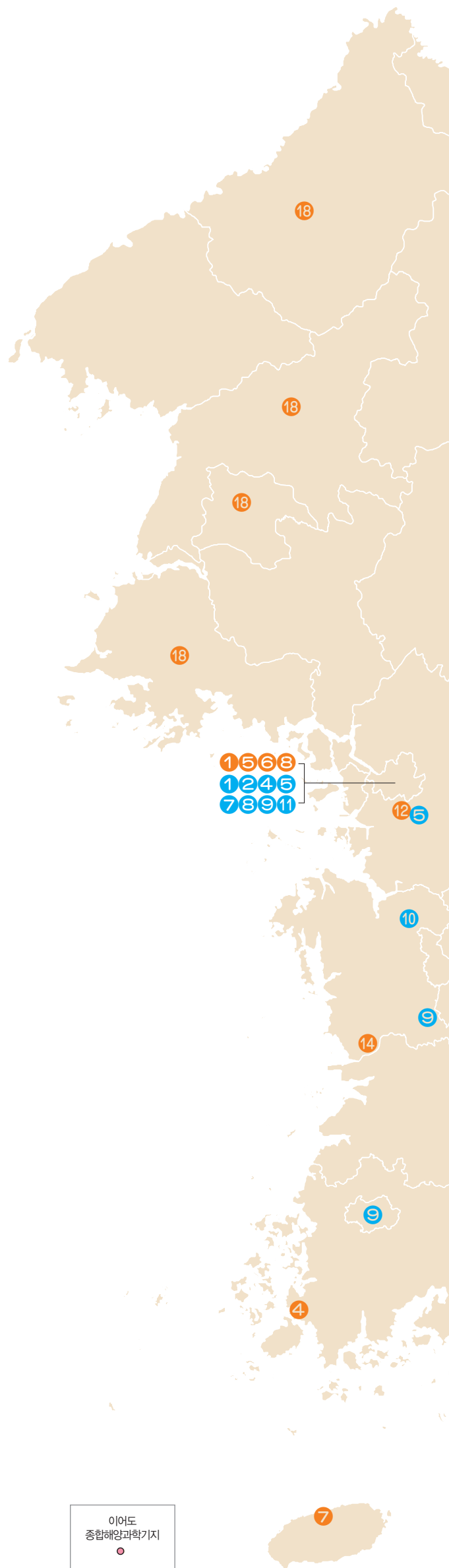


⑭ 한산 모시짜기(2011년 등재, 중요 무형 문화재 제14호)
충남 한산 지역에서 모시실을 재료로 삼아 직물을 짜는 일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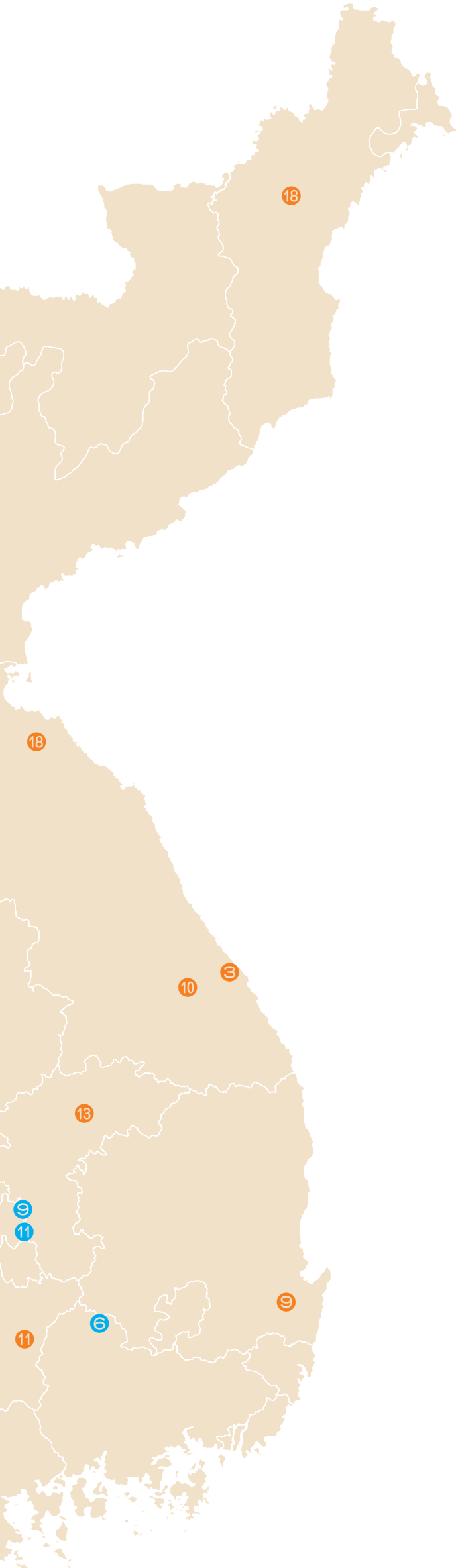
⑰ 농악(2014년 등재)
집단 농사일이나 명절 때 흥을 돋우기 위한, 악기가 곁들여진 춤과 노래이다.

한국 인류 무형 문화유산과 세계 기록 유산의 위치



이러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주1: 지도 위의 번호는 유산의 전수자 또는 보존회 소재지이다.
주2: 세계 유산 명칭 앞에 붙여진 번호는 유산이 등재된 순서이고, 사진의 배열은 번호의 순서에 따랐다.



세계 기록 유산은 유네스코가 고문서 등 전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1997년부터 2년마다 세계적 가치가 있는 기록 유산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세계 기록 유산에는 책, 문서, 편지 등 여러 종류의 유산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세계 기록 유산은 대부분 책이고, 일기와 기록물도 일부 있다. 1997년 처음 2건이 등재된 이래 2년 간격으로 꾸준히 증가해 2014년 현재 11건이 등재되어 있다. 이 등재 건수는 아시아에서 1위, 세계에서는 5위에 해당하여 기록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보여 준다. 이 기록물 가운데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일성록, 난중일기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동의보감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세계 기록 유산 가운데 조선왕조실록,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새마을 운동 기록물은 여러 장소에 분산 보존되어 있다. 그 소장처를 모두 합하면 16곳에 이른다. 직지심체요절은 고종 때 국외로 유출되어 현재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6 조선왕조실록
2007년 지정, 서울시 서울대학교 규장각, 성남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조선 시대 왕실이나 국가 행사의 주요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담아 내고 있는 보고서이다. 조선 시대 600년 생활상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9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2011년 지정, 대전시 국가기록원, 계룡시 육군본부, 광주시 5·18 기념재단, 광주시 광주광역시청 소장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정부나 국회, 시민, 단체, 미국 정부 등에서 생산한 방대한 자료를 포함하는 기록물이다. 5·18 민주화 운동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 기록물에는 민주화 과정에서 실시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1 훈민정음
1997년 지정, 국보 제70호, 서울시 간송미술관 소장
조선 세종 28년(1446)에 훈민정음 28자를 세상에 반포할 때 찍어낸 판각 원본이다. 제작 원리가 과학적이고, 배우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문자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3 직지심체요절
2001년 지정,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고려 공민왕 21년(1372)에 백운화상이 석가모니의 직지인심견성성불의 뜻을 그 중요한 대목만 뽑아 해설한 책으로, 우왕 3년(1377)에 인쇄되었다. 1972년 유네스코 주최 '세계 도서의 해'에 출품되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본으로 공인되었다.



6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諸)경판
2007년 지정, 국보 제32호, 함천군 해인사 소장
대장경은 불교 경전의 총서를 가리킨다. 해인사 대장경판은 고려 시대에 간행되어 '고려대장경'이라고도 하며, 대장경 판수가 8만 여 개에 이르러 '팔만대장경'이라고도 부른다. 오탈자 하나 없이 고르고 정밀하다.



10 난중일기
2013년 지정, 국보 제76호, 아산시 현충사 소장
난중일기는 이순신(1545~1598)이 임진왜란(1592~1598) 기간 중 군중에서 직접 쓴 친필 일기이다. 모두 8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진왜란 시작부터 이순신이 노랑해전에서 전사하기 직전까지 7년의 기간을 망라하여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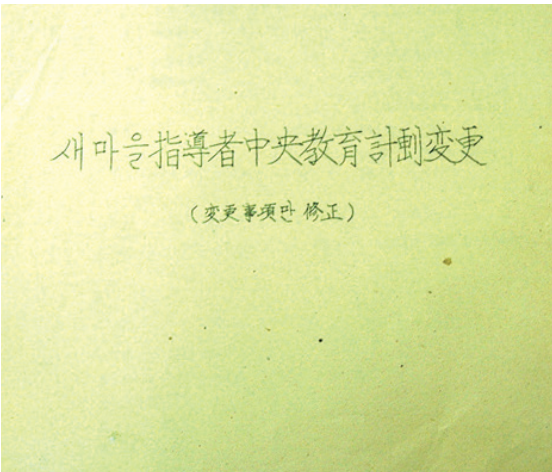
2 조선왕조실록
1997년 지정, 국보 제151호, 서울시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조선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한 책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시대 사회·경제·문화·정치 등 다방면에 걸쳐 기록되어 있어 그 당시 동서양의 정세와 교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4 승정원일기
2001년 지정, 국보 제303호, 서울시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승정원은 조선 시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던 국왕의 비서실이다. 1623년부터 1910년까지 승정원에서 처리한 여러 가지 사건들과 행정 사무, 의례적 사항 등을 기록한 일기이다.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하는 주요 사료로 활용되었다.



7 동의보감
2009년 지정, 보물 제1085호, 서울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선조의 명을 받아 어의 허준(1539~1615)이 집필하여 1610년(광해군 3)에 완성하고 1613년에 간행한 의학 책이다. 일반 백성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집한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서'이다.



11 새마을 운동 기록물
2013년 지정, 대전시 국가기록원, 서울시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장
1970년부터 1979년까지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추진한 새마을 운동 과정에서 생산된 대통령 연설문과 결재 문서로 사진, 영상 등 약 22,000여 건의 자료이다. 새마을 운동은 빈곤 퇴치를 위한 국가 발전의 한 모델이자 민관 협력의 성공적 사례이다.

열린 국토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각종 사회 경제 통계 지표값의 상승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글로벌 시대를 실감할 정도로 다양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밀집 지역의 거주민과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은 더 이상 낮설지 않다. 한편, 국외에서는 문화 콘텐츠 중심의 거센 한류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고 있다. 최근에는 대중음악, 영화, 드라마, 캐릭터 등의 대중문화를 뛰어넘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배우고, 익히고자 하는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유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으

나, 6·25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 들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들어왔으며, 1992년 우리나라와 중국의 공식 수교 이후에는 중국인·한국계 중국인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했다. 한편, 동남아시아 여성 및 중국 동포 여성과 농촌 남성 사이의 혼인도 주요한 외국인 유입의 요인이다. 지금은 이전의 경향과 달리 국제 비즈니스 투자, 유학, 학술 교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출신이 이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온 외국인의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이

후 본격화된 외국인 유입은 다문화 가족이라는 사회 현상으로 이어졌다. 현재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은 약 75만 명 내외인 것으로 추산되며, 중국 및 동남아시아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 취업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이 학교 및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 지원, 대안학교 운영 등을 하고 있다.

일본, 중국, 타이완 등 동아시아에서 가족애를 그린 우리나라 드라마가 호응을 얻으면서 시작된 한류는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이돌 중심의 K-pop, 캐릭터, 영화, 게임 등은 이

미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화장품, 의류, 식료품 등의 공산품 수출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나아가 문화 콘텐츠 중심의 한류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글, 김치, 판소리, 도자기 등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알고, 이해하고,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제 한류는 단순한 문화 콘텐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전통문화와 정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성이 결합된 문화 코드로 통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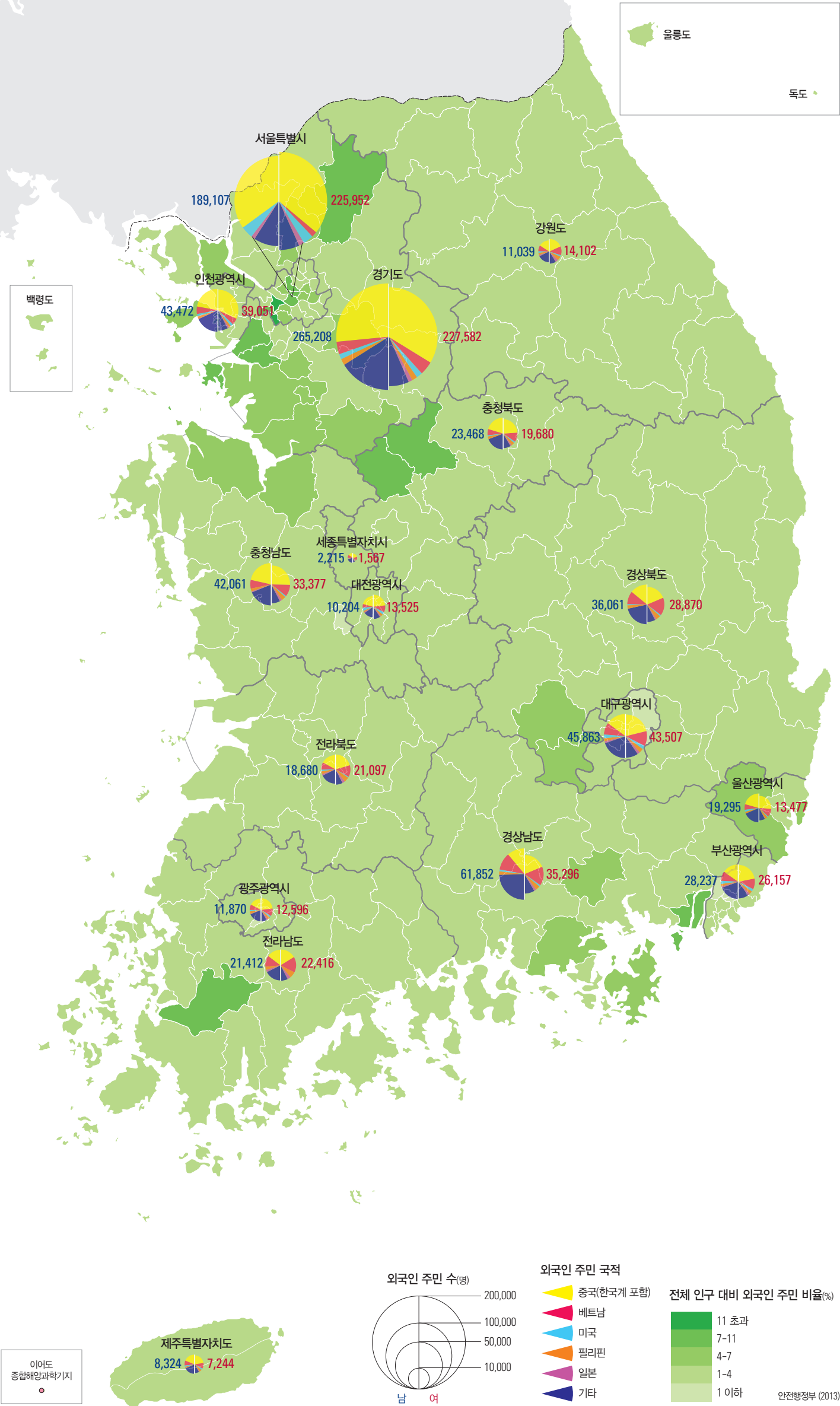
K-pop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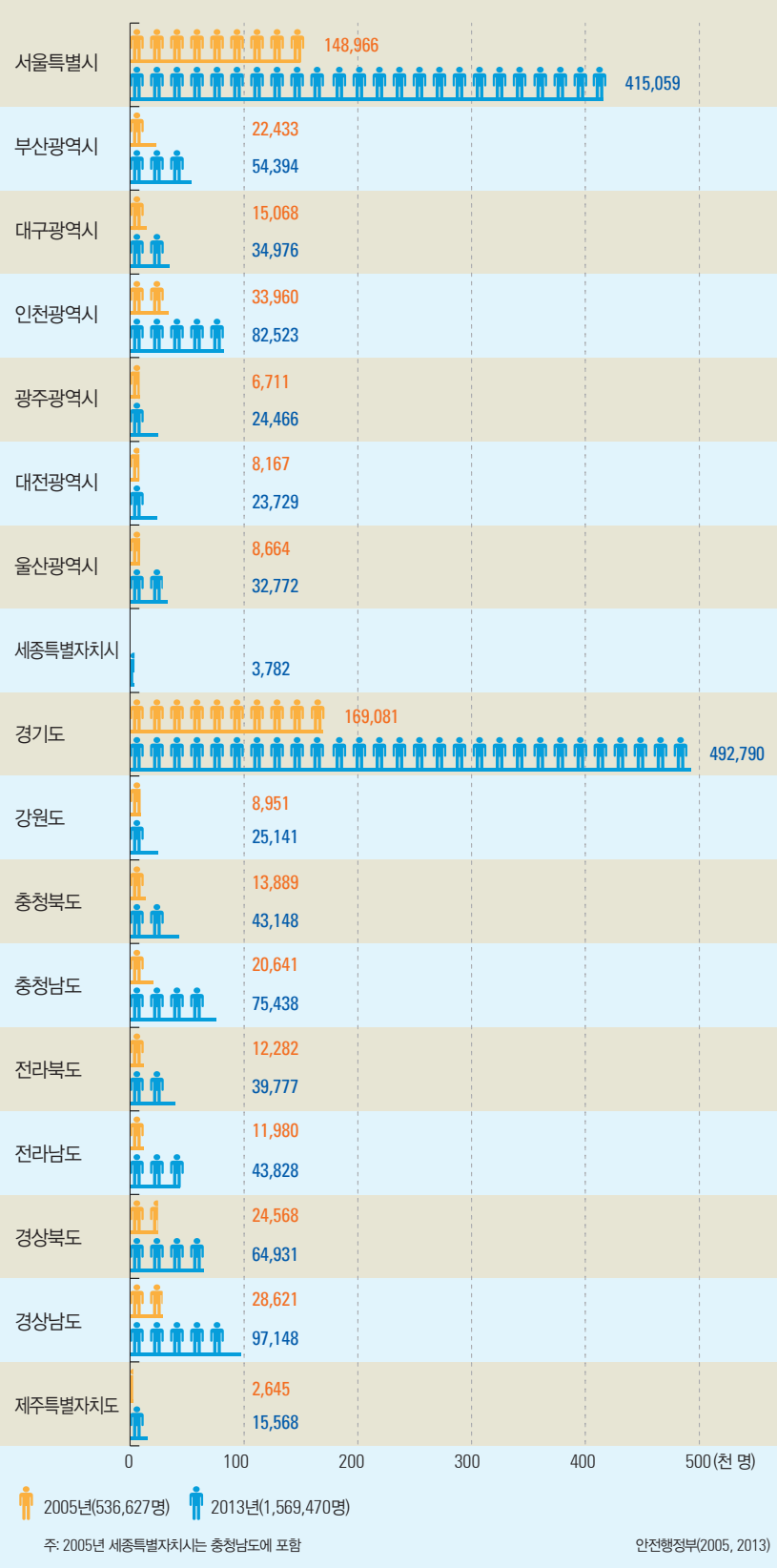
김장 축제

외국인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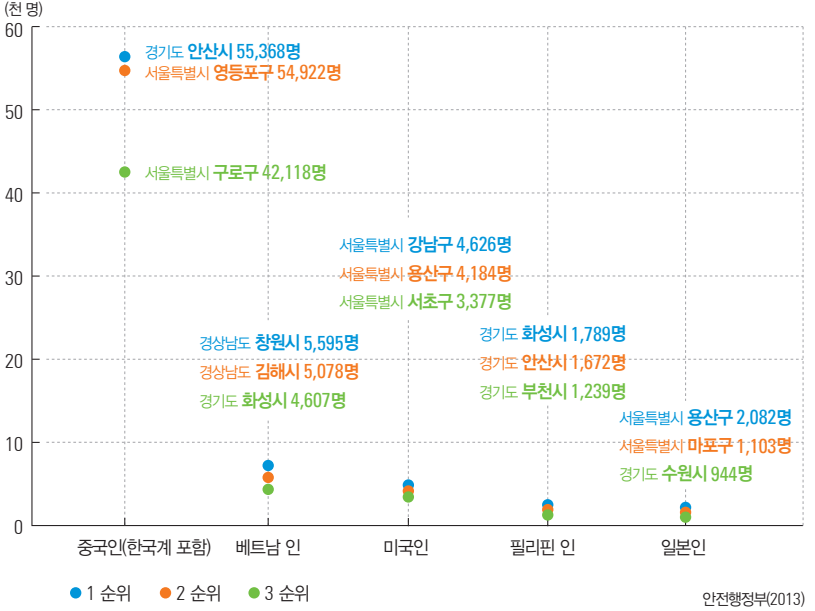
외국인 주민 전국 분포



광역시·도별 외국인 주민 현황



주요 국적별 외국인 주민 밀집 지역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2005년 약 53만 명이었으나, 2013년 현재 약 3배에 달하는 약 157만 명이다. 이는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수 대비 1.1%에서 3.1%로 늘어난 것이다.

절대 다수의 외국인 주민은 물적·인적 교류가 활발한 서울특별시와 우리나라 핵심 제조업체가 분포하고 있는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집중해 있다. 하지만 최근 부산

광역시, 경상남·북도, 충청남도 등에서도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내에서는 용산구, 공장 지대인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등에 다수의 외국인 주민이 분포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 중 남성은 약 81만 명, 여성은 약 76만 명으로 남성의 비중이 높다. 하지만 성비는 국적별로 차이가 있어 중국, 베트남, 필리핀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남

성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미국, 필리핀, 일본 순으로 많지만, 이들의 집중 지역은 다소 상이하다. 국적별 외국인 주민 밀집 지역을 살펴보면 중국인(한국계 포함)은 제조업체가 집중해 있는 경기도 안산시 그리고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구 등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베트남 인은 창원시, 김해시, 화성시 등에서, 필리핀 인은 화성시, 안

산시, 부천시 등에 주로 거주하는데,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주요 구성원이 이들 국가 출신인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미국인은 강남구, 용산구, 서초구 등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용산구에는 많은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다음과 같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2조」에 의거해 정의하고 있다.

1. '다문화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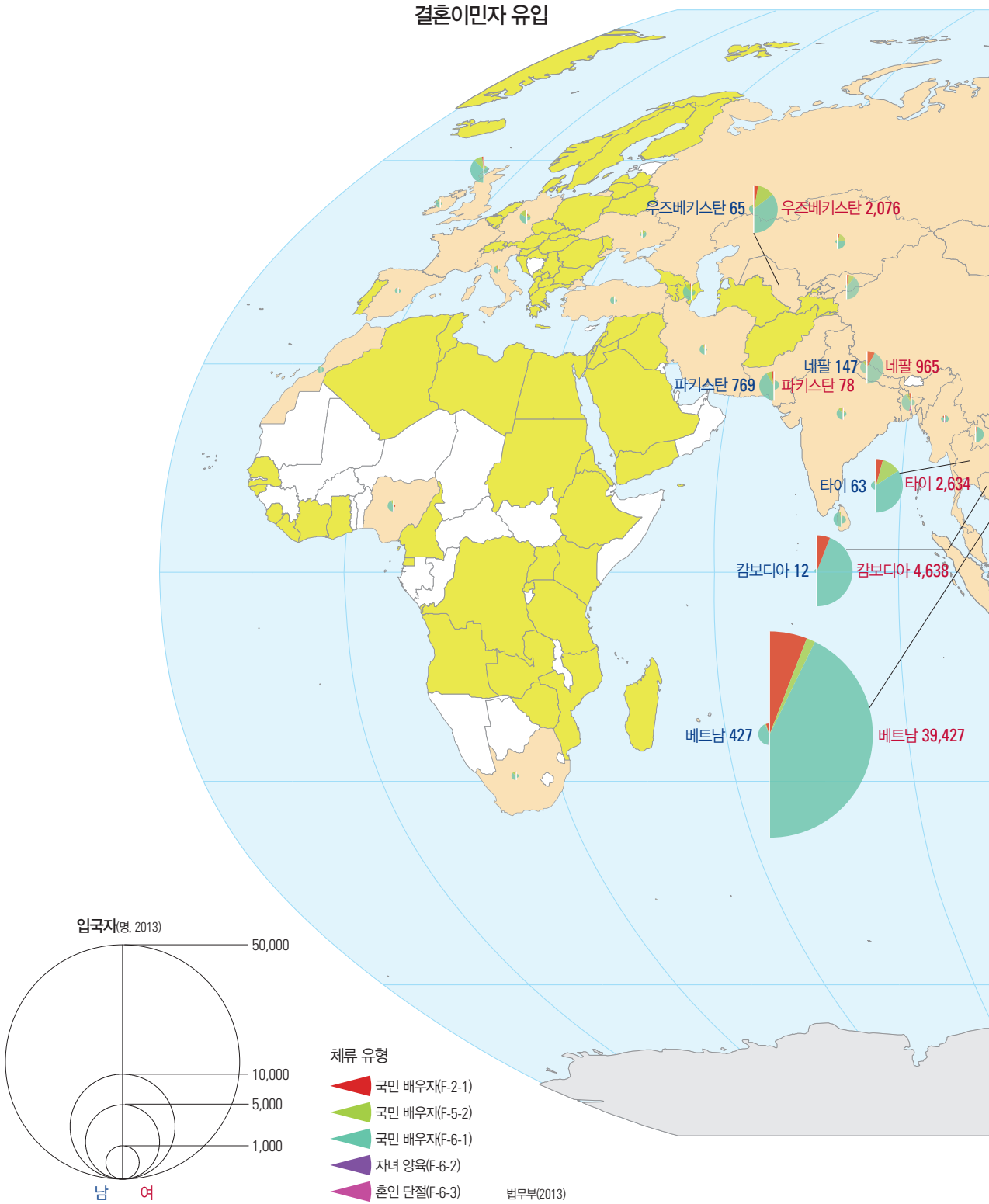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국 허가를 받은 자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인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기타 사유 국적자는 2006년 약 14만 명에서 2013년 현재 약 28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을 국적별로 살펴 보면, 다문화 가족 구성원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 주로 아시아 지역 출신이 압도적이나, 러시아와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등의 남부 아시아,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유럽, 미국과 캐나다 등의 북미 지역 출신도 적지 않다. 각 국가별로 남녀의 비율이 상이한데, 일본 및 동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중 여성들이, 남부아시아, 유럽, 북미 출신의 외국인 중 남성들이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기타 사유 국적자의 지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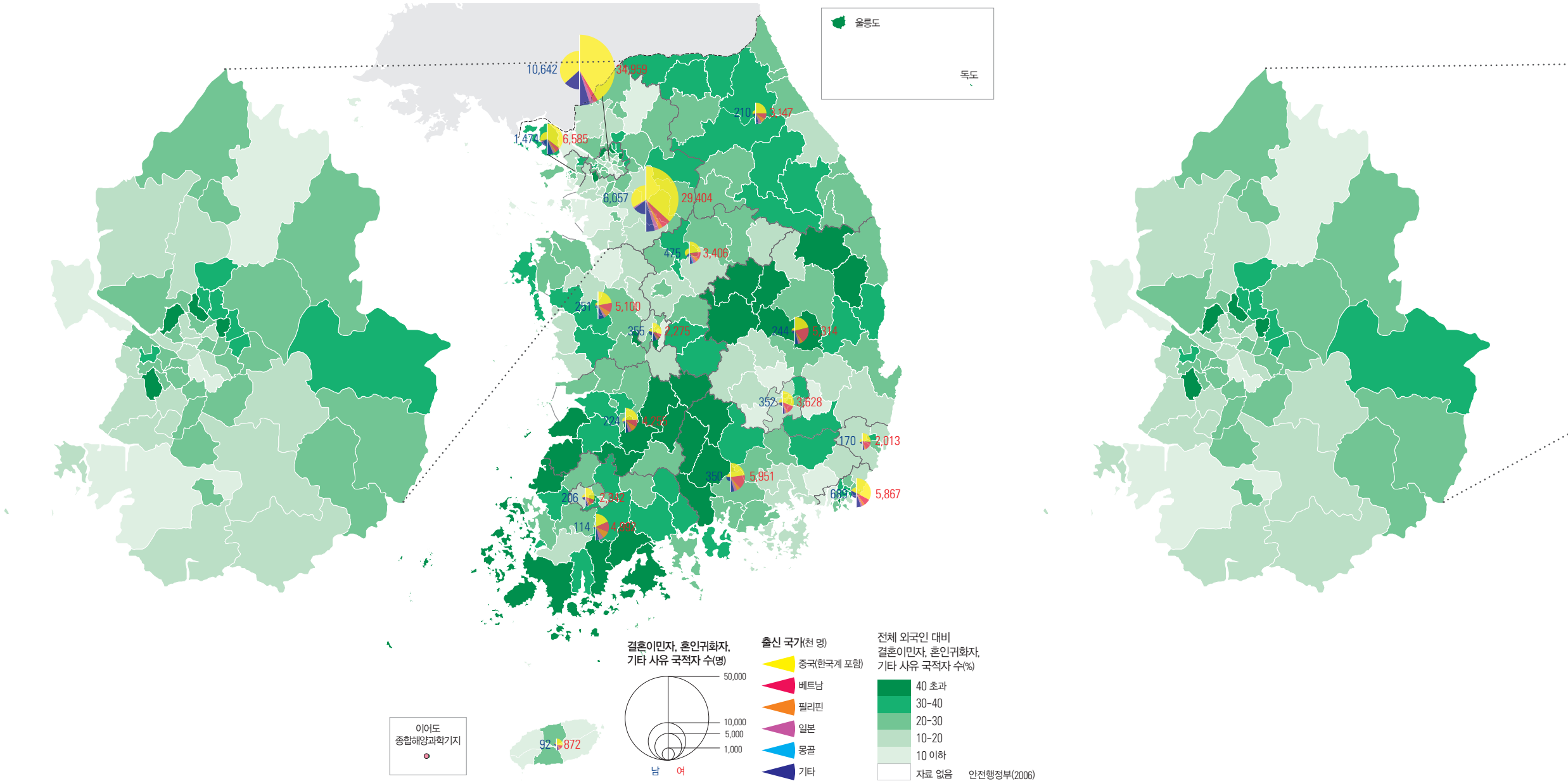
분포를 살펴보면,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와 부산광역시, 경상 남·북도, 충청남도과 전라남도 등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이는 출신 국가 및 남녀의 비율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도 시 지역에는 중국 출신의 남성이 중심으로 분포하는 데 비해,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등 출신의 여성이 집중해 있다. 또한, 2006년과 비교해 보면,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 수는 증가했지만, 전체 외국인 중에서 다문화 가족을 구성하는 외국인의 수는 다소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지식 산업 및 전문직 종사자, 이민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 또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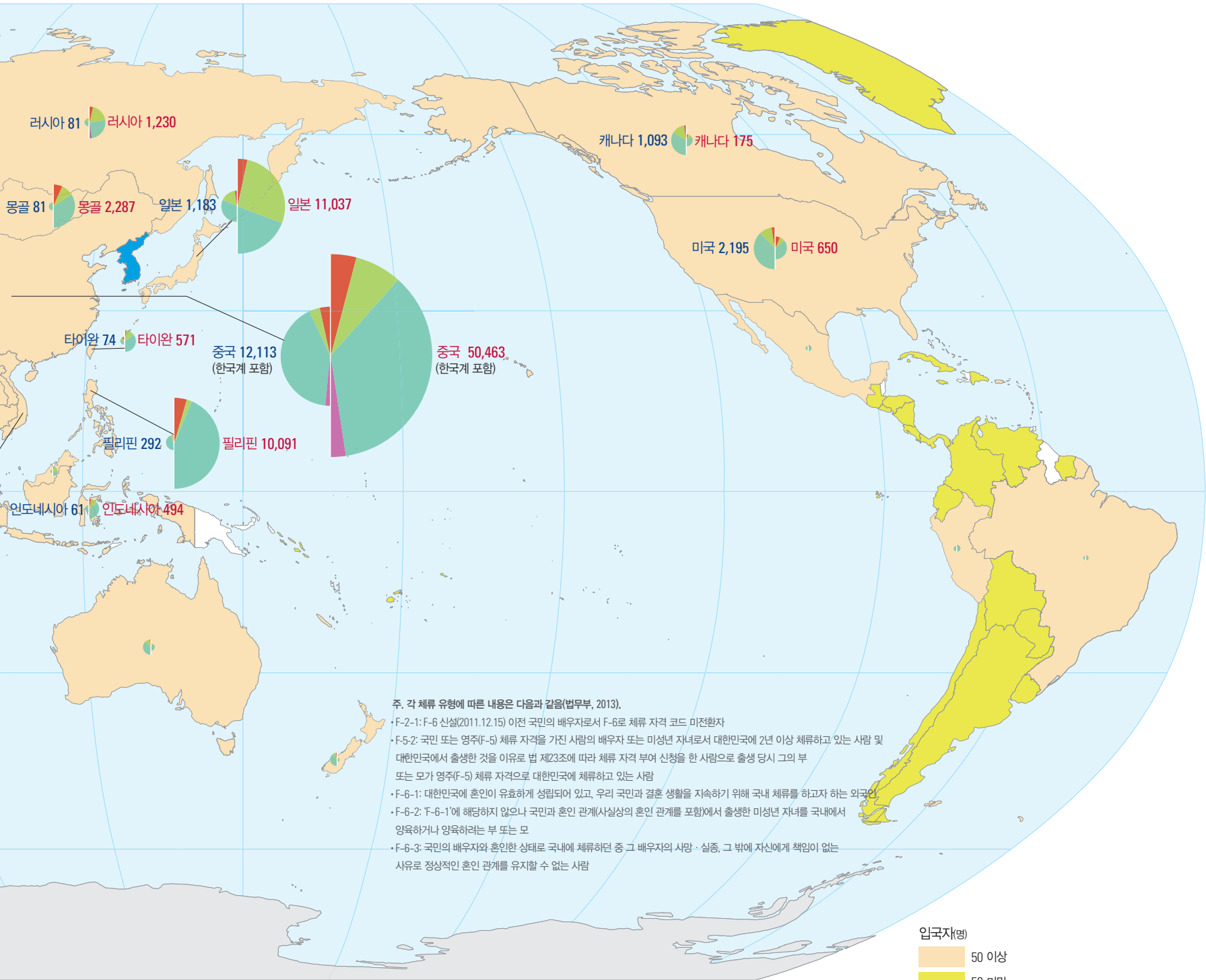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고 다양화되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전국적으로 214개의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는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이 우리나라에 안정적 으로 정착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경제적인 상황 혹은 거리상의 문제로 정 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또는 그 가족을 대상 으로 한국어 지도 및 방문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통·번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문화 가족 자녀의 성장을 위해 언어 발달 지원 및 언어 영재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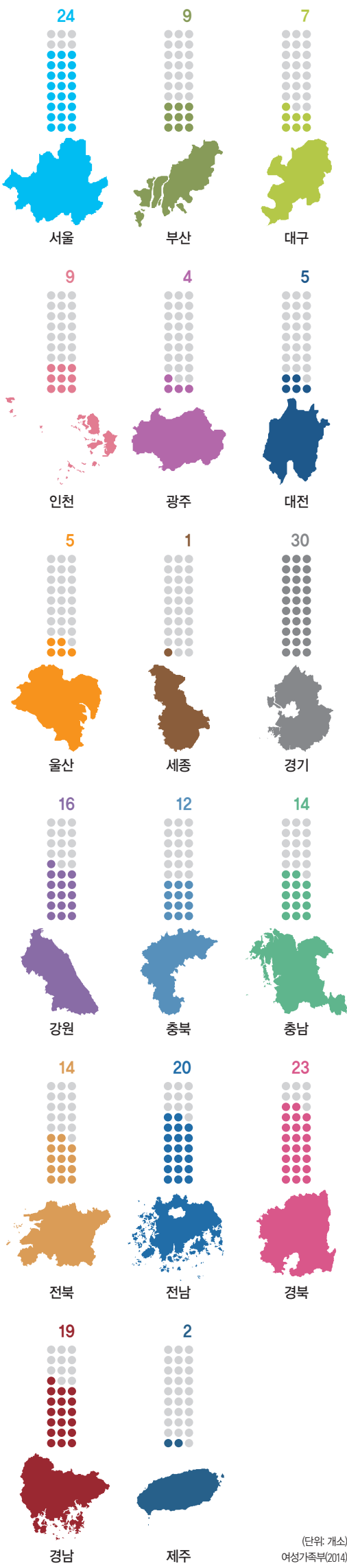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기타 사유 국적자 분포(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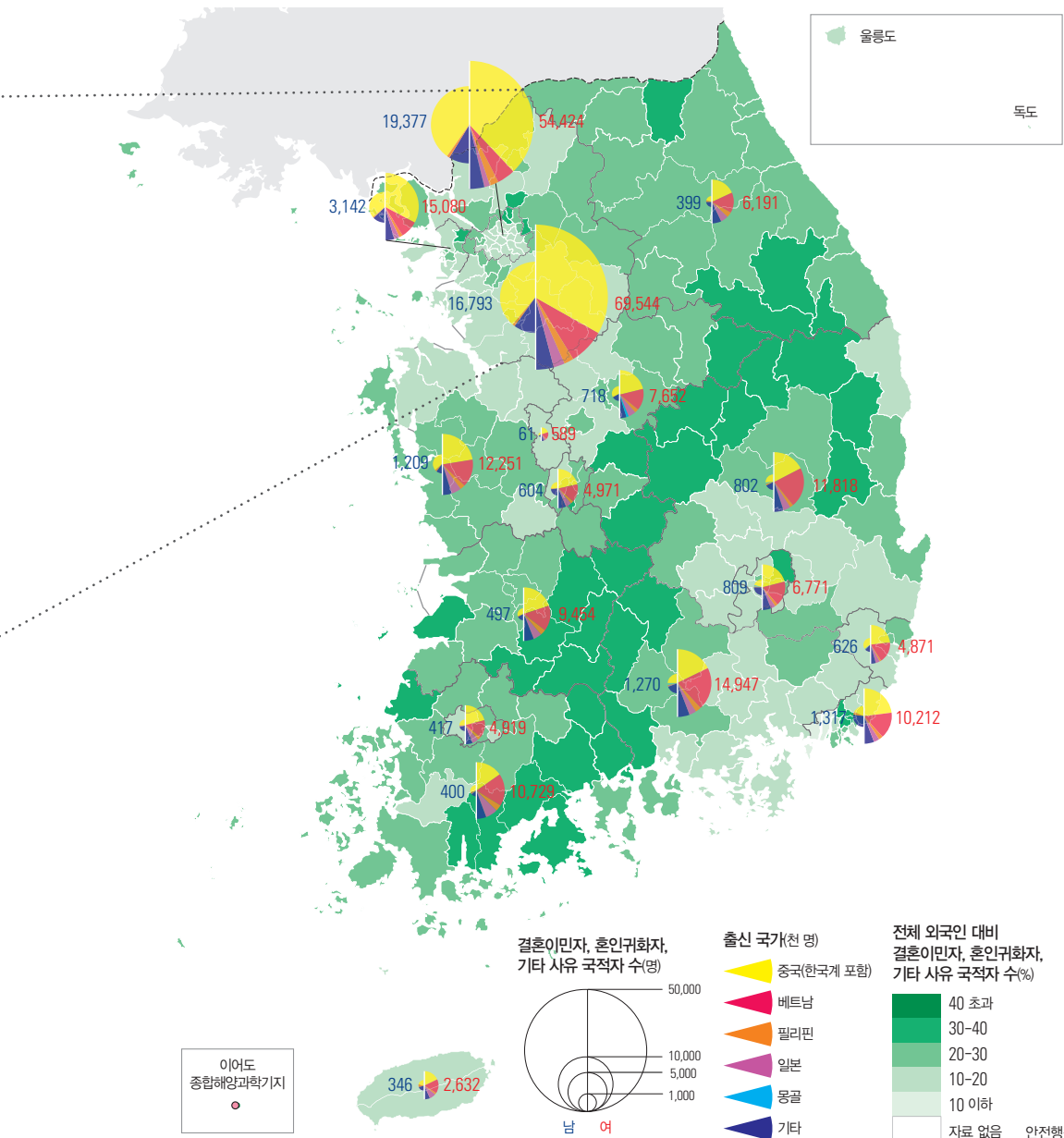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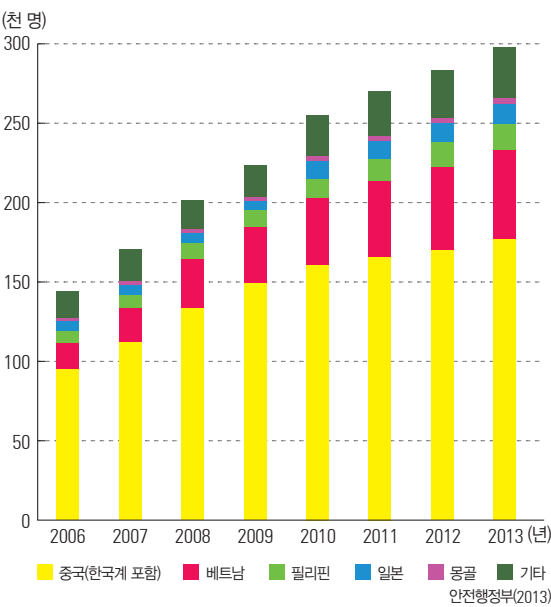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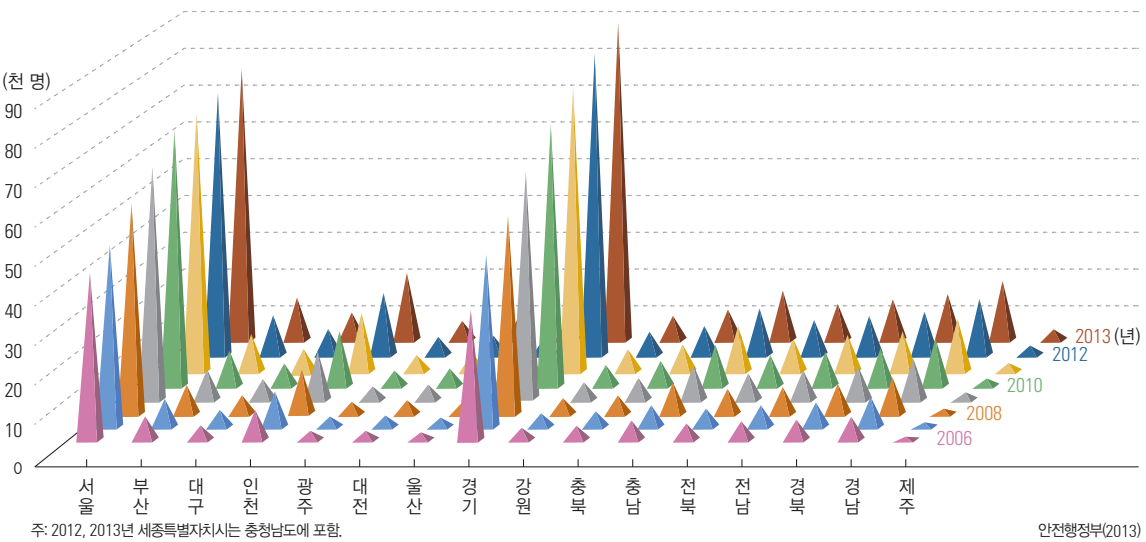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기타 사유 국적자 분포(2013년)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기타 사유 국적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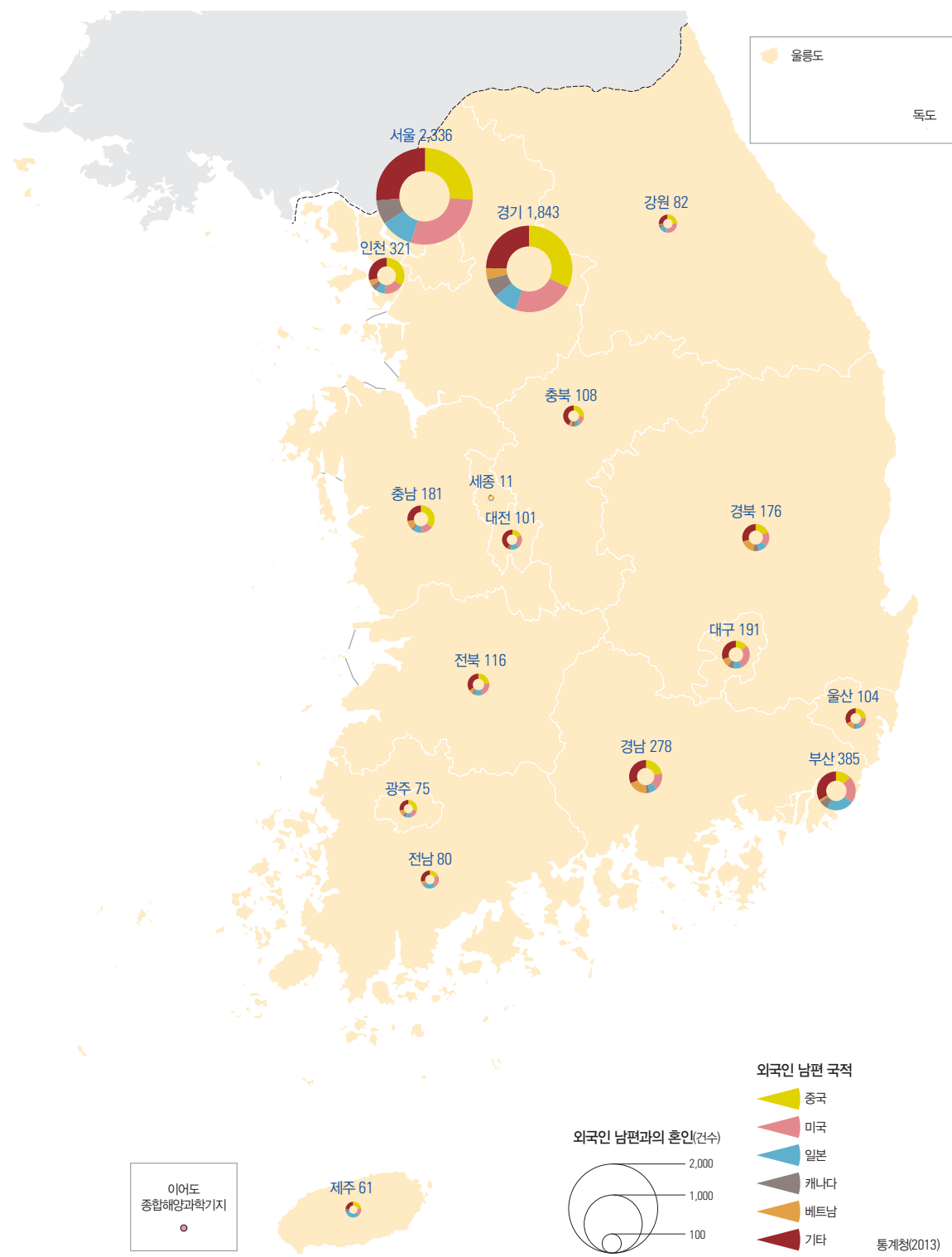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기타 사유 국적자 시·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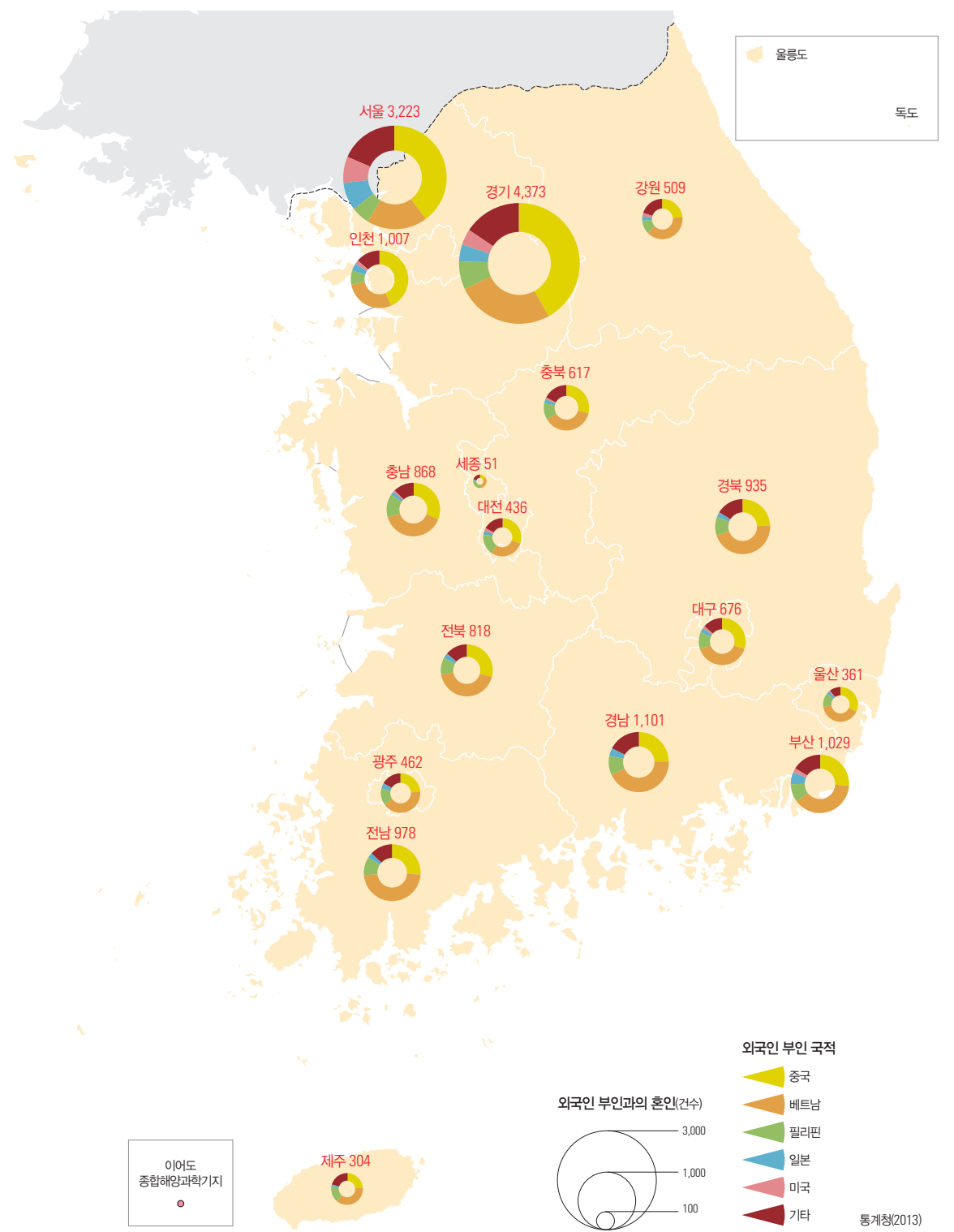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과 이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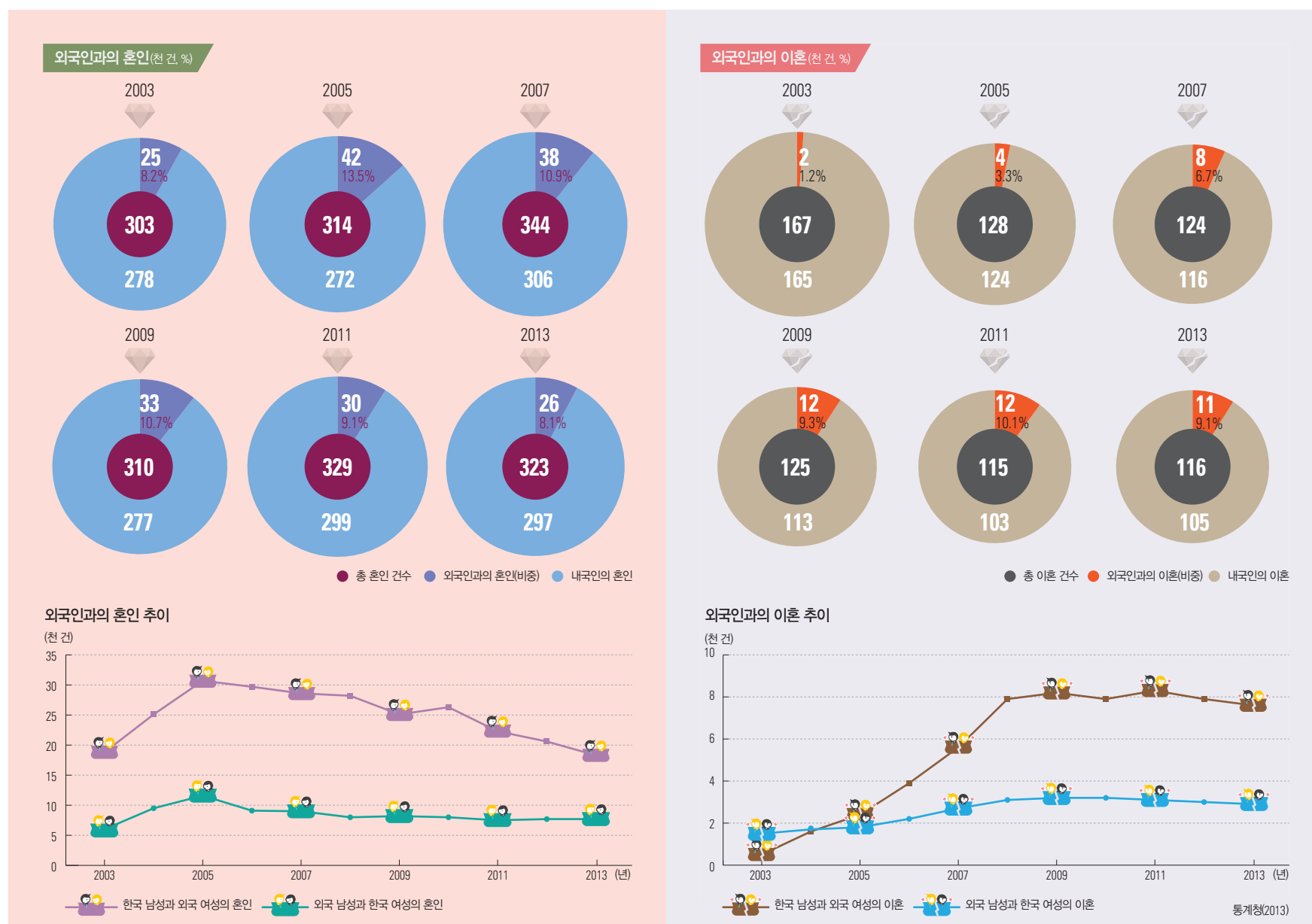
외국인 남편과의 혼인 건수 및 출신 국가



외국인 부인과의 혼인 건수 및 출신 국가



외국인과의 혼인 및 이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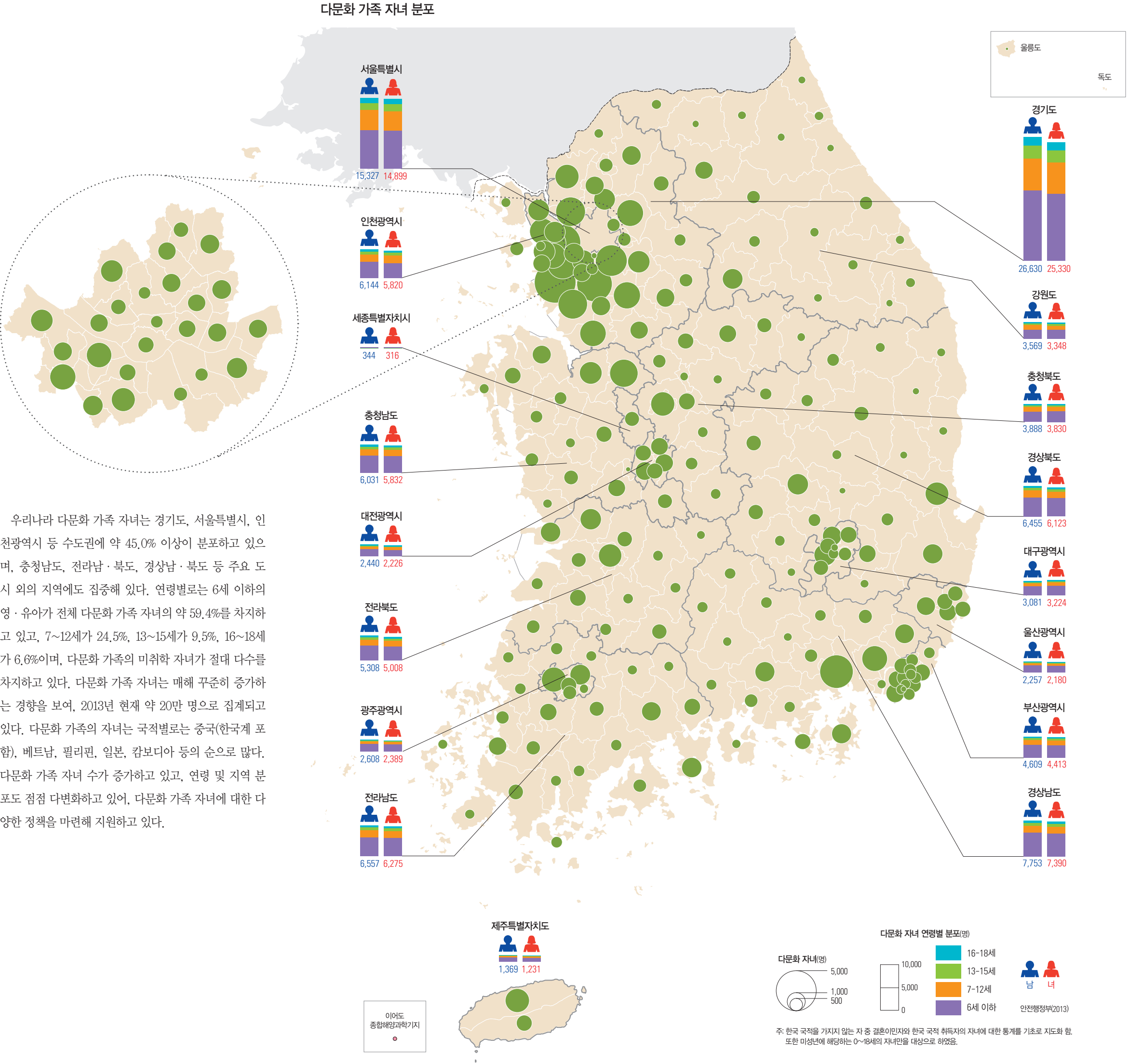


외국인 혼인 중에서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혼인 건수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의 순이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 건수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의 주요 국적은 중국, 미국, 일본 등이며, 한편 한국인 남성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의 주요 국적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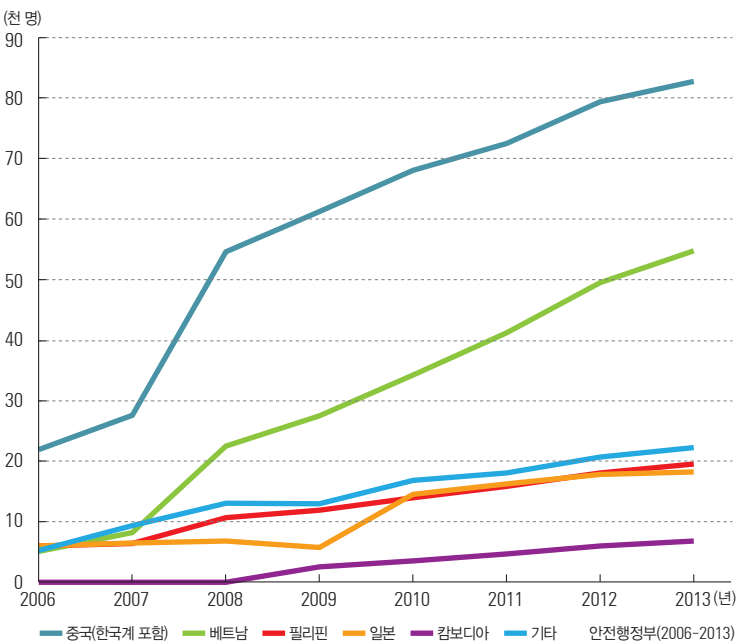
외국인의 혼인 및 이혼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200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최근에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3년 현재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우리나라 총 혼인 건수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은 2013년 현재 약 1만 5백 건으로 집계되는데, 우리나라의 총 이혼 건수 중 약 9.1%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율은 2011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인 여성과 이혼한 외국인 남성의 주요 국적은 일본, 중국, 미국 등의 순이며, 한국인 남성과 이혼한 외국인 여성의 주요 국적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이다. 시·도 별로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을 살펴보면,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이혼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나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이혼은 경기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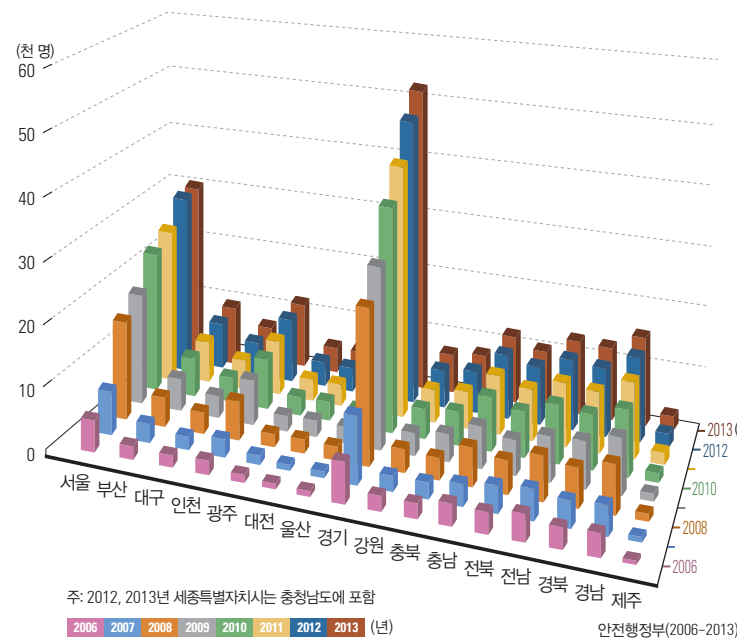
다문화 가족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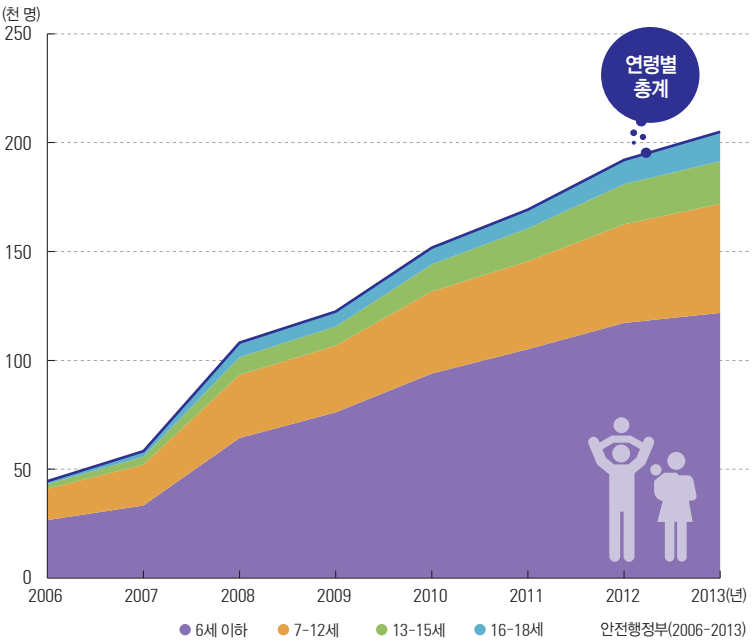
국적별 다문화 가족 자녀 수 추이



시·도별 다문화 가족 자녀 수 추이



다문화 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한류

‘한류(韓流)’라는 단어가 처음 쓰일 당시만 하더라도 이는 한국 기업이나 한국 제품을 의미했다. 하지만 한국의 드라마, 가요 등 한국의 대중문화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남아메리카 등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현재는 ‘유행하는 한국 대중문화의 흐름’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다. 통상 한류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한류의 시작인 한류 1.0은 1997년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 CCTV를 통해 방영된 시점으로 보고 있다. 당시만 해도 (대중)문화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중국에서 연속극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한국 드라마와 함께 가요도 인기를 끌었다는 점에서 한류의 시초로 보고 있다. 한류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중국, 타이완, 베트남 등에서 본격화되었다. 한국 드라마의 가족애, 휴머니티, 순애보 같은 사랑의 주제는 아시아인에게 공감을 얻었고, 역동적인 댄스 음악에 많은 아시아 청소년들이 열광했다. 잠시 잠잠했던 한류는 2002년과 2003년에 우리나라의 정서와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드라마를 통해 대대적인 성공을 다시 거두었고, 이와 함께 일본, 타이완, 홍콩 등 새로운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한류 2.0은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였고, 그 중심에는 K-Pop이 있었다. 물론, 1980년대 우리나라 몇몇 가수들이

일본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도 타이완, 중국 등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한류 2.0시대에는 아이돌 가수가 세계 무대에 진출하였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유사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을 뛰어넘어, 미국과 유럽의 언론 및 대중의 관심을 뜨겁게 받았다는 측면에서 이전의 형태와 차별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동영상 전문 사이트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한류의 확산,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드라마의 전 세계적인 관심, 드라마와 음악 이외의 다양한 예술 분야로의 한류의 확대 등이 한류 2.0시대의 또 다른 특징이다.

한류 3.0 시대는 전통문화, 문화·예술, 문화 콘텐츠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K-Culture라 한다. 기존의 한류가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일부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한 의미라면, K-Culture에는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류의 지역과 대상은 이미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이며, 소수의 열성팬을 넘어 보편적인 세계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류의 교감 지역이 전 세계인 것은 물론, ‘전 세계인이 함께 하는 한류’라는 목표를 반영한 것이다.

한류 시기별 특징

구분	한류 1.0	한류 2.0	한류 3.0
시기	1997-200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 이후
특징	한류의 태동 영상 콘텐츠 중심	한류의 확산 아이돌 스타 중심	한류의 다양화
핵심 장르	드라마	K-pop	K-Culture
장르	드라마, 영화, 가요	대중문화, 일부 문화 예술	전통문화, 문화 예술, 대중문화
대상 국가	아시아	아시아, 유럽 일부,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미국 일부	전 세계
주요 소비자	소수의 마니아	10-20대	세계 시민
주요 매체	케이블 TV, 위성 TV, 인터넷	동영상 전문 사이트, SNS	모든 매체

문화체육관광부(2013)



한류 열풍(프랑스 파리)



K-pop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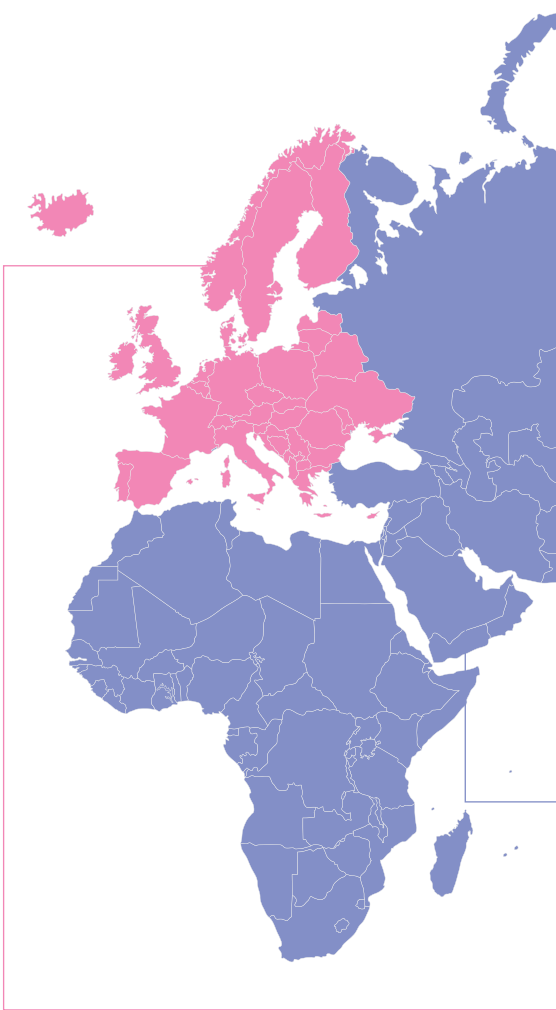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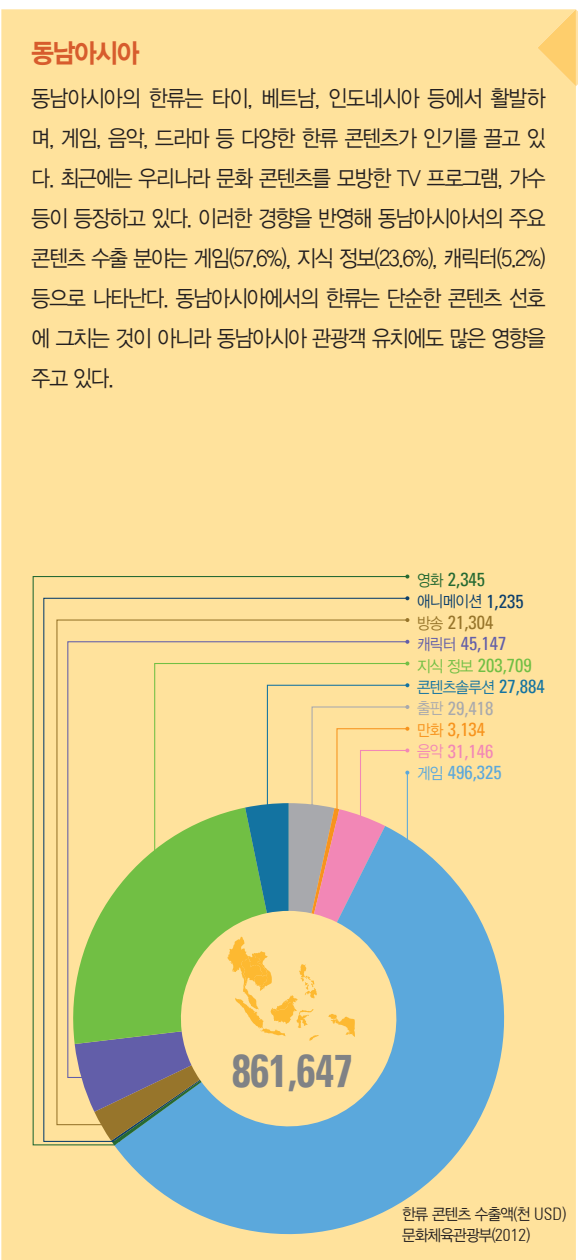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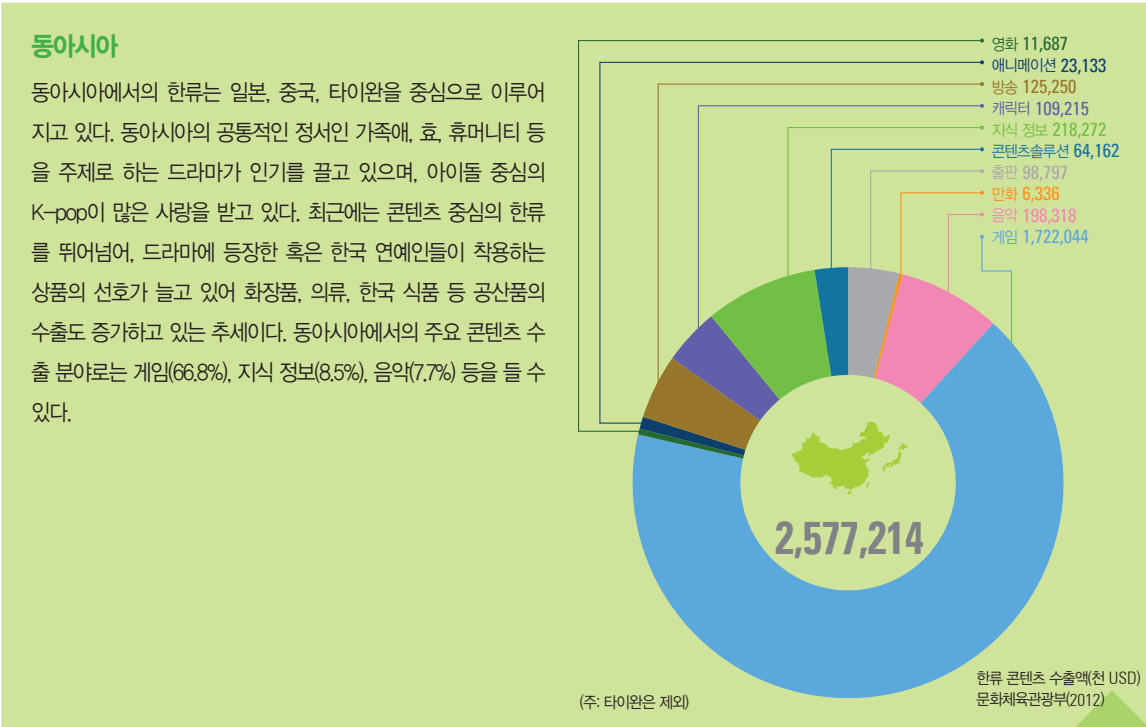
한류 중심의 문화 산업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콘텐츠 산업을 들 수 있다. 문화 콘텐츠란 창의성, 상상력, 인간의 감성 등을 바탕으로 두고, 문화 요소를 포함시켜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게임, 지식 정보, 캐릭터, 출판, 방송, 음악, 콘텐츠솔루션, 애니메이션, 광고, 영화, 만화, 공연 등을 콘텐츠 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수출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게임 분야는 콘텐츠 산업 수출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에 약 5억 6,455만 달러를 수출했으나,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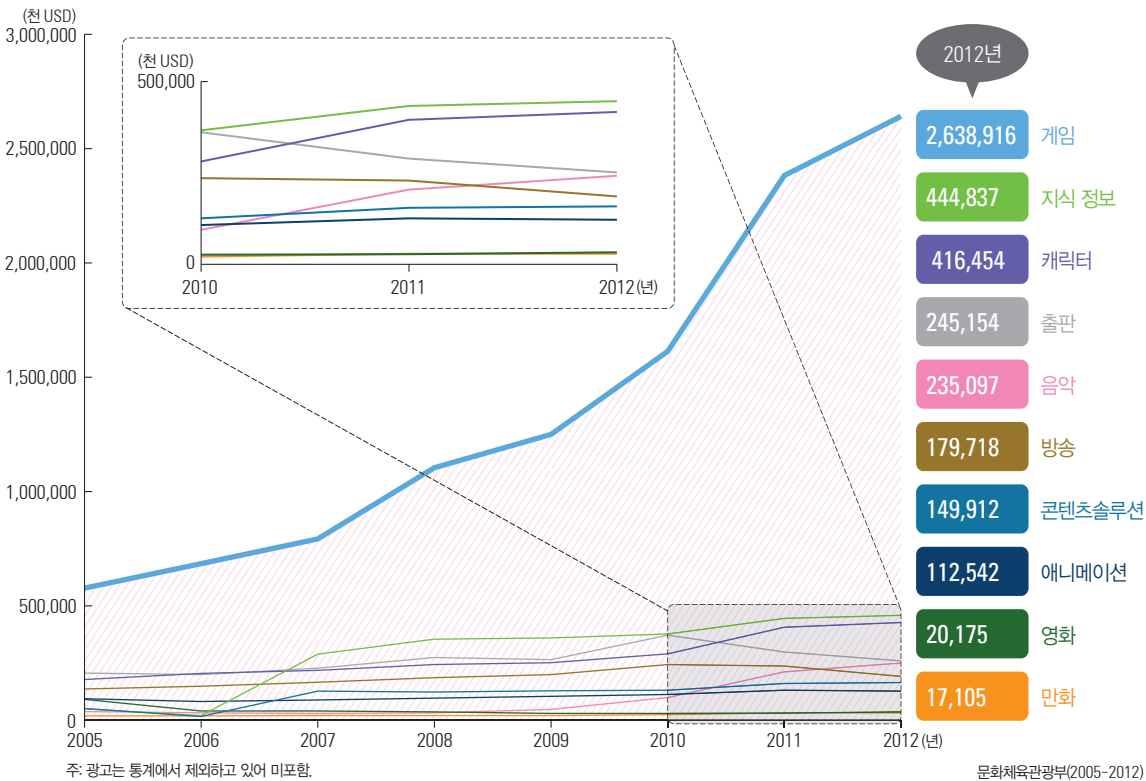
년에는 약 26억 3,892만 달러를 수출해 짧은 시간 안에 약 5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외에도 지식 정보, 캐릭터, 방송, 음악 등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드라마, K-pop,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전 세계인이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즐기고, 한국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한류 현황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주요 수출 지역 및 수출 비율은 동아시아 57.8%(중국 27.6%, 일본 30.2%), 동남아시아 19.3%, 북아메리카 11.0%, 유럽 7.4%, 기타 지역 4.5%이다.

주요 한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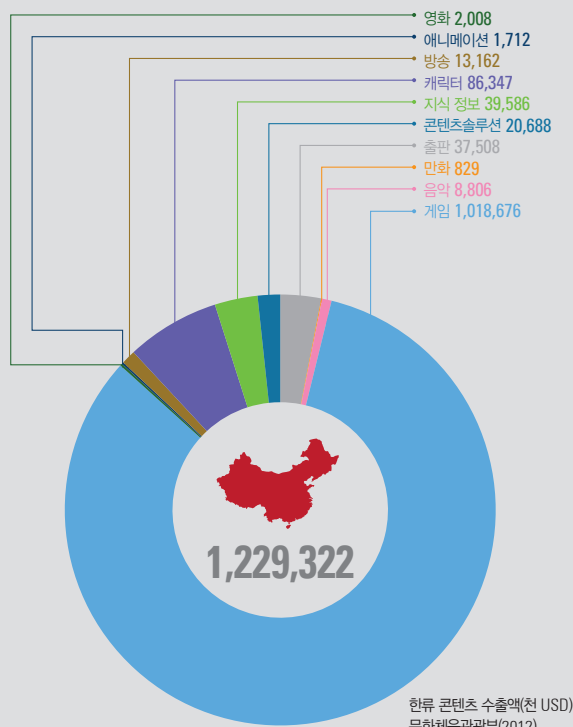


한류 콘텐츠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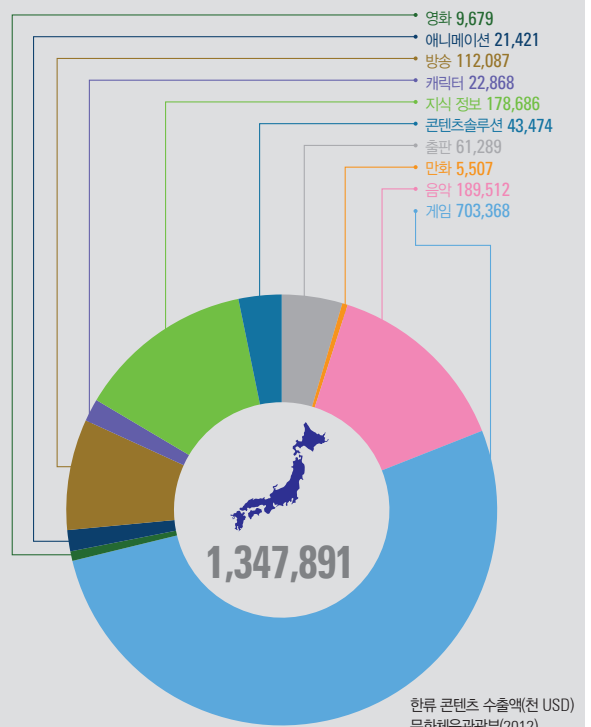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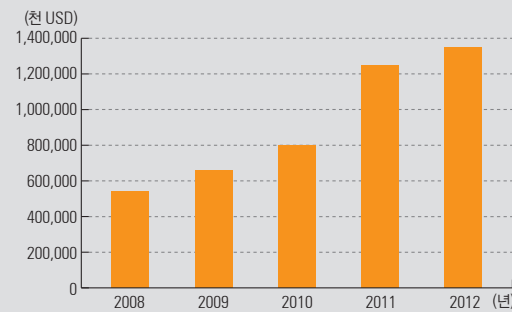
중국

중국에서의 한류는 1990년대 말 드라마의 수출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고, 중국에서의 방송 콘텐츠의 성공은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수출의 약 27.6%가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드라마에 등장했던 혹은 중국인이 선호하는 한류 스타의 애장품으로 소개되는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등의 공산품은 또 다른 수출 품목이 되었으며, 한국 음식에 대한 선호로 인해 관련 업계가 중국 본토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또한 한류는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국내 관광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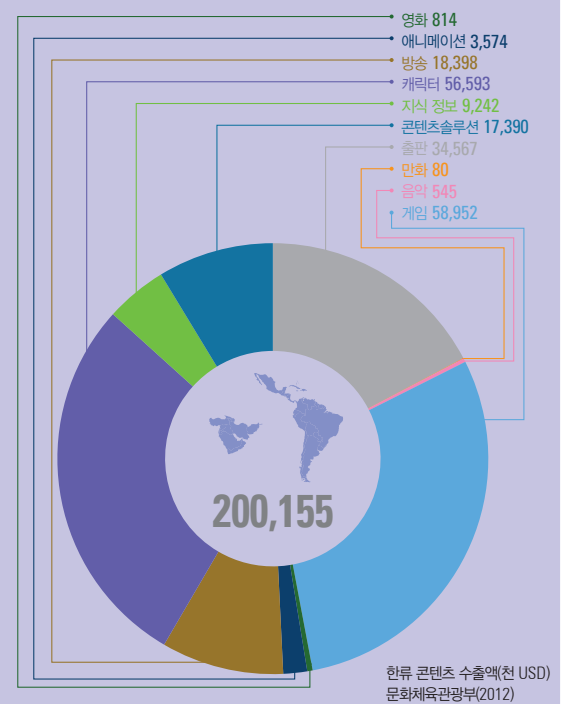
일본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콘텐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 방송 콘텐츠 수출의 약 60%, 음악 콘텐츠 수출의 약 80% 정도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중장년 여성층의 드라마 선호를 통해 서서히 형성된 일본 내 한류의 분위기는 여전하며, 최근에는 중장년층 남성과 10~30대에 이르는 젊은층 등 폭넓은 대상에 한류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K-pop 아티스트의 곡은 물론이고, 힙합, 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까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신인 혹은 정식으로 데뷔하지 않은 연예인까지 일본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기타

서남아시아

서남아시아에서의 한류는 드라마, K-pop 등의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그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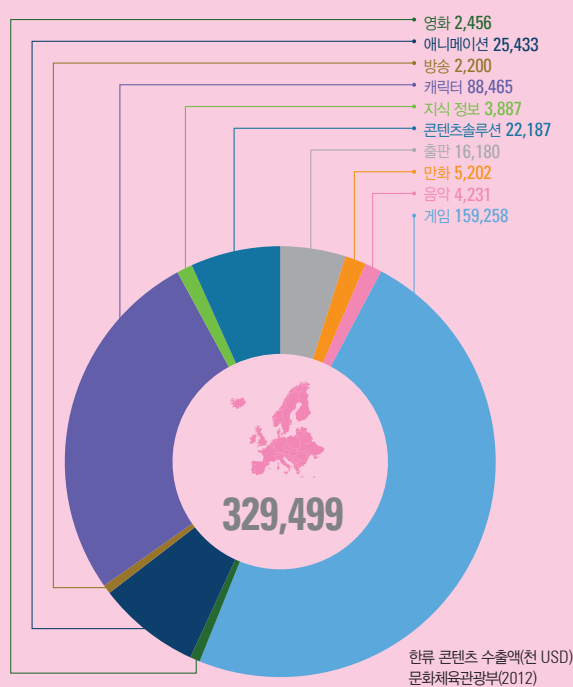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서는 드라마, K-pop 등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10~20대를 중심으로 하는 선호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한류 동호회만 300여 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한류 동호회의 약 1/3을 차지하는 숫자이다. 최근에는 K-pop 플래시 몹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유럽

동유럽에서는 드라마 수출을 계기로 한류가 시작된 반면, 서유럽에서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방송 콘텐츠가 그 시발이 되었다.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는 K-pop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에서는 K-pop 댄스만을 선보이는 팀이 다수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과를 설치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고, 한류만을 다루는 잡지가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 한국 영화의 정기 상영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에서의 주요 콘텐츠 수출 분야로는 게임(48.3%), 캐릭터(26.8%), 애니메이션(7.7%) 등을 들 수 있다.



북아메리카

문화적 유사성이 적은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도 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북아메리카에서 한류의 핵심적인 성공 요인은 가족 중심의 사랑, 순수한 정,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 등을 바탕으로 하는 콘텐츠의 신선함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북아메리카 내에는 아시아에서 건너 온 이민자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류가 흡수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조성되었던 것도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콘텐츠 중심의 선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식의 확대, 할리우드 영화 산업의 진출 등으로 북아메리카에서의 한류는 다각화되고 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게임(41.2%), 캐릭터(23.8%), 출판(13.5%) 등을 주요 콘텐츠 수출 분야로 꼽을 수 있다.

